

선진규 원장(봉화산 정토원)
"재가불자 결집해
'대자각운동' 펼치자"
8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14일) · 주간

제1017호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마음은 맞기도 안 맞기도 한다
마음 맞아도 탐욕을 내지 말고
마음 안 맞아도 미워하지 말라.

필요성 높은 신도품계 일선 사찰은 '외면'

조계종 신도 정책을 점검하다

① 시행 5년 신도품계와 조직화
② 신도재교육 '불교대학'의 명암
③ 신도정책 변화 성공하려면

〈표〉 신규 및 재발급 발심품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신규	27,743	32,160	31,083	30,291	27,602	148,879
재발급	21,970	23,425	11,575	8,046	6,864	71,280

종단 신도 교육 · 조직화위해
2009년부터 품계제도 도입
발심·행도·부동·선혜 등급화

현재까지 22만명 발심 등록
증가 추세지만 활성화 '아직'
사찰 동참 미흡… 대책 시급
승급 대한 '동기 부족'도 문제

품계자만 신도회 가입 가능
초기 시행시 사찰 반발 우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법령에 의거해 신도 등록을 시행한 것은 1995년부터다. 당시 총무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포교원은 1995년 이후 5년간 200만 명의 신도등록을 목표로 야심차게 신도등록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이후 사업이 저조해졌다.

결국 조계종 포교원은 교육화된 신도 양성과 조직 체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신도품계제도로 신도등록 사업을 전환했다. 신도품계제도의 핵심은 신도의 등급을 발심 · 행도 · 부동 · 선혜의 4단계로 나누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승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된 신도품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 밖에 없다.

포교원이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부터 현재까지 발심 품계에 등록한 신도는 약 22만 명이다. 이중 새로 등록한 신도는 14만 8천 명이고, 기존 신도증(품계 시행 전) 발급자 중에서 발심으로 전환한 신도는 7만 1천 명 가량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의 경우 매년 2만 7천 명에서 3만 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2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는 행도 품계는 지난해 8900여 명이 받았으며, 불교대학 과정 이수나 꾸준한 신행생활을 통해 인정받는 부동 품계의 경우 4500명이 품서했다. 수치를 보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계종 사찰 수를 고려하면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12시간 기본 교육만 받으면 품수되는 행도로 승급하는 발심 품계 신도는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도품계제도가 기대 이상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선 사찰에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구 본사 등에서 추천 인사가 거의 올라오지 않아 신도품계 최고 품계인 '선혜'의 최초 품수가 10월 30일에서 11월 10일로 연기된 것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기존 신도들을 대상으로 발심품계를 등록하고 축원(기도)카드를 작성을 유도하기에는 사찰 행정이 녹녹치 않고, 발심→행도→부동→선혜로 진행되는 승급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것도 신도품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실제 한 사찰 주지 스님은 "소규모 사찰에서는 품계제도를 적용해서 신도를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또한 품계제도에 대해 아는 스님과 신도도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기대 이상 종책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찰 관계자는 "종단에서 요구하는 신도교육 커리큘럼이 사중에 마련돼 있지 않다. 불교대학을 만들기도 어렵고 주위 불교대학에 신도를 보내 교육을 받게 하기도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품계 제도에 대해서도 '불자로서의 기본인 신심을 키우기보다 지식부터 주입한다'고 인식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2면에서 계속〉

신성민 · 이나은 기자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10월 30일 2급 승가고시 합격자 스님들에 대한 법계 품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비구 스님 53명에게 대덕 법계, 비구니 스님 38명에게 혜덕 법계가 내려졌다. 종정 진제 스님은 "선 · 교 · 율 · 교화 · 행정의 모든 분들이 안으로는 참나를 밝히는 데 혼신의 정력을 다 쏟을 것"이라며 "밖으로는 간화선을 널리 선양하고 포교함에 힘써야 한다"고 설했다. 이와 함께 오후에는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비구 스님 145명이 중덕 법계, 비구니 스님 139명이 정덕 법계를 각각 품수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파손되고 흩어지고 寺址 문화재 보존 '시급'

사지 성보 24%만 원위치… 국보급 문화재도 관리 엉망

원각사지석탑 유리보호각이
훼손 가져와… 전면에 풍화
비지정 성보 대부분 도난 노출

한번 손상되면 원형회복이 어려운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 야외에 방치돼있는 사지 내의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최근 사지학술조사사업 손상현황자료집을 발간했다. 손상현황집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전체 사지 내 문화재 4976건 중 심각한 상태의 48점의 상황을 다뤘다. 이에 따르면 48점 중 17점이 보호시설이 없는 방치 상태였으며, 16점은 보호철책 등 인위적인 접근을 막는 1차적인 보존관리에 불과했다. 훼손 정도는 구조손실, 화학적 풍화, 이끼류, 침식 등 다양했다.

이중에는 국보와 보물도 대거 포함돼 있다.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1999년 장기보존을 위해 유리보호각을 세운 것이 오히려 탑의 상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로에 위치한 관계로 유리보호각 내에 분진이 쌓여 석탑 표면에 결합돼 흑색피각 등 화학적 훼손이 일어났으며 석탑 전면에는 구조 손실로 차별침식과 화학적 풍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유리보호각 내에 태양복사열로 인한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유로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청이 2014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고 된 부분이다.

국보 59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도 귀부와 이수 일부분이 조류와 지의류에 의해 피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에 있는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지대석과 하대석의 연결부분은 결구가 어긋나 석재 일부가 돌출된 상태로 이격 및 침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진과 유리보호각 내 온도변화로 화학적 훼손이 일어난 원각사지 10층석탑의 일부모습

이러한 문화재 훼손은 사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도난에서부터 무단 반출 등 전반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지정 및 비지정소재문화재 망실현황'을 보면 전체 사지 내 문화재 4976건 중 원위치에 있는 경우는 1218건으로 24.5%로 옮겨진 경우가 63.1%인 3142건에 달햇다. 전체의 12.9%인 616점이 이미 망실됐다. 이동된 3142건 중에는 1354건이 반출됐다. 그 요인은 주변개발 등으로 주로 전시관, 행정시설로 옮겨졌다.

문제는 이같은 사지 문화재 4976건 중 지정문화재가 1035건에 불과하단 점이다. 대부분의 비지정문화재는 위의 지정문화재보다 더욱 훼손과 도난 멸실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먼저 훼손 및 보존상태에 따른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이후 상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사지 내 문화재가 원위치에 있더라도 정비 · 보존된 것은 23%에 불과하다"며 "모든 사지와 그 문화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할 수 없기에 각 사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월 31일 사지 내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9면〉

불교 가르침 따른 치료법 연구한다

동국대 의료원 산하 불교의학연구소 설립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 몸과 마음의 병을 모두 다스리는 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가 동국대 내에 문을 열었다.

동국대 의료원은 10월 24일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불교의학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초대 불교의학연구소장으로는 정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취임했으며 성낙진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구병수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김도연 혈액종양내과 부교수, 신성준 신장내과 부교수, 이남영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김세현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막연하게 참선과 명상 등 불교수행이 심신안정에 도움을 준다는데에서 의학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에 적합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이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병원전법단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기금 공모에도 나선다.

정인원 소장은 "불교의학연구소는 불교의학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실용적이면서 의, 생명 과학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전법활동에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사
〈관련인터뷰 4면〉

"비구니 승가의 正法眼藏을 염려하며..."

현재 비구니 승가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비승가적 행태를 지켜보며 실로 깊은 우려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수행과 정진으로 진실중정(眞實中正)의 마음을 갈무리 하여도 그 본분을 지키고 행함에 부족함이 있을진대, 어찌!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끝없이 배(船)를 흔들어 각자의 달빛을 이지러지게 하고 있는지 극히 염려됩니다.

물러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명분 없는 허명과 집단의 이익을 좇아서 분주히 오가며 화합을 방해하고,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하여 그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될 것입니다.

독화살의 비유처럼 소득 없는 시비를 일삼기보다 부족한 점은 대화로 상호보완하며 수행자다운 해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함허(涵虛)스님은 "구류동거일법계 자라장리살진주(九類同居一法界 紫羅帳裏撒眞珠)"라 하여, 아홉 종류의 생명들이 한 법계에 함께 사는 일이, 마치 아름다운 비단 위에 진주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다른 모양과 다른 생각, 더 나아가서 다른 종류의 생태 변화까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안으로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국비구니회는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보탑입니다. 현재 비구니계 안팎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바,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열린비구니회모임(가칭) 간에 불거진 문제의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비구니 승가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듭 비구니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화로써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라면서 전국비구니회 원로위원들의 뜻을 전합니다.

불기 2558년 10월 30일

전국비구니회 원로위원

경순스님, 명성스님, 묘관스님, 백졸스님, 법용스님, 법운스님, 법희스님, 불필스님, 재운스님, 진관스님, 현묵스님, 혜해스님, (가나다 순).

“개산조 태허 스님 가르침 펼칠 것”

관음종, 내년 창종 50주년 개산조 태허 스님 사상 선양

“관음종 개산조이신 태허 스님은 한국 대표학승으로 화엄교학의 대가인 경운 스님의 제자이지만 평생을 법화행자로 법화법맥 전승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화엄경과 법화경 속에 담긴 참뜻을 살피고, 태허 스님이 밝히고자 한 회통을 통한 새로운 불교 전승에 앞장서겠습니다.”

1932년 29세의 나이로 대강백인 경운 스님 문하로 귀의한 관음종 개산조 태허 스님. 태허 스님은 화엄경을 배운 뒤 법화수행자로서 대중포교에 앞장 선 선각자였다. 2015년 관음종 50주년을 앞두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와 수행에 대한 대표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두 경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을 펼친 태허 스님을 선양하고, 그 사상을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27일 총본산인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태허조사 사리친견법회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리친견법회에서 홍파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것은 그 근기에 따라 제각각 다르기에 이를 언어와 문자로 잘 다듬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처님 가르침이 종교적 신앙과 신해의 지침이 되는 것을 초월해 인간의 기본 윤리와 도덕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살펴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관음종 종회의장 법명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불교중흥의 기치를 세운 태허 스님의 발원에 따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롭게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갈등의 허리가 잘린 민족이 하나가 되고 이 땅이 불국토가 되어 환희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법회 이후 원통보전에서는 태허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태허 스님 사리는 순천 선암사에 조성한 부도탑에 11월 1일 봉안됐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은 10월 27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스님 사리친견법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면에 이어〉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품계 활성화를 위해 신도 조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지난 10월 23일 ‘신도조직 개선 관련 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도조직의 구성 원칙과 회원 자격, 임원 임명 등의 요건을 종법에 명시화하고 중앙신도회-교구신도회-사찰신도회의 대의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찰 신도회는 ‘당해 사찰을 재적사찰로 하는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로 구성해야 하고 사찰 신도회장 역시 종단 신도품계 품수자로 사찰신도회 총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그간 입법 미비로 이뤄지지 못했던 중앙-교구-사찰 신도회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보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품계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회 구성을 품계 품수자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사찰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신도품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품계자로 신도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단 신도 조직이 빠르게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교구 신도회를 전부 구성해 12월 말에 중앙 · 교구신도회 임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회와 전문교육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품계 제도를 통한 신도 조직화의 초석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신도품계의 활성화 성패는 일선 사찰과 신도들의 호응에 달려 있는 것이다. 품계자로 구성되는 신도회 이외에도 발심품계 등록에 대한 주지 인사고과 반영 등의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신도품계 제도는 사부대중의 종단 정체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도회 조직 체계 정비를 비롯해 종국에는 주지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품계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이나은 기자

법계 연수 활성화… 직무제도 초석 놓다

조계종 법계별 연수, 첫 시행에도 스님 참여 활발

실무 · 심화 · 지도자 · 최고 과정
대부분 50~80명 스님 연수 참여
양질 강사로 강좌 진행 ‘눈길’
“법계직무제도 시행 기틀 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계종 법계별 연수교육에 대한 종단 스님들의 호응이 높다. 이에 따라 종단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계 직무제도의 기틀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올해 처음 ‘법계별 연수 교육’ 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했다.

법계별 연수 교육은 일종의 특성화 교육으로 법계별 위상과 역할에 따른 교육을 골자로 한다.

연수과정은 △견덕 · 계덕(5~9년)을 위한 종단리더십실무과정 △중덕 · 정덕(10~14년)을 위한 종단리더십심화과정1 △중덕 · 정덕(15~19년)을 위한 종단리더십심화과정2 △대덕 · 혜덕(20~24년)을 위한 종단지도자과정 △종덕 · 현덕(25~29년) 종단최고위과정 등 5회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의무사항이 아닌 최고위 과정은 4월에는 스님 34명 참가에 그쳤지만, 10월에는 6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른 과정들 역시 상반기보다 하반기 참가 인원들이 늘었고 평균 60~80명이 참가했다. 첫 시행된 연수 프로그램이지만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법계별 연수는 각 법계별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승납 5년에서 9년 사이인 견덕 · 계덕은 사찰과 포교현장 등 전법과 수행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실무를 배우고 현장성을 익히는 교육이,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승납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중덕 · 정덕 법계 스님에게는 사찰 주지 자격과 상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후학을 지도하고 수행과 전법에 관련된 교육을 집중했다.

총무원 부실장 등의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승납 20년에서 24년 사이의 대덕과 혜덕에게는 지역사회 및 교구와 종단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교구본사 주지와 계단위원 등을 맡을 수 있는 승납 25년에서 29년 사이 종덕 · 현덕은 현대사회 인류의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진들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원로의원 고우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등을 비롯해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김재춘 서울시장 보좌관, 김희옥 동국대 총장, 장화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의 밀도를 높였다. 교육 기간도 2박 3일로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법계별 위상과 역할에 따른 한국사회 현실과 불교의 역할을 고취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수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 같은 연수교육이 진행되면 종단이 추진하려 하는 법계 직무제도의 초석은 자연스럽게 놓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내년도 예산 480억원

29일 종무회의서 예산안 확정… 전년 대비 7.4% 증액

일반회계 240억원 · 특별회계239억원
총본산 성역화 · 승려복지 등에 집중
인건비 조정 · 일반 사업비는 삭감해
11월 11일 16대 개원 종회서 의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4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회계 240억 4천여 만원과 특별회계 239억 7천여 만원을 합친 것으로 올해와 대비해 총 7.4%로 증가한 액수다.

조계종 기획실은 10월 29일 오후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전 종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오는 11월 11일 중앙종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올해 예산 기조는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에 집중 편성됐다. 대신 휴일수당 조정을 통한 인건비 축소, 일반사업비의 예산을 줄였다.

기관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 종무행정이 이뤄지는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문화부, 호법부, 포교원 등은 예산이 축소됐다. 하지만 종교용지 등의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 재무부와 내년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진행하는 사회부는 예산이 각각 22%, 8%로 증액됐다.

중점과제에 대한 사업 집중을 위해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로 5억 원, 승려복지에 2억 원,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5천 800만원이 각각 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에 3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밝힌 대로 중앙분담금을 동결했다. 직할분담금도 동결됐지만 약사사와 선암사 직할 전환으로 소폭 상승했다. 법인분담금은 선학원이 1억 원으로 동결됐고, 법인등록을 한 대각회는 2000만 원 감액됐다. 문화재관람료 분담금은 올해 대비 6% 증가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 관계자는 “각종 세입 감소 및 중점 전략과제 집중에 따라 일반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축소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했다”면서 “이를 통해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 원로 스님들 “是非 멈추길” 일갈

불필 스님 등 12명, 30일 서한문… “정법안장 염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내홍에 대해 비구니 원로위원 스님들이 소득없는 시비를 멈출 것을 일갈했다.

불필 스님, 명성 스님, 법희 스님, 혜해 스님 등 12명의 비구니 원로위원 스님들은 10월 30일 서한문을 통해 시비보다는 수행자다운 해법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들은 서한문에서 “현재 비구니 승가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비승가적 행태를 지켜보며 실로 깊은 우려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독화살의 비유처럼 소득없는 시비를 일삼기보다 부족한 점은 대화로 상호보완하며 수행자다운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보탑”이라며 “임원진과 열린비구니회모임(가칭) 간에 불거진 문제의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비구니모임은 전국비구니회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으며, 강원 강사 스님을 비롯해 선원 수좌 스님들은 열린비구니모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비구니 원로 스님들의 호소가 장기화되는 비구니 승가의 갈등에 해결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총장 선출 절차 본격 돌입

28일 총장추천위 규정 개정

동국대가 김희옥 현 동국대 총장의 2015년 임기 만료에 따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제18대 총장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0월 28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 홀에서 제259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장 후보자 자격을 기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 및 교직원 외에서 현직 총장도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선발 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총장후보자추천위 구성에 관한 내용도 논의됐다. 총추위는 조계종 추천 종단 대표위원 4명, 교원 대표위원 12명, 직원 대표위원 4명, 이사장 추천 사회인사 대표위원 3명, 총동창회 추천 동문 위원 2명, 학부생 대표위원 1명, 대학원생 대표위원 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총추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국대는 11월 첫째주 중으로 각 단과대학과 교원 등에 총추위 구성에 대한 공문을 보내 총추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11월 말 경 총장 후보자 초빙공고를 내고 11월 말부터 이틀간 후보자 지원을 받아 12월 초 후보자 소견 발표 및 후보 선출, 이사회에서의 최종 선출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열린비구니모임》 지지 성명서

지금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은 제10대 전국비구니회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에 분노하며 전국비구니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기구로서 비구니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향상보다는 마치 전국비구니회가 개인의 출세를 위한 정치의 온상처럼 역이용하며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이번 비구니운영위원회가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역력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아! 전국비구니회가 정치의 온상으로 타락하였는가! 부끄럽고 부끄럽도다.

우리 선객들은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출가 수행자가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배우고 닮아가면서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전국비구니회는 대중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제10대 전국비구니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은 이번 일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전국비구니회가 수행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수좌들은 주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을 걱정하여 뜻을 함께하고 있는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이번 사퇴를 유발시킨 장본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하나, 제16대 비구니종회의원은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종회의원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불기 2558년(2014)년 10월 28일

【열린비구니모임의 성명을 지지하는 수좌모임】

경진 능륜 능행 대월 대운 대훈 도강 도견 덕일 도현 동근 동언 동완 동우 동일 명주 명지 무상 목윤 무염 무위 민욱 법승 법장 법준 법진 법해 보문 보민 보석 보안 보운1 보운2 상우 서진 석준 선운 선하 선혜1 선혜2 선현 성민 성원 성정 수진 승본 시현 심우 연정 영운 우원 운봉 운성 운정 육문 원관 원성 원정 원해 원혜1 원혜2 은일 인성 일미 일봉 일윤 일현 일호 일홍 자해 정묵1 정묵2 정수 정우 정혜 자민 자선 자현 자형 지광 지민 지명 지백 지원 지윤 지행 지환 진벽 진선 진우 철안 하송 혁담 현담 현광 현진 현정 현주 현진 혜림 혜묵 혜원 혜진 혜호 화남 효일 효정 희상

“조계종 총본산 성역불사 초석 놓을 것”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 1주년… 사업기조 발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 집행부가 남은 시간 동안 서울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자승 스님 임기 중 기공식 등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8일 34대 집행부 출범 1년을 맞아 직원 조례를 열고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종무 일정상 불참한 자승 스님 대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가장 먼저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정만 스님은 “총본산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제34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면서 “10년 이상 진행될 대형 불사이다. 적어도 임기 동안 첫 삽을 떠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자승 스님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10 · 27법난 교육기념관 건립 사업을 통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예산 문제 등이 있지만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불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오는 11월 17일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성역화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종단 사부대중의 의지를 결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제도와 교구본사로의 종무 행정 이양 등도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만 스님은 “승려복지 제도 정착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종법을 개정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최소한 삶의 부담을 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려복지 · 교구중심제 역점 추진
신심 · 공심 · 원력 종무행정 당부

이어 “종무행정의 교구본사 이양은 34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라면서 “아직 관련 종법 개정 등의 과제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구본사 역할 확대를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뤄졌다. 정만 스님은 “34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들이 원만히 회향하기 위해서는 일선 종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항상 강조한대로 신심과 공심, 원력을 통한 종무행정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8일 제34대 집행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직원 조례를 개최했다.

정만 스님이 밝혔듯이 향후 조계종은 총본산 성역화 · 승려복지 · 교구본사 종무행정 이양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구본사 종무행정 이양 사업의 경우 지난 5월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됐다.

승려복지는 사실상 전면 수정됐다. 자승 스님은 올해 3월 승려복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수행연금을 폐지하고 국가 의료보험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토지 매입, 정부 예산 지원 등 굵직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 34대 집행부가 첫 삽을 뜨겠다고 밝힌 것은 사업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총무원이 11월 17일 총본산성역화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조례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국장 스님, 재가 종무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北 어린이 위해 추수했어요

민추본 26일 도리사서 통일쌀 수확… 도담도담 후원

10월 26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 이하 민추본)와 구미 도리사(주지 묘장)가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후원을 위한 통일쌀 추수 행사를 진행했다.

‘통일쌀 경작사업’은 사찰 소유의 땅에서 지역 농민 등과 함께 수확한 쌀을 북녘 동포에게 전달하는 사업. 지난 5월 도리사와 부산 마하사(주지 진효)에서 모내기한 통일쌀을 이제 수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태기에 민추본은 통일쌀을 판매해 수익금 일부를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후원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추수는 구미 해평면사무소 직원들과 숭산로타리클럽 회원, 새터민 새마을회, 도리사 신도회 30여명이 동참해 진행됐다.

묘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월 모내기로 시작한 통일쌀 경작사업이 이렇게 추수행사로 회향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다”며 “도리사 통일쌀 후원기금으로 마련된 의약품이 북녘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평면 면사무소 양희규 면장 또한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민추본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민추본은 10월 26일 구미 도리사에서 통일쌀 추수행사를 열었다.

“10.27법난 기념관 설립, 아픈 과거사 정리 사업”

10.27법난위, 조선비즈 인터넷판 ‘특혜 시비’ 보도에 즉각 반박
“조계사 일대는 법난의 상징 종단 귀속 자본 증식 아니다”
34주년 간담회 · 법회도 열려


지난 10월 27일 열린 10.27법난 기념법회에서 명예회복 사업공헌자 중 한명인 원행 스님이 공로패를 받고있다.

조선일보 경제전문매체인 조선비즈가 10월 29일 인터넷을 통해 10.27법난기념관 계획을 보도하면서 “조계종이 국민 세금으로 종로에 금싸라기 땅을 산다”고 지적한 데 대해 불교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반박 입장문을 게시하고 법난기념관 건립은 “특별법에 근거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념관 부지소유권에 대해서는 “조계종단 소유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민간 자본증식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조계사 일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0.27법난 당시 신군부의 군작전명이 조계사가 종로구 견지동 45번지에 위치한데서 착안한 ‘작계 45’였다”며 “(조계사 일대는 10 · 27법난의 상징적 공간이자 한국 불교의 중심적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27법난 피해자인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도 해당 매체에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문건을 10월 30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비즈는 “사업비 1687억원 중 770억원이 기념관 부지 매입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국가가 세금으로 조계사의 땅을 사주는 셈”이라고 특정 종교 혜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조선비즈는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 민간에 토지를 매입해 준 전례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말을 인용,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종교단체의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납될 수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34년 전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10.27 법난 피해자 간담회와 기념법회도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은 당시 상황을 전하며 “법난 당시 월정사 재무국장 소임을 맡았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수사관으로부터 개인 돈은 얼마나 모았냐부터 수행자로서 참기 힘든 심한 모욕과 고문을 겪어야 했다”며 당시를 증언했다. 이어 “아직도 겨울만 되면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진상 규명도 못하고 있다”며 “박제된 역사가 아닌 숨쉬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종단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10 · 27법난 명예회복 공헌자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진관 스님(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과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이근우(청담학원 문화센터 평생교육원장) 씨가 각각 선정돼 공로패를 수상했다. **배현진 기자**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사업 자리매김 발원”

행복바라미 10월 25~26일 경찰교육원서 워크숍

불교계 사회공헌프로그램인 행복바라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열렸다.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0월 25~26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2014 행복바라미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그동안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동참한 단체와 기관, 봉사자를 비롯해 포교사단, 각 교구신도회 관계자 및 중앙임원 등이 참석해 행복바라미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워크샵 첫 날인 25일에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활동 모습을 담은 행복바라미의 영상물 상영 등이 있었다.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행복바라미가 앞으로 더욱 인지도를 쌓아 불교계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찰과 지역에서도 앞장서 돕겠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네팔 카트만두 인근 카카니 지역으로 봉사를 떠나는 행복바라미 네팔 봉사단의 발대식도 이어졌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의료진과 모금에 참여했던 포교사단, 신도단체, 동국대학교 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해외봉사를 통해 행복바라미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오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워크샵은 전국 범위에서 펼쳐온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행복바라미 워크샵에는 행복바라미에 동참했던 중앙신도회 회장단 및 임원, 교구신도회를 비롯해 신도단체, 포교사단, 동국대 봉사단, 지역 복지관 관계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일 주 문



옥관문화훈장 수훈

前 수덕사 주지 응산 스님은 10월 29일 정부가 수여하는 '2014 문화훈장 수훈식' 에서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불교자비나눔대축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11월 13~14일 국립중앙극장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한다.



2014 창룡문학상 수상

희곡작가 장창호 씨는 11월 1일 뮤지컬 극본집 〈장창호 삼국유사〉로 제9회 창룡문학상을 수상했다.

〈인사〉 태고종 총무부장에 대각 스님 한국불교신문사장에 법담 스님 임명



대각 스님



법담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10월 31일 총무부장에 대각 스님(서울 원각사 주지)을, 한국불교신문사 사장에 법담 스님(제주 백련사 주지)를 각각 임명했다.

대각 스님은 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5년 사미계를, 2002년 백우 스님을 법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종무위원과 종책기획위원회 실장, 기획부장, 보우승가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중일교육문화교류협회 이사장과 혜화경찰서 경승실장 등을 맡고 있다.

법담 스님은 1981년 사미계를, 2001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제주 태고복지재단 이사장, 제주경찰청 경승, 제주교도소 종교위원, 총무원 교무부장, 제주불교대학 학장, 제 12대 중앙종회의원, 제 10대 제주교구종무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 13대 중앙종회의원이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수상자 선정



김수연



윤영호



배경아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진행하는 제11회 불교소장학자지원사업에서 박사논문 지원 부문 수상자로 김수연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연구원과 윤영호 한국종교평화연구원장이, 번역 부문은 배경아 인도고전철학연구회 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김수연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 '고려시대 밀교사 연구' 는 고려시대 밀교를 역사학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다. 윤영호 원장의 '설일체유부의 극미설 연구' 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충실히 반영해 가며 설일체유부 극미론의 전모를 복원했다.

노덕현 기자

"삶의 질 바꾸는 불교의학 정립"

동국대서 불교의료법 연구 나선 정인원 불교의학연구소 초대소장



MBSR·이완요법의 한국적 개발 불교경전 내 의학이론 탐구 심성프로그램 이론 근거 제시

"몸과 마음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명상과 참선의 의생명공학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월 24일 개소한 불교의학연구소의 초대 소장 정인원 동국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불교의학연구소는 불교의학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실용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다양한 전법 활동의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불교의학연구소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규명하지 못한 다양한 병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한다. 고혈압, 스트레스 증후군, 만성질환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불교적 치유방법 모색과 함께 노령화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에 대한 대책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는다.

정 교수는 "불교는 종교이긴 하지만 삶의 철학이자 생활방식이기도 하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이런 철학, 생활방식을 들여다보면 해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삶을 하나 하나를 긍정적으로 바꿈으로 인해 크게는 생로병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의학연구소의 연구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불교경전에 있는 의학적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학문으로 정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기존의 여러 의학이론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죽음, 삶, 고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의학이론"이라며 "이는 불교교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과제에는 명상, 템플스테이 등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경험적 효과를 내고, 이를 이론화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런 이론화 작업을 통해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불교의 다양한 심성프로그램에도 객관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의료원의 불교의학연구소 개소는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일대에 들어선 바이오메디캠퍼스의 한의대와 약대, 자연대학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 교수는 "향후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응용분야로도 연구분야를 넓힐 것"이라며 "불교계 산후조리원에 사용가능한 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명상원을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영역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이런 이론,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불교계 의료복지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길게는 불교의료복지재단을 꾸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이어 열린 기념세미나에서는 정인원 불교의학연구소장의 '불교의학: 현대의학과 불교의 해후', 장현갑 영남대 교수의 '명상수행에 따른 마음과 뇌의 변화', 정성훈 을지대 의대 교수의 '시대적으로 바라본 마음과 몸의 수사학'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근대불교 연구의 자양분 되길"

2014불교평론 학술상 수상자 김광식 교수



〈불교평론〉이 한해 동안 출간된 불교저서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4 불교평론 학술상' 에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도서출판 선인)이 선정됐다.

김광식 교수는 "1993년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천도교, 기독교, 천주교의 연구 성과는 풍부함에 비해 불교의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근대불교의 연구에 나서게 됐다"며 "1993년, 임혜봉의 〈친일불교론〉에서 불교의 친일을 알게 됐지만 친일의 반대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항일불교, 민족불교를 조명하겠다는 연구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후 불교 근대화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정립하게 됐다"며 "'불교근대화' 는 근대불교를 설명하는 관점이면서 동시에 근대불교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교근대화의 이상과 현실〉에게 학술상 수상이 주어짐을 보며 추후에도 근현대불교 연구의 개척이라는 화두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18일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화암사, 미륵대불 점안법회 및 음악회



고성 화암사(주지 웅산)는 10월 25일 남북평화 통일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미륵대불 점안법회와 금강산 풍악제를 봉행했다.

화암사 미륵대불 점안법회는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과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 등 스님들과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 윤승근 고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등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미륵부처님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중생의 희망"이라며 "수행과 참회를 통해 구경열반을 성취해야 겠다는 서원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한편, 화암사 미륵대불은 높이 15미터로 조성됐으며 후불 미륵전에는 폭 45미터, 높이 7미터 규모의 1080분의 미륵불이 부조로 조각돼 봉안됐다. 점안법회에 이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주민을 위한 화합 한마당 잔치와 금강산 풍악제가 열렸다.

김주일 기자

월드머시코리아에 5천만원 기부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0월 26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월드머시코리아에 베트남 푸엔성 화미동초등학교 교사신축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봉은사 신도회에서 1220주년 개산대재 기간에 진행한 '제4회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 를 통해 모은 행복나눔 기금이다.

노덕현 기자

경찰청 신임 경승단 위촉



경찰청(청장 강신명)는 10월 30일 경찰청 내 제2회의실에서 경찰청 경승 위촉식을 가졌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경승실장으로, 옥천암 주지 정경 스님이 경승으로 위촉됐다.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과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은 재임 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경찰전법단 사무국장 정범 스님, 전담경승 진상 스님, 조계사 원주 덕엄 스님과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허영범 보안국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고운사, 아동청소년문화예술제



의성 고운사는 10월 25일 경내에서 제7회 천년솔향 아동청소년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제는 백일장 사생대회 음악경연 등 3개 분야에 걸쳐 개최됐다. 입상자에게는 경북도교육감상 등 부문별로 18개의 상이 수여됐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마다 사찰문화예술제를 열고 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지역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 (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진 왼쪽부터〉 1996 창립 1주년 기념식, 2005 운문사스님 장기기증희망등록, 2007 육군 훈련소 장병 장기기증희망등록, 2013 만해 대상 수상, 2013 생명나눔 인사동 캠페인

4만여 약사여래 뭇 생명 평화 발원

생명나눔실천본부 20년 발자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로 설립 20년을 맞았다. 불교 자비사상에 바탕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해온 전법의 길이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동안 장기기증희망등록 4만여 명, 조혈모세포희망등록 3만여 명을 모집하고 7백여 명의 환자들에게 약 27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해왔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출범하면서 일궈낸 교계내외 변화를 짚어본다.

생명나눔운동 불교계 뿌리내려

1994년 3월 27일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전신인 생명공양실천회가 서울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불교계에 생명나눔운동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처음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창립 전부터 서암 조계종 종정 예하를 비롯, 360여 명의 스님과 불자가 장기기증 동참의사를 밝혔을 만큼 불교계에서 장기기증운동은 이미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창립된 것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충족시키고 불교자비사상을 실천으로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생명공양실천회는 우선 헌혈사업과 장기기증운동 홍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1994년 5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 도선사, 용주사, 수덕사, 금산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대대적으로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듬해인 5월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헌혈캠페인을 따로 시행해 475장의 헌혈증서를 대구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 사회적 위상도 높여

1995년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단체 이름을 생명나눔실천회로 바꾸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1996년에는 이웃종교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펼치며 골수기증운동본부도 창립했다. 이는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골수기증운동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또한 1998년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연간 혈액 수입액을 줄이기 위한 헌혈캠페인을 100일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나라 연간 혈액 수입액은 약 480억원에 달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자'를 모토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찰이 아닌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7명에게 각 3백장씩, 총 2천1백장의 헌혈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 장례문화 선도

1999년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생명나눔실천회는 새로운 연중 캠페인을 구상하게 된다.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사회 풍토상 매장이 아닌 화장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치부되던 시기였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서울, 인천, 울산, 김천, 충남, 광주 등 전국 사찰을 다니며 불자들에게 화장문화 홍보에 주력했다.

1999년 4월에는 행자 교육을 마친 예비 수행자 239명이 화장 서약에 동참했고 외국인 스님 41명, 태고종 행자교육원에서도 121명이 동참하는 등 스님들 참여가 줄을 이었다.

스님들이 솔선수범하자 불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전국불청대회에서는 불자 224명이 화장유언 서약에 참가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화장 서약에 동참한 이들은 6천2백명에 달했다.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수도 250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2001년에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나서 주요 선진국의 장묘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하고 장례문화인식 개선사업 일환으로 생명의 숲 조성사업을 실시, 서울 구로구 고척2동 부지를 할애받아 '나의 나무 가꾸기'를 진행했다.

캠페인은 화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깨트리며 장례문화를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1994년 창립… 헌혈운동·장기기증 주력
생명존중 알리고 장례문화 개선
'불교 사회화' 모범사례 꼽혀
원로스님 및 박원순 시장 등 기증 서약

출가 지도자들의 실천 이끌어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이끌었던 이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스님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간방생 불사인 생명공양은 이웃과 삶을 나누는 자비행이자 불교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구체적 실천수행"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전국 단위로 진행된 캠페인도 마다않고 현장을 찾아가 "육신은 허망하며 버리고 가는 것이니 집착할 것이 없다"고 불자들을 향해 진정한 보살행을 권고했다.

2011년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은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한 나눔을 강조하며 장기기증 서약에 먼저 동참했다. 2010년 전국선원수좌회에서 펴낸 선원청규에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지만 스님들 사이에 장기기증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이다.

또한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동국대 석림회 스님과 동국대 교직원 및 학생 1백여명에게 장기기증을 권해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타 스님은 "금생에 여러 상을 받아봤지만 이 훈장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영광"이라고 말했다.

격려하고 나누고…생명존중 사상 고취

2000년에는 전국민 1인 1장기기증운동을 실시, 캠페인 범위를 스님과 불자에서 국민으로 넓혔다. 홍보대사가 위촉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가수 김흥국씨가 첫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탤런트 전광렬,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연이어 홍보대사로 나섰다. 장동건씨는 이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팬들에게 이를 수시로 알리고 책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면서 생명나눔활동을 사회에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다. 전국 축제 현장은 물론 지하철역, 군부대, 대학, 고등학교, 길거리 등에서 캠페인을 추진했다. 지금도 한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의 80%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다.

한다솜 희망음악회와 희망걷기대회 역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국가 복지의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며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통계로 보는 생명나눔

1994년 8월 3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설립 이후 첫 장기기증 사례 등록. 고(故) 김치언 씨가 시신과 안구기증을 한 이후 장기기증 운동이 급물살을 탔다. 본부 설립 1년 만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이들이 1천3백여명에 달했다.

9907km 재미교포 불자인 정옥련씨가 1995년 3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대한민국 서울까지 9907km를 날아와 신장을 기증했다.

23세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최순미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6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을 당시 나이. 장기기증은 독실한 불자였던 최 씨의 뜻에 따라 가족들이 동의하면서 이루어졌다.

1억원 1995년 신장이식 판정을 받은 고순원 씨는 신장 기증자를 찾지 못하다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고 2010년 신장 이식술을 받게 됐다. 건강을 회복하자 10년 넘게 저축한 1억원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했다.

43,170명 본부 설립 20년 누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

12 100명 이상에게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추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이들. 대한불교삼론종 스님들이 6명으로 가장 많고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동화사 미수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등 모두 12명이다.

"장기기증 문화 더 확산돼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생명나눔에 관심 가져준 이들과 후원자, 기증자분들의 공덕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역시 20년을 맞게 됐습니다. 한분 한분이 다 소중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2005년 생명나눔실천본부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일면 스님〈사진〉. 스님은 "생명나눔운동은 초대이사장 법장 스님이 일구어 놓은 토대 위에서 발전해가고 있다"며 "법장 스님의 원력을 되새기며 항상 후원자 분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소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십 년 가까이 생명나눔운동을 해오면서 여러 인연들을 만났다. 그중 뇌사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가족들을 겨우 설득한 끝에 7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간 젊은 청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는 스님은 그를 위해 49재를 지내주기도 했다.

전국을 무대로 장기기증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다 보니 이제는 사찰 캠페인 활동을 나가면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모르는 불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식이 확대됐다. 정부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로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뇌사자 장기기증 비율 국민 10명당 1명 수준. 8명에 달하는 미국에 견준다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일면 스님은 "뇌사자 1명이 9명을 살릴 수 있다"며 "국민모두가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2000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장본인이다.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던 중 우연찮게 이식수술을 받게 됐다. 새 삶을 살게 된 스님은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매일 되새기며 살고 있다"며 "생명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 표

1994년 생명공양실천회 창립(초대 본부장 법장 스님)
1995년 대구 가스폭발사고 중경상자 헌혈 캠페인
장기기증자를 위한 제1회 천도재
생명나눔실천회로 개명, 사단법인 설립허가
1996년 백혈병 환자 성덕바우만 살리기 운동 전개
1997년 골수기증운동본부 단체장 대국민 성명서 발표
2002년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이사장)
보건복지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선정
2003년 생명나눔실천본부로 명칭 변경
소아암 환아 위한 모금음악회
2005년 4대 이사장 일면 스님 취임
2006년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창립
2008년 제1회 생명나눔걷기대회
2009년 제1회 한다솜희망음악회
2010년 안국역 장기기증 희망안내소 개소
2011년 자살예방센터 개원
KBS 특별 생방송 '생명을 나눕시다' 캠페인
2012년 KBS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2013년 제17회 만해 대상 수상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20주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창립 20주년 행사 안내

◆ 날 짜 :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 시 간 : PM 4:00 ~ PM 6:00
◆ 장 소 : 하림각 AW컨벤션센터
◆ 특별 후원 : 농협 053-01-271485
(예금주 : 생명나눔실천본부)

16시부터 BBS라디오 생방송이 진행되오니 반드시 20분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th
생명나눔실천본부 20주년
The 20th Anniversary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신행 소식

“대기업과 소통해 파트너십 형성해야”

날마다좋은날, 10월 28일 불교사회적경제 포럼 열어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포럼-불교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전략과 통하다’를 개최했다.

대기업의 사회적경제 지원 현황을 알아보고 이와 연계해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포럼이 열렸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10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4 불교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포럼-불교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공헌전략과 통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와 대기업 사회공헌팀의 협력으로 이뤄진 첫 행사다.

포럼에서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기업의 공유가치창출과 사회적경제 파트너쉽’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밖에 조미현 SK행복나눔단 팀장과 김성철 KDB 대우증권 부장, 최재호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차장이 각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 케이스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도현명 대표는 발표에서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지원자가 아닌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모는 비교가 안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철학 또는 아이디어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 대표는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성공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GE(제네럴일렉트릭)는 사회적기업인 엠브레이스 이노베이션과 손을 잡고 인도 영아사망률 해결을 위해 포켓 형태의 저렴한 인큐베이터를 공급해 인도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라민 그룹과 유럽 화학회사인 바스프는 아시아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모기 퇴치를 위해 유통망과 기술력을 합쳐 모기장을 공급했다.

도 대표는 “대기업은 연 3조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계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과 소통하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면 사회적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182년 만의 윤구월… 사찰은 공덕쌓기 중

전국 사찰 윤9월 맞아
예수재·삼사순례·가사불사


서울 조계사는 11월 14일까지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을 위한 생전예수재를 거행하고 있다.

올해는 ‘윤9월’이 낀 해다. 양력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29일간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조사로는 이번 윤9월이 1832년 이후 처음이다.

음력에서 한 달은 29일, 1년은 354일가량이다. 양력 기준 365일보다 약 11일이 모자란다.

달이 지구를 12번 돈 뒤에도 11일쯤 더 지나야 1년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달을 기준으로만 시간을 가늠할 경우 여름에 눈이 오고 겨울에 무더워지는 등 계절과 어긋나게 돼 농사에도 지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넣어 날짜를 조절하고 이를 ‘윤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윤달을 복과 공덕을 짓는 달이라 보고 있다. 윤달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기보다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시간으로 승화시켜 왔다. 윤달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비일상의 시간이기에 평소 부족했던 마음공부에 힘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나날이 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다.

윤달의 대표적인 불교의례는 생전예수재·삼사순례·가사불사가 있다. 이 불교의례는 기복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보다 큰 공덕을 실천하도록 한다.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전예수재’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소홀했던 자기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발원하는 의례이다. 사찰 3곳을 순례하며 죄업을 씻는 ‘삼사순례’는 세 곳의 절을 밟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보를 찾아가는 길이 곧 자신의 참마음을 찾아가는 자리이자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발원과 성찰의 순례다. 출가수행자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가사불사’는 삼보를 섬기며 불교를 꽃피워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공덕이 큰 보시의 하나다.

> **윤달은 ‘복과 공덕 짓는 달’**
> **덤으로 주어진 시간에**
> **부족했던 마음공부 힘써야**

이번 윤9월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윤달 불교의례를 실시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9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전예수재를 거행한다. 승려노후복지기금을 마련을 위한 행사로 8회에 걸쳐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 등 육바라밀 실천을 서원하는 법회와 차와 향, 꽃, 쌀, 과일, 등공양을 하는 육법공양고 갖는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은 9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 법회를 거행한 통도사는 6재(11월 9일)와 회향일(11월 16일)에 (전)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인 법산 스님과 전계사 혜남 스님의 법문을 연다. 또한 부처님 금란가사와 자장율사의 친착가사를 봉안하고 있는 통도사는 스님들에게 가사공양을 올리는 가사불사를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스님을 지정해 공양할 수도 있으며 대가사와 오조가사 등을 올릴 수 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생전예수재를 지낸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지운)는 11월 8일 회향법회를 연다. 법회는 서산 간월암에서 합동 수륙대재로 거행한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17일까지 가사불사를 진행하며, 스님들의 법계에 맞춰 가사를 올릴 수 있다. 또한 마곡사(주지 원경)은 11월 15일까지 생전예수재를 연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1월 16일까지 생전예수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펼친다. 9월 29일 입재법회를 시작한 국제선센터는 11월 9일(6재)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11월 16일(막재)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법문을 연다. 또한 6재때는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계산림을 거행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수불)는 11월 14일 산청 대원사, 마산 의림사, 창원 성주사로 삼사순례를 떠난다. 봉선사는 19일 강화 전등사·보문사·정수사로 순례를 간다. 부산 해운정사는 11월 15일 해운정사와 울진 불영사 경주 흥륜사를 도는 삼사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이밖에 삼천사(회주 성운)는 11월 10일 지장재일을 맞이해 생전예수재와 조상천도재 및 신도수계식을, 수효사는 11월 8일 생전예수재를 거행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제6회 나란다축제 수상자 발표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식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지난 9월 20일 실시한 제6회 나란다축제 중고등·군장병 부문과 사관생도 및 경찰대생 부문을 비롯해 외국인·일반부·단체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경찰대생 부문 사관생도부문의 대상은 손민정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차지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은 민경철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와 박인호 생도가 차지해 각각 80만원을 받는다.

군장병 부문에서는 박형민 상병(육군 제25사단 본부대)과 김선호 병장(육군 21사단)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100만원 씩을 받는다.

중등부문과 고등부문은 금정중학교 2학년 서진혁 학생과 지평선고등학교 손지원 3학년 학생이 각각 대상을 차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단체상 대상은 육군사관학교가 차지했으며, 백일장 및 사생대회부문에서는 동원정사 소속 권소담、유수빈 양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다. 외국인부문은 캄보디아 출신인 ‘Phork Phyrom’ 씨가 대상 수상자로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밖에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에서는 ‘SoulBeat’ 팀이 대상을 수상, 장학금 200만원을 받게된다.

한편 나란다축제 시상식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나은 기자

“일상속 보살행 실천이 空의 이해 도와”

글렌 멀린, 10월 30일 불교상담개발원 세미나서 발표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깨달음, 심리치료의 통찰’을 주제로 10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멀린 법사는 깨달음을 ‘깨어남’이라고 정의한 멀린 법사는 “무지, 집착, 증오에서 벗어나 지혜, 자유, 사랑의 깨어난 상태로 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혜 등의 선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멀린 법사는 깨달음을 이해하는데 인도의 용수(나가르주나)가 말한 세계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인 속제와 진제를 소개하며 “사물의 현상적 모습과 그것의 궁극적인 공(空)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둘의 균형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멀린 법사는 “이러한 공의 이해는 나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일상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실천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해는 그저 지적 이해일 뿐이며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9층탑. 사천왕 점안 대법회 및 사천왕 중창불사 권선

사천왕 건립 중창 불사 권선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신도제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천왕은 삼계(육계,색계,무색계)에 속해있는 욕계 6천 중 제1천인 사천왕에 거주하는 네분의 천왕을 말합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한 사천왕은 부처님 도량과 불제자들을 보호할 것을 서원하여 온갖 요망스럽고 삿된 것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파사현정의 호법천왕입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을 주관하는 지국천왕은 국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고 남방을 주관하는 증장천왕은 사람들의 성근을 증장시키는 천신으로서 용을 잡고 있으며 서쪽을 주관하는 광목천왕은 천안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옹호하는 신으로서 탑을 들고 있으며 북쪽의 다문천왕은 사람들의 복과 좋은 명성을 사방에 선양하고 격려하는 천왕으로서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을 옹호사는 사천왕을 건립 및 중창불사의 본 백봉사에서는 사천왕 조성 불사를 시작하였으니 부디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풍요를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밝혀 주는 보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시주하시는 분은 사천왕 뒤벽 현판에 가족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 단독으로 불사 및 시주하시는 분은 별도로 접수 받겠습니다.

9층탑 및 사천왕 점안식 봉행

■ 일 시 : **불기 2558년 11월 15일 (음, 9월 23일) 토요일 11시부터**

■ 장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 1길 24번지 백봉사. 극락사**

■ 불 사 : 사천왕불사 가족의 100만원. 1인의 10만원 / 9층석탑 1인 10만원
미륵부처님 가족의 100만원. / 관음 / 지장천불전 1인불 10만원

■ 전 화 : 1577-1016 / 054)571-6973. 054)571-1030.
054)571-7497. 054)572-1034

■ 계 좌 : 농협 745082-51-022938 (예금주 : 이종수)

(社)韓國佛教曹溪宗 協議會 이사장 이종수
(社)韓國佛教曹溪宗 총무원장 대봉
(社)韓國佛教曹溪宗 문경 백봉사.극락사 주지 대봉 합장

청소년 곁 '키다리 아저씨' 역할 27년

불교자비봉사단체 '카루나의 모임'

27년 동안 불우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온 이들이 있다. 경주지역 불교봉사단체인 카루나의 모임(회장 최해암)이 그 주인공이다. 카루나(KARUNA)란 자비(慈悲)의 비(悲)에 해당하는 범어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름처럼 단체는 1988년부터 꾸준히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을 챙기며 봉사행에 앞장서 왔다.

카루나의 모임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물품지원 등을 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만 회원들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매달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며 꾸준히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카루나의 모임이 다른 봉사단체들과 구분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십 년 이상 곁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이다. 자칫 가정형편을 비관해 방황하며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도록 인생선배로서 이끌어주기 위함이다.

현재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가정은 17세대. 매월 둘째주 일요일과 넷째주 목요일마다 아이들 집을 방문해 매달 20만원 정도의 학습보조비와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회원들은 빨래부터 청소, 반찬만들기, 크고 작은 집수리를 돕는다. 아이들과 함께 걸레질을 하고 라면도 끓여먹다 보면 자연스레 학교이야기를 하며 일상을 공유한다. 정이 들만큼 든 아이들에게는 아빠, 삼촌, 이모 등의 호칭도 어색하지 않다. 가족 중 누가 아픈지, 고민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졸업사진 속에는 회원들도 늘 함께다. 회원들에게 아이들과의 만남은 봉사가 아닌 인연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물론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시간이 걸려 신뢰를 쌓으면 아이들도 결국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것이 회원들 설명이다. '비판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낮고 정확한 음성으로 다정하게 상대에 임한다' 는 봉사 수칙을 매번 되새길 만큼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한몫한다.


카루나의 모임 회원들은 겨울이면 저소득 청소년 가정을 위해 연탄배달도 마다하지 않는다.

1988년 창립, 7백명 결식아동 후원
청소 · 빨래부터 고민상담까지
매월 만남 통해 유대관계 쌓아

기부 트렌드 되면서 후원자 감소

기부가 대중적 사회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자원봉사단체도 늘어난 것은 당연지사. 카루나의 모임 역시 한 때는 회원이 5천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6백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덕분에 기업, 단체 등에서 틈틈이 지원금을 챙겨준다. 얼마전 쌀 40포대를 전달해온 불국사도 빼놓을 수 없는 후원처다.

단체는 줄어드는 후원금에만 의존하기 어려워 일일찻집을 열기도 하고 지역 축제가 개최되면 체험부스를 진행해 알뜰살뜰 후원금을 적립해간다. 최근에도 찻집을 열어 3백5십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김종훈 사무국장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아 아쉽다"면서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찾아와 봉사활동을 거들 때나 월급을 쪼개 후원금을 보내줄때마다 한명 한명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카루나의 모임을 거쳐간 아이들은 약 7백여명에 달한다.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주고 보살펴준 데 대해 감사해하는 편지도 그만큼 쌓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는 걸 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너무 늦게 발견해버린 골육종 때문에 열 다섯 살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 회원들은 아이의 병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들의 부주의를 탓하며 손수 장사를 치르기도 했다.

온기 나누며 슬픔은 반으로

1988년 경주 삼불사로 소풍온 초등학생 때문에 만들어진 카루나의 모임. 삼불사 주지 종수 스님이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 가운데 소나무에 기댄 채 발로 땅만 차고 있던 아이를 본 것이 계기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스님은 결식 어린이 돕기 및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 모임을 발족하고 회원 모집에 나섰다. 아이가 겪었을 소외감, 외로움을 덜어내고자 시작됐던 카루나의 모임은 아이들 손에 돈 대신 온기를 선물해왔다.

청소년을 위한 봉사가 재능기부 등 문화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관련 봉사단체도 많아졌지만 카루나의 모임은 처음 방식 그대로 우직하게 아이들 곁에서 수 십년 동안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12번째 학교 완공

10월 29일 켕카이 금화초등학교… 금화사 1억5천만원 후원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라오스에 12번째 교육시설을 건립했다.

지구촌공생회는 10월 29일 라오스 싸이타니구 켕카이 마을에서 켕카이 금화초등학교 준공식을 가졌다. 학교건립에는 대전 금화사(주지 일초)가 1억5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8월 말 건평 392㎡(130평) 규모로 학교가 완공됐으며 현재 교실 7칸(유치부, 초교 5개 학년, 교무실)과 화장실 4칸을 구비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한다. 켕카이 금화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라오스 발전의 큰 동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여한 금화사측에서는 아이들 교복과 가방, 교사 유니폼, 사무용품과 상비약 등 5백여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했다.



지난 10월 27일 캄보디아 켕카이 금화초등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앞서 지난 10월 27일에는 캄보디아에서 뜨라빼양뜨라우 금산사초등학교 증축 준공식도 진행됐다.

학교는 2011년 건립됐지만 학생수가 늘어나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새롭게 4칸의 교실을 마련하게 된 금산사초등학교는 11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된다. **배현진 기자**

NGO · 복지단체 연간 사업 공모

최대 1천만원 지원…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 참조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서는 '2015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을 실시한다.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사회 속에서 행복한 자립과 자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단체의 연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1년 이후 5회째 진행되고 있다.

공모사업 지원 기금은 총 1억원이며, 기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NGO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모집분야는 △저소득가정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 △탈북자 지원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환경 지원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분야로 총 4개 영역으로 나눠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며 최종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된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사업안내는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 (www.thenan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현진 기자**

송파노인센터, 휠체어 기금 마련 나눔행사

이웃과 함께 걷는 '송파소리길'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10월 25일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산책을 위한 휠체어 마련 걷기 행사 '그래 걷자! 송파소리길'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거동불편 어르신 3백5십여명이 송파소리길을 함께 산보하며 지역 사회에 돌봄의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행사로 기획된 이번 걷기대회는 행사 참여권 판매를 통해 휠체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장비마련을 병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송파노인요양센터 뒤편 송파소리길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송파파인타운 6단지를 돌아오는 약 5km 코스를 걸었다. 행사 후에는 한양여대 치어리더 및 송파복지센터 시니어합창반 공연과 경품추첨이 진행됐다.


송파노인요양센터 운영지원사찰인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손지영 송파노인요양센터 원장은 "아이들부터 건강한 노인, 아프고 힘든 노인들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노인요양센터는 2009년 개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요양서비스와 지역구성원이 서로 소통 · 공감하는 지역복지사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연금도 가입하고 재단에 기부도

조계종복지재단 후원상품 출시

연금보험 가입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지난 10월 28일 IBK연금보험주식회사와 'IBK연금보험 행복나눔 제휴협약식' 을 진행했다.

IBK연금보험은 IBK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국내 최초 연금전문보험사다.

11월 3일부터 판매하는 'IBK행복나눔연금보험' 은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기부를 원하는 사회복지단체를 지정하면 납입된 보험료의 0.5%가 적립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1년 단위로 기부되며 가입 후 5년간 지속된다. 고객들은 기부처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0월 28일 IBK연금보험주식회사와 진행한 협약식.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IBK행복나눔연금보험은 판매자에게 사회공헌에 동참한다는 긍지를 심어주고 가입자도 기부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주므로 서로에게 좋은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이번 협약이 국내외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많은 단체와 불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레인보우 새 합창단원 모집

12월 5일까지…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에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한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내에 위치한 레인보우합창단 연습실에서 레인보우합창단의 공개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디션 참가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8~13세 다문화가정 어린이로 합격자에게는 향후 레인보우합창단 활동자격이 주어진다. 오디션 결과에 따라 대상, 은상, 장려상, 입선에 해당하는 상금도 부여된다.

참가곡은 지정곡 1곡(노래명:뭉게구름)과 자유곡 1곡으로 총 2곡이다.

심사기준은 음감, 음정, 박자, 표정, 안무 및 퍼포먼스 등 5개로 나눠 각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며 총 12명 모집예정이다.

레인보우합창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현재 12개국 35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활동 중이다.

최근까지 G20 정상회의, 박근혜대통령 취임식, 여수엑스포, 인천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행사마다 초청돼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참가 신청 기한은 12월 5일까지며 홈페이지(www.cmck.kr)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02)737-0467

배현진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 2014년 추계 학술대회

모시는 글

삼보에 정례하옵니다.

부처님가르침의 법맥을 이은 나란타 대승불교의 보고인 티벳대장경을 최초로 한글 번역하는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와 전 국민들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초사업으로 역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금의 사례에서 찾고자 국제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더 나은 성공을 위한 작업입니다. 사부대중께서 깊은 관심으로 왕림하여서 관심과 지혜로운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불사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여야 가능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서툰 아이의 종종걸음을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장 진옥 합장

■ 주제 : 세계 각국의 대장경 역경
■ 일정 : 11월 28일(금) ~ 29일(토)
■ 주최 : 티벳대장경역경원
■ 장소 : 11/28일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대강당
11/29일 백주년기념관 501호

11월 28, 29일 주요일정

■ 제1부 티벳대장경역경원 현판식 ■ 제2부 학술대회

11월 28일 일정

PM 1:00
· 개 회 – 사회 안성두(서울대 철학과 교수)
· 환영인사 –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장 진옥 스님
· 축 사 –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계영 총장
· 기조연설 – Geshe Ngawang Samten (티벳학 중앙대학교 총장) 정우 스님(불교경전번역연구원 원장)

주제 1 : 신국역대장경의 제 문제
· 사회 : 최종남(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
· 발표 : 小川一乘(前大谷大學학장, 西照寺주지)
· 통역 : 배경아(티벳대장경역경원 객원연구원)

주제 2 : 해외에서의 티벳대장경 역경 사례
· 사회 : 차상엽(금강대 HK교수)
· 발표 : Penpa Dorjee (티벳학 중앙대학교 교수)
· 통역 : 이건준 (인도 델리대학교 불교학과 객원교수)
· 발표 : Julia C. Stenzel(84000 프로젝트 역경사, 샤까빤띠트 번역팀 매니저)
· 통역 : 한대성

PM 7:00
· 저녁 만찬 및 문화 공연
· 카락 뺀빠 체링(평화를 노래하는 티벳 가수)와 아리솔(국악그룹) 공연

11월 29일 일정

AM 10:00
· 사회 : 김현구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주제 3 : 스리랑카에서의 삼장 보존과 현대화 과정
· 발표 : ven. 담마찌띠

주제 4 : 한국에서의 고려대장경 번역
· 발표 : 박종린(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회향

티벳대장경역경원

'빛나는 지도자'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가 열립니다.

불기 2558년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는 빛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부처님 법향을 함께 나누는 빛나는 법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재미와 유익함이 함께하는 강습회!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법구경"을 재미있고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1년간의 계획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과 체험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 법구경을 가슴에 새겨 빛나는 지도자가 되자
■ 프로그램
○ 2015년 법회 프로젝트 (법구경 활용 법회 계획 및 지도자 네트워크) : 교육연구위원회
○ 놀면서 배우자!! (팀워크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 전남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전문위원)
○ 캘리로 전하는 法좁 (캘리와 석고 방향제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 이수진(신나는세상 공예전문강사)
○ 노래로 배우는 부처님 법 (찬불가를 활용한 법회 지도법) : 민선희 (봉은사*선불남성합창단 지휘자)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1월 15일 (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 소 : 국제선센터 지하 1층 교육문화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67)
■ 대 상 : 각 사찰 계층법회 지도자, 포교사,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등 100명(선착순 접수)
■ 참 가 비 : 4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5만원)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신청방법 : 다음카페 (http://cafe.daum.burec) 참가신청서 인터넷 접수, 팩스접수 후 참가비 입금
E-mail(burec@hanmail.net), Fax(02-738-7863)
■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신청기한 : **11월 12일 (수) 오후 6시까지**
■ 문 의 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재가불자 결집해 ‘대자각운동’ 펼치자”

동국대 불교경영자 최고위 과정 특강 ‘현대 재가불교와 법사의 길’

선진규 원장(봉화산 정토원)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선진규 원장은 재가자를 외면한 스님 중심의 불교가 문제라고 강조한다. 부처님 당시에도 훌륭한 재가자들이 불제자가 되어 전법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사찰 내 재가자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 원장은 재가불자들도 불교의 중심에 서서 불교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재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선진규 원장은 … 1934년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창원대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회장단 의장, 대한불교청년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상임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봉화산 정토원 개설, 88올림픽 10만 유등 기획홍보실장, 경상남도 도의원,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조계종 포교대상, 청소년 지도자 표창(문화관광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20세기 인류사에서 제일 큰 변혁은 동양의 불교가 서구로 유입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를 지배한 기독교 정신문화는 인간을 유일신에 속박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를 맞이하니 평등의 불성적 존재 앞에 모두가 스스로 동등함을 알게되고 절대적 인간성의 발견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벨기에의 프랑수아 앙글레르와 영국의 피터 힉스는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의 존재를 처음 예견했습니다. 힉스입자 연구와 막 이론은 불교이론에 접근한다며 최첨단 과학자들에 의해 불교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서의 학자들이 ‘불교이론을 거론해야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할만큼 불교는 서양 학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렇다면 한국불교는 지금 어떠합니까? 한 외국인 스님께서 우리나라 큰 절에서 몇 년간 수행을 한 후 감상문을 썼는데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동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불교행사에 가보면 40대 이하의 젊은 신도가 안보입니다. 모든 관리 운영 면에서 생산적 불교가 아닌 소비성 불교, 관광에 의지하는 관광불교. 행운과 명복을 비는 기복불교, 모든 불사가 스님 중심의 스님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20~30년 안에 불교는 존립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고 말한 스님도 이런 이유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의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 개신교 101명(41%), 카톨릭58명(23.6%)인데 불교는 불교 34명(13.8%)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서 불교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보문고 등 대형문고에서 불교서적은 기독교 서적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장자의 아들들,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던 가섭3형제, 빔비사리왕 등의 귀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불교에 귀의해 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 당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지도층에서 불자가 나오고 그들이 대중들을 포교해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재양성이라 생각합니다. 종교가 시대흐름에 호흡을 같이 하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가와 재가 함께하는 불교 절실

불교는 스님 중심의 수행불교와 신도 중심의 생활불교로 엄격히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자와 재가불자의 역할과 활동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출가자만이 존재하고 신도들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한국불교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 사찰의 신도 대부분은 자율성이 없는 조직으로 사찰운영에 필요한 존재들로만 남아있습니다. 극단적 표현을 쓴다면 일회용 소모품이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찰에서 소임을 맡은 재가자가 일을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라고 하면 그날로 그 절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출가자라야 사찰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출가자가 되어야 진리를 깨칠 수 있으며, 출가자라야 불교를 운영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재가불자가 혼신을 다해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활동하다가도 이러한 환경 속에 한계를 느끼고 할 수 없이 삭발하고 스님이 되어 버리는 사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열반에 드실 때 까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일반 신자들의 성향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재가신도 중 나라의 통치자를 위시하여 거부장자, 사회에 존경받는 최고 지성인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옹호하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하는 재가불자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교단은 날로 번성했고 대사회적으론 신뢰성을 갖춘 교단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나약한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재가불자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지도력을 가진 재가불자가 없는 원인은 불교 내부의 구조적 모순으로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재가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눈 바로 뜬 사람은 이

젊은 불자 없고 기복으로 전락
한국불교 영향력 점점 약해져
스님과 신도 함께해야 불교 발전
재가자 중심의 인재 양성 필요

곳에 오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독자적으로 피나는 노력 끝에 재가불교운동(일명 대중불교운동)이 각 곳에서 일어나 미약하지만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을 중심으로 불교학문을 개척한 학자는 지금까지 경전의 한글화와 학문적 해설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신행단체 결성, 불교교양대학 개설 등 전법활동을 하는 재가불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신심 하나로 포교에 온 생을 다 바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맙고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일입니다.

재가불자의 조직화 필요

재가불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교리를 강설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법사호칭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순 속인 신도가 무슨 법사인가 하고 혹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단을 위시해 대부분의 종단에서 포교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개별적으로 포교활동 장소를 만들어 활동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황무지에서 고행의 길인데 부정적인 관념과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법사는 인간의 무지를 물리쳐 지혜(自性)를 깨우치게 하는 대자각운동을 일으켜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이 땅의 법사는 불교가 민족사의 순환마다 작용했던 역사의식을 새삼 자각하고, 민족분단의 비극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기필코 통일될 수 있게 선도할 책임과 사명을 다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유마경〉의 유마힐(維摩詰)은 부처님의 제자로 중인도 바이리의 대자산가입니다. 그는 재가불자지만 대승불교의 교리에 정통하고 수행이 깊어 승려들이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유마거사가 병들어 있을 때 문수보살이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문병하러 와 불법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 매우 극적인 형식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병든 이유를 묻자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라고 답함으로써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행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재가자로 불교운동에 뛰어든지 꼭 60년이 됐습니다. 1954년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자 봉화산으로 들어와 호미든 관음상을 봉안하고 불교정신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1982년 포교사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마음먹고 240여 재가불자를 모아 포교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도선사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했는데 교육 이수자 중에 스님들한테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혼나기도 하면서 3박 4일의 교육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 법사 의복을 제정하고 포교사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초반기에는 포교사가 뭐냐 저 옷은 뭐냐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그 제도를 이어와 지금은 4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 49재를 끝내는 날 한 스님께서 저한테 “선 법사 이제 머리 깎지?”하셨습니다. 저는 “선 법사가 어찌 머리 깎고 안 깎고에 좌우됩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님과 신도를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안 하면 스님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불자라면 어디가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재가불자들이 결집해 새로운 불교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가불자들이 이 시대의 부르나 존자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알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통일운동 같은 사회 운동에 참여해 이 사회의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5천 명이든 1만명이든 인재를 모아야 합니다. 조직을 만들어 스님도 재가불자도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의석당 지선 대종사

명예종정 호림당 혜원 대종사

사서실장 법안

상임 부종정 법경 원로의장 정인 종회의장 법륜

부종정 월현 부종정 법정 부의장 정광

총무원장 법정 행정원장 정운 감사원장 혜관 호법원장 지산

포교원장 보덕 비구니원장 진언

총무부장 법원 재무부장 덕안 문화부장 해운 복지부장 일화



‘이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은다면 다시 어느생에 이몸을 제도할 수 있으리오’ 뜻을 같이하실 종도님들을 모집 합니다.

입종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증 신청서 사본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 명함판 사진 3매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팔달동)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

예수제 안내

예수제((豫修齊)란?

예수십왕생칠제를 줄여서 예수제 라고 합니다.

예수(豫修) "미리 닦는다"는 뜻이고 죽은사람을 천도하는 49제를 지내듯 산사람을 위한 생칠 49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고죽으며 윤회하는 이몸이 전생에 지은 업과 현세의 지은업을 미리 닦아 구경 열반의 세계로 가기위한 예수제를 11월 16일 봉행합니다.

성불사 주지 법성 합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성불사에서
예수제 동참 접수 받습니다.
전화 053-322-0567 / 010-6537-0567

▶ 예수제 안내 ◀

■ 일시 : 불기 2558(2014)년 11월 16일(일) 오전10시
(음. 윤, 9월 24일)

■ 장소 :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 성불사

문화재 관리

"과감한 민간 이양, NGO 적극 활용"

불교문화재연구소 10월 31일 '한국의 사지, 그 유구한 역사와 오늘'서

사지에 방치된 문화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야 할까?

10월 31일 불교문화재연구소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사지, 그 유구한 역사와 오늘'에서는 보존 대책의 새로운 방안이 제기됐다.

영국에선 민간에 과감한 권한 이양

리차드 모리스 英 허더즈필드대 교수는 문화재의 보존은 그 문화재가 가진 공익성을 국민들이 체감할 때 자발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리차드 교수는 영국에서 문화재가 가진 공익성을 강화하자 이익을 보는 시민들이 스스로 보존에 나섰음을 들었다. 영국은 15세기 이전 교회가 1만 1000개에 달하고, 옥외의 종교기념물이 2만개에 달하는 곳이다.

리차드 교수는 "문화재를 정부에서 가만히 보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위탁을 통해 보존과 활용을 병행해야 보존에도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리차드 교수는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또한 정부 차원의 보존기금이 있지만 부족하기에 각 교회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잉글리쉬 해리티지' '교회보존협회' '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단체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했다"고 제시했다.

리차드 교수가 예를 든 '잉글리시 헤리티지'는 영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으로 각종 기념물 입장료, 기부, 기념사업 등을 통해 전체 예산인 2억 파운드(약 3300억원) 중 절반을 직접 모금한다. 보존NGO인 '내셔널트러스트' 또한 연 9000만 파운드를 모금해 350개의 문화재 건물 등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특이점은 연간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문화재를 찾게 하는 등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英은 민간단체 활용해 보존재원 마련

정부 제도, 예산으로는 한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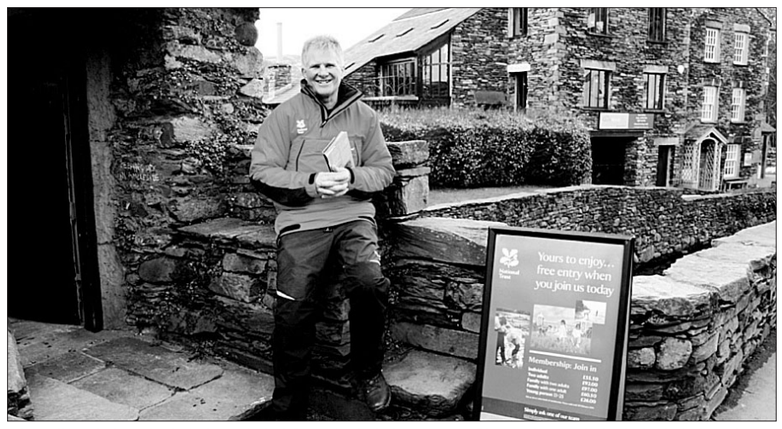
문화재지킴이·관리사찰 지정 등 필요

리차드 교수는 "최고의 보존은 사용을 통한 보존"이라며 "관리주체를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지와 사지문화재, 공공재 성격 강화해야

장용철 문화재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사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스토리텔링 개발, 힐링 테마 여행상품화, 문학예술 소재활용, 역사교육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한국에서는 사지와 사지문화재가 종교적 역할이 남아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며 "발굴 등의 조사 이후 종단 차원에서 주변사찰 중심의 관리사찰 지정 등이 필요하며 1폐사지 1지킴이 활동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앰블사이드의 상징인 브리지하우스의 내셔널트러스트 활동모습. 문화재 내에 내셔널트러스트 상점이 있으며 회원들이 지킴이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도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다양한 현대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다고 제시했다.

류 학예연구관은 "폐사지와 여기에 산재한 문화재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지 관리, 국가 차원의 제도마련

황권순 문화재청 창조행정담당관은 '폐사지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방안'에서 사지의 문화재를 크게 민간소유의 폐사지에 있는 문화재, 국가소유의 폐사지에 있는 문화재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황 담당관은 "폐사지의 가치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보존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법의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다 실질적인 조사와 발굴,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담당관은 "폐사지는 사적으로 지정해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에 폐사지 보존법을 제정해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로와 청년들에게 茶를 묻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21세기 전통차 진흥 위한 토론회

몸과 마음을 함께 맑게 한다는 차.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한국 전통의 차보다 커피가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세대에 전통차의 맛과 멋을 전하는 자리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성균관대와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21세기 전통차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토론회는 '전통차 문화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전통차의 대표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변영섭 前문화재청장을 비롯해 박권흠 한국차연합회장,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채원화 효당본가반야로차도문화원장 등 차인 25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청년, 차를 묻다'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전통차가 자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대학생 토론, 발표 및 시음 진행

박동선 등 茶계 원로 한자리에

이 자리는 젊은세대들이 차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듣고,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다례 교육에 대한 모색이 이뤄진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원로, 차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국차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미국 보스턴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정승연 다례원장 등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은 1935년 평남 순천에서 태어나 17세때 도미(渡美),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진행한 다계원로로 근대 한국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토론회에 이어서는 '모두 차를 논하다'를 주제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의 '전통 차 문화의 의미와 전망' △조희선 성균관대 교수의 '한국 다도 교육의 실제와 비전' △정서경 목포대 연구교수의 '지역 차 문화의 현상과 비전' 등의 차 관련 논문도 발표된다.

이어 세미나에 참여한 대중들이 함께 전통차를 마시며

박동춘 소장은 "70년대 차 운동 태동기에 차를 널리고자 차 운동의 선봉에 섰던 원로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지금 차를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든 토대"라며 "현대차 태동기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살펴보고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인 젊은이들에게 전통 차의 우수성과 활용법을 알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02)504-616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엄 · 법화 아우른 회통적 발전 필요"

관음종 창종 50주년 학술세미나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10월 27일 낙산 묘각사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불교문화의 전승과 실제를 주제'로 1부 '화엄과 법화의 회통' 2부 '불교와 현지문화의 회통'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발제로 나선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는 '〈법화경〉과 〈화엄경〉의 원융일체 사상' 기조발제에서 "두 경전은 붓다의 모든가르침을 융합하는 일불승 사상이란 점, 또 중생구제에 적극적이며 사회연동의 이타적인 불교운동이란 점, '바로 지금 현재'의 부처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노력에 의한 점 등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권 능인불교대학 교수는 '법화·화엄사상에 나타난 불신관의 특색'에서 "법화경은 구원 석가불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법신사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화엄경은 영원무한으 비로자나 법신불사상이 강조된다"며 차이점을 밝혔다.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법화수행에서 널리 행해지는 사경 변질과 함께 참의미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많은 법화사상가들은 사경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경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사경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하는 수행이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화엄대강백 경운선사와 법화행자 태허대법사'에서 "사승관계로 보면 태허 스님은 경운 스님의 화엄교학을 전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태허 스님은 철저한 법화수행자였다"며 "태허 스님의 문손들은 대승불교의 양대산맥인 두 사상을 회통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 한글 대장경' 등록문화재로

문화재청 10월 30일 문화재 등록 예고



용성 스님이 1922년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해설서인 〈신역대장경〉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와 한암 스님의 가사(袈裟) 2건을 문화재 등록 예고했다.

'백용성 역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는 용성 스님이 한문으로 된 금강경(金剛經)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해설서로, 익산 원광대 중앙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1922년에 최초로 제작된 초판본으로 용성 스님이 '삼장역회'를 조직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불교 경전의 대중화에 이바지한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와 함께 평창 월정사가 소장하고 있는 '한암스님 가사(袈裟)'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 크게 평가 받았다.

이번에 등록 예고한 2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친다. 노덕현 기자

약탈문화재 환수 위한 토론회 열린다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문화재 환수운동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위원장 주경)는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201호에서 '약탈문화재 환수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 환수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김경임 前튀지니 대사의 '부석사금동관음상 탐구와 문화재환수운동의 의미'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의 '왜구의 침탈과 부석사 불상과의 상관관계' △진성영 법학박사의 '부석사 불상 환수를 위한 법률적, 정책적 검토' △박정현 부석사 불상봉안위지도위원의 '국제사회의 문화재 환수와 국내활동' 등이 진행된다.

봉안위 측은 "201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앞두고 꼭 청산해야할 역사적 과제 중에 하나가 지난 날 약탈당한 문화재의 정상적인 '반환'"이라며 "그동안의 문화재 환수운동을 평가하고 나아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의 환수 방안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여는 자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바라밀 뜻새긴 '보시의 길' 제주에 open

사라봉 보림사에서 9km 구간, 11월 1일 개장

보시는 무엇을 바라고 남을 돕는 자만심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베푸는 '이타행' 의 핵심이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알리는 '보시의 길' 이 제주에 열렸다. 베풂과 나눔 등 불교의 정신을 자연 속에서 체험하며 무명(無明)의 번뇌(煩惱)를 씻어내라는 의미다.

제주도와 제주불교신문 · 제주도관광협회 · 제주관광공사는 11월 1일 세 번째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보시의 길' 개장식을 제주 사라봉 보림사에서 개최했다.

'보시의 길' 은 2012년 '지계의 길(관음정사~오라선원~월정사~관음사, 14km)', 2013년 '정진의 길(영실 존자암~남국선원~쌍계암 · 선덕사, 18km)' 에 이은 세 번째 불교성지길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대원정사를 시작으로 월영사~수정사지~장안사~해륜사(서자복)~보림사~원명선원~불탑사까지 총 45km에 이른다. 특히 제주시내 유서 깊은 사찰과 중산간, 해안가 등의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개장식에서는 관광치유상품 '절로 가는 길' 출시 성공기원법회도 함께 열렸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불교신문과 BTN 불교TV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절로 가는 길' 제주불교순례관광 상품을 개발했다.

이날 순례에는 '치유관광 상품' 의 일환으로 제주를 찾은 200여명의 관광객을 포함한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새로 개장한 보시의길을 걸었다.

대원정사부터 불탑사까지 45km

관광치유상품 '절로가는길' 도 출시



보시의 길 걷기 행사에서는 200여 관광객을 포함한 2000여 시민들이 참여했다. 2013년 정진의 길 행사 모습.

제주불교신문 대표이사 성효 스님은 "보시의 길은 자연풍광과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의 길, 유적들과 만날 수 있는 역사의 길,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시의 길 등 제주불교 성지순례길을 전 국민이 찾는 도보 순례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림사에서 삼양동 불탑사까지 9km 구간에서는 개장 기념 걷기 행사도 진행됐다. 개장 기념 걷기 행사에는 '힐링 멘토' 인 혜민 스님이 지도법사로 대중을 이끌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혜민 스님을 '제주불교 성지순례길 홍보대사' 로 위촉했다.

'보시의 길' 개장에 앞서 10월 31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혜민 스님과 함께 하는 마음치유콘서트도 열렸다. '행복을 위한 깨달음' 을 주제로 열린 이날 마음치유콘서트에는 400명과 사전 접수된 강연 희망자 500여 명 등 총 900명이 혜민 스님과 함께 지친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혜민 스님은 "제주도에 다양한 불교순례의 길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힘을 얻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 연화사, 정목스님 초청 힐링 강좌

학부모들을 위한 불교 힐링 강연이 펼쳐졌다.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는 10월 25일 대웅전에서 유나방송 진행자 정목스님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하는 부모교육 일환으로 '마음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 라는 주제로 불교계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정목 스님은 "미래의 부처가 될 아이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담아 이끌어주면 아이들이 커다란 불성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유치원아 학부모를 포함해 4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일감 스님 '내비둬 콘서트'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33 선지식 초청법회' 일환으로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과 오페라 가수 이한 씨를 초청해 내비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익산 정각사는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매월 33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한 씨는 성악가에서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굴곡 많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되돌아보고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고 가족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자신의 노래와 함께 소개했다.

일행 스님은 "33선지식 법회는 지역불교 활성화와 부처님 법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매월 음력 초하루에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오는 11월 22일 '붓다로 살자' 전법도량 선포식과 함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을 초청해 9번째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생명나눔 희망걷기 대회 개최

10월 26일 고교생 60명 참가… 옛길 청소하며 모금도 진행



생명을 나누기 위한 희망의 걷기가 광주에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0월 26일 '제6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무등산 옛 길 희망걷기대회' 를 무등산 둘래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에 무등산 청풍쉼터에서 원효사에 이르는 5.35km의 옛길 1구간을 청소를 하면서 환우가족을 돕는 행사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명신 스님(연화사), 보혜 스님(비전사), 인성 스님(관음암)을 비롯해 김진 여성후원회장 등 200여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걷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는 자신의 건강과 무등산의 자연환경을 함께 보호하고, 병마에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걷기대회다"라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불교종립 광주정광고등학교 학생 60여명과 참가해 옛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행사를 진행했으며, 북부소방서에서 안전을, 운전자불자회에서 교통안전을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1부 걷기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홍보대사회 활동 중인 양주호 선생이 사회로, 테너 김제선, 무용 김애경, 가수 주권기 등이 기능재부를 통해 공연을 벌였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경품추첨이 진행됐으며, 1년간 재능기부를 진행한 김애경, 설영기(영광사회복지시설 난원 대표) 센터장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 생명평화 실천단, 벼베기 체험

6월 직접 심은 벼 추수… 또래들과 생명의 소중함 함께 공유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벼 수확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3기 40여명의 학생들은 10월 25일에 전주시 삼천동 소재의 논에서 올 6월에 직접 심은 벼를 수확하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벼베기 체험은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6월에 직접 심은 벼가 자란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생명의 신비에 감탄했다. 또한 음식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많은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체험했다.

박경지 전북불교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미래의 기둥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평화 정신을 함양하고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벼베기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쌀 한 톨 한 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힘들고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우리가 먹는 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 있는지 이제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은 생명 · 평화의 정신으로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며, 상생하는 생활습관과, 바른 역사의식으로 미래 국가를 주도하는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창립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성 칠장사, 다례재 기념 쌀 · 장학금 기탁

안성 칠장사가 주관하는 '혜소국사(제960주기) · 인목왕후(제382주기) 추모다례재' 가 10월 25일 칠장사에서 열렸다.

이날 다례재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의식을 시작으로 삼귀의례 · 반야심경 · 상단 헌다 후에 나눔 장학금 및 쌀 전달식, 법어, 합동 천도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칠장사는 쌀 8000kg(2000만원 상당)을 안성시에 기탁하고 장학금 1000만원을 안성시민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날 다례재 봉행에는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해 혜소국사의 청빈한 삶과 평생 동안 실천해 온 나눔의 소통을 본받아 이웃돕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편 칠장사는 안성 불교문화의 중심인 천년고찰로 지역 내 무료급식, 장학금, 쌀 지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완도 신흥사 '장보고 템플스테이' MOU

완도 신흥사는 전통문화와 장보고대사를 결합한 역사 ·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보고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10월 29일 완도군과 유관단체들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군의회,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사)장보고연구회, 신흥사 등 6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했다. 이들은 '장보고 템플스테이' 를 운영하는데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여행객 모집, 역사 · 문화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흥상 완도교육지원청, 곽태웅 (사)장보고기념사업회 전남지부장, 마광남 (사)장보고연구회 회장,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이 참석했다. 한편, '장보고 템플스테이' 는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1박2일 프로그램 2개와 2박3일 프로그램으로 2개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영어퀴즈로 알아가는 부처님 세상

부산 홍법사 어린이 불교영어퀴즈대회 'What is the Buddha's name?'

초등 4·5·6학년 50여 명 참가
달북초등 정제훈 어린이 1등


홍법사와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 불교영어퀴즈대회 '제1회 Hello! 범종을 울려라!'가 홍법사에서 개최됐다.

불교문화를 알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주는 어린이 불교영어퀴즈대회 '제1회 Hello! 범종을 울려라!'가 홍법사에서 개최됐다. 홍법사 개산 11주년을 기념해 한나라문화재단(이사장 심산)이 주최하고 홍법사 및 국제포교사회 부울경지부(지부장 최길차)가 주관한 이번 불교영어퀴즈대회는 초등학교 4·5·6 학년 어린이 50여 명이 참가해 약 2시간 동안 열띤 경합을 벌였다.

김건웅 한나라문화재단 상임이사의 범종 타종으로 막을 올린 퀴즈대회는 패자부활전, 응원전 등 다채로운 순서로 이어지며 행사 열기를 고조시켰다.

객관식 33문항, 주관식 20문항 등 총 53개의 문제가 별도의 통역과 힌트 없이 외국인 사회자의 단독 질문으로 진행됐다.

부처님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통과했으나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가 출제되자 탈락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후반부에는 사찰에 대한 상식부터 전반적인 불교문화에 대한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돼 탈락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최후의 1인으로 범종 타종에 도전한 달북초등학교 정제훈 어린이(13)는 42번째 문제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정제훈 어린이는 "평소 가족과 함께 교리공부를 했고 이번 대회를 위해 부모님께서 주요 예상문제를 표시해주셨다. 범종을 울리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도 참가해 꼭 범종을 울리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1등을 차지한 정제훈 학생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이 수여됐다.

불교교리 퀴즈대회를 영어로 개최한 것은 홍법사가 최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국제 및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으로 기획된 이번 퀴즈대회는 대상이 외국인이 아닌 국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어로 불교문제를 출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 출제를 맡은 조계종 국제포교사 부울경지부 50여 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어린이용 불교영어책을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7개월 동안 번역 작업을 거친 후 부처님 생애, 불교문화, 불교역사, 생활불교 등 예상문제 100여 개를 앞서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대회에 범종을 울린 어린이가 없는 만큼 향후 대회의 난이도 조정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국제포교사 부울경지부는 부산·김해·창원을 중심으로 예상문제 및 불교교리 강의를 진행해 참가하는 어린이의 학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가을 맞아 경남 지역 차문화 축제 풍성

여여정사 · 울산 불교방송 · 늘기쁜 마을 등 잇달아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차문화 축제가 열렸다. 사진은 늘기쁜마을 소외이웃 돕기 일일찻집.

가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차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여여정사의 여여차문화축제, BBS울산불교방송 '차문화한마당',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의 이웃돕기 일일찻집 등이 열려 가을의 풍성함을 더했다.

여여정사(주지 정여)는 제3회 여여차 문화 축제를 10월 26일 개최했다. 행사로 두리차회의 차 시연 및 작품사진 전시, 명상관련 책 전시, 음악회 등이 마련됐다. 두리차회는 부산여대 다도부, 한국차인연합회, 원광대 다도회, 해운대 여여선원 다도회, 김해여여선원 다도회, 여의주 다도회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차회 모임이다. 정여 스님과 밀양시장 박일호, 정홍섭 前 신라대 총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오심)은 제6회 '2014 울산 차문화한마당'을 10월 29일 울산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개막식에 이어 찻자리 경연대회, 차 시음회 및 시연회, 차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2009년 BBS 울산불교방송 개국 1주년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축하공연으로 심진스님의 '무소의 뿔처럼', '아버지의 노래' 및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월봉사 월광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BBS울산불교방송 사장 오심 스님은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울산의 전통 차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현대인의 건강도 보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울산 차밭 복원 등 연계하는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소득 이웃을 돌아보는 일일 찻집도 개최됐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은 10월 30일 환희노인요양병원 1층에서 '용서와 화해'를 주제로 자비의 일일 찻집 행사를 열었다. 또한 이번 일일 찻집은 환희노인요양병원 개원 1주년을 기념했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빛내주는 것을 보니 아직 세상엔 희망과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부처님처럼 섬기고 소외 받거나 차별 받는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은 모연금은 사단법인 늘기쁜 마을을 통해 산하기관 두송 종합 사회 복지관 및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태교 템플스테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11월 9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하루 체험형 태교 템플 스테이를 연다.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은 "태아의 그릇을 말끔히 비워주는 일은 태아의 근본이 본래 밝고 완전무결한 존재임을 믿어주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부모의 욕심으로 하는 태교가 아닌 아이의 존재가 본래 가진 무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태교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피톤치드볼을 이용한 피톤치드 명상, 차원을 높이는 태교의 개념과 태교 실제 사례,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는 'we are the 대장부', 일상의 마음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행복 염주꿰기', 숲길을 걸으며 하는 태교 '대장부로(路) 걷기', 태교를 주제로 나누는 스님과의 차담 '수행의 향기를 마시다', 마음의 밝음을 환기하는 '마음의 불', 대장부발걸음 등이다. 070-4650-5535

하성미 기자

포항보경사 10월 26일 무문관 상량식

진경산수 문화축제 음악회도

포항 보경사(주지 철산)는 10월 26일 무문관 상량식과 함께 '진경산수 문화축제 음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덕화 스님과 회원스님 등 사부대중 2천 여명이 참석했다. 무문관 건립은 올해 동안거 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경사 주지 철산 스님은 "청풍납자들이 모여들고 선지식들이 법담을 나누는 수선도량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와함께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발원지로 유명한 보경사는 경북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연산 일원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내연산 진경산수의 정취와 진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가을철을 맞아 음악회를 마련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통천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봉안 법회

대구 동구 아양교 조계종 통천사(선지 스님)는 10월 25일 스리랑카에서 온 부처님 진신사리탑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 파계사 주지 허운 스님, 해인사 전 강주 혜월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원 사찰 스님들과 지역기관, 단체장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전 중앙승가대학장 종범 스님은 "깨달은 몸, 화신인 부처님 진신사리는 세상의 지혜, 자비를 나타내고, 그 지혜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일대사가 불교다. 깨달음은 대상, 인연,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모든 현상을 바로 보는데서 생긴다"면서 "사리탑에 예경, 공경하여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자기 성장의 일대사임을 알아 일심으로 닦아 나아가자"고 법문했다.

통천사 주지 선지 스님은 지난달 9월 1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신불교운동 10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 스리랑카 마하보디 사원의 우피티샤 스님으로부터 진신사리 한 과를 기증 받았다.


통천사 진신사리 봉안식

주지 선지 스님은 "진신사리 인연으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 성취하길 염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팔공산 거조사 ,나한대재 육법공양

대구 팔공산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25일 영산전 앞 마당에서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반룡사 주지 혜해 스님, 교구 말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오백나한상에 올리는 육법공양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마가 스님, 원휴 스님, 테너 성규정 씨 등이 출연한 힐링콘서트가 열렸다.

국보 14호 오백나한상을 모신 거조사 나한재는 고려시대 국난극복 기원하며 시작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수산 축서사, 보살계수계대법회

봉화 문수산 축서사(회주 무여)가 윤달을 맞아 11월 8일 오전 11시 보살계수계대법회를개최한다. 계단은 전계대화상 종진 스님, 갈마아사리 무여 스님,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살계수계대법회에 이어 청정음악회, 만발차공양과 만등불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청정음악회에서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축서사 바라밀 합창단이 출연한다. 특히 만발차공양 시간에는 참가자 전원이 축서사 진신사리탑에 함께 차 공양을 올릴 예정이다. (054)672-7579

하성미 기자

봉화산 정토원 불교교양대학 첫 개설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불교교양대학이 문을 열었다. 진영포교당(주지 한파)과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중부 경남 불교교양대학(가칭)이란 이름으로 지난 10월 25일 불교대학을 공동으로 개설했다.

중부와 경남 지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강생이 진영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김해, 마산 등등 전국각지에서 모여 170명 가량이 모집됐다. 김해 사암 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불교대학은 3개월 과정을 마친 후 지속적으로 강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강의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법문 중심적 강의와 경전강해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3주차에서는 수강생들의 발표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강의는 10월 25일~2015년 1월 10일 진영문화센터 한빛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까지 총 2시간이다. (055)342-2991~2

하성미 기자

어떤 태교법보다 우수한 '관음태교'-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관음태교'로 낳아 기르자!

관음태교는 유대인 태교법 등 어떠한 태교법과도 차원이 다른 영혼체 중심의 태아행복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만현 큰스님

관음태교-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염불태교법

관음태교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태교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널리 보급할 것을 부촉하신 불교 고유의 염불태교법입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첫째는 태아에 좋은 영혼체가 들어야 하고, 둘째는 이미 잉태된 태아 영혼체에 쌓인 악업의 업장(業障)을 소멸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여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염불태교법입니다.

태교 – 평생교육보다 중요해

태교(胎敎)가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사주당 이씨가 지은 〈태교신기〉에서는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태교 열 달이 낫다."고 말합니다. 태교는 아이의 '인성과 지능'을 형성하는 기본설계도 역할을 하는 최초의 교육으로서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2001~2009년)를 차지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예술계를 주름잡고 있는 비결도 태교와 영유아 교육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태인 태교의 핵심

1) 닛다 임신법

① 생리 첫 날부터 5일간, 생리가 끝난 후 7일간 부부관계를 피합니다.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간은 금욕기간입니다. ② 생리 시작 후 12일째 밤이 되면 '미크바'라는 욕조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은 대개 배란일 하루나 이틀 전 정도로 임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닛다 임신법은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해야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계획 임신법입니다.

2) 태담(胎談)태교

유태인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부터 꾸준히 탈무드(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율법서)나 구약성서(토라)를 태아에게 들려줍니다. 어머니도 지혜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유대인의 정서와 정신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태교를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고 랍비(목회자)가 신경쓴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관음태교의 우수성

그러나 아무리 유태인 태교법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불교 고유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유태인 태교법은 근본적으로 영혼체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며 행복과 불행의 원인인 업(業)과 과보에 대한 통찰이 없어 금생 한 생을 잘 살기 위한 육체 중심의 태중교육에 그칩니다. 그래서 출생 후의 지능 및 재능개발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태아의 본체인 영혼체의 존재와 업과 과보의 행복논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한 영혼체 중심의, 심성 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인적인 태교법입니다.

유태인 태교법은 부모 중심의 자력태교로서 훌륭한 배우자나 태아영혼체와의 인연 선택이 불가능하고 태아의 업장소멸이 가능하지 않아 출생 후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중심의 타력태교법으로서 결혼 전부터 태교가 시작되어 좋은 인연의 배우자와 태아 영혼체와의 만남이 가능하고 또 태아의 업장소멸을 통해 미래의 불행을 소멸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서 주소·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 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관음태교 체험발표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간절하게 소리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낙태(落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계10선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아와 원결(怨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염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불자라면 모두 관음태교로 아이를낳아야

불자 여러분!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이의 행복을 좌우하고 가정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와 인류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관음태교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성현과 총명 유능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교 고유의 태교법입니다.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선택은 바로 관음태교입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253회)
•11월 16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 문의 033)243-1787, 179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설악의 五色이 부처님을 둘러싸다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서

① 설악산 속초 신흥사


1987년 8월에 착공한 통일대불 청동좌상은 14.6m높이에 108톤의 청동이 소요된 신흥사의 대표적 성보다.


종각 뒤 산에 물든 단풍이 곱고 화려하다.

화려한 가을이다. 형형색색의 단풍 때문이다. 산은 온통 노랗고 붉게 치장해 '만산홍엽(滿山紅葉)'의 절경을 선사한다. 그래서 이맘때면 화려하게 수놓은 단풍여행에 나서는 인파로 북적댄다. 10월의 설악 단풍은 가을철 최고의 볼거리로 손꼽힌다. 웅장한 산과 골짜기를 따라 곱게 물든 단풍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울산바위, 흔들바위 등 설악산 명소로 가려면 거치는 곳이 조계종 제 3교구본사인 신흥사다. 사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불상이 반긴다. 크고 웅장하지만, 자비롭고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통일대불(統一大佛) 청동좌상이다. 반세기 동안 겨레를 갈라놓은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는 민족의 비원인 국토통일을 이루고자 설악산보다 더 크고, 동해보다도 더 오랜 대불의 광명에 통일염원을 이루고자 만들었다. 이 석가모니불은 1987년 8월에 착공했고, 14.6m의 높이에 108t의 청동이 소요됐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신발을 곱게 대리석 위에 벗어놓고 정성 가득 절을 한다. 아마도 자신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 같다. 불상 앞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신흥사(神興寺)는 653년(신라 진덕여왕 7년) 자장스님이 창건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9층 사리탑을 세워 향성사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불교의 '중향성불토국'이란 글서 따온 것인데 중향성(衆香城)은 금강산, 철위산을 의미하며 불토국은 부처님께서 교화할 대상적 국토라는 의미와 정치적 형태의 국가라는 뜻과 어울린 말이다. 처음의 향성사지는 지금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세워져 46년간 존속하다가 효소왕 7년(서기 698)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 당시 9층이던 향성탑이 현재 켄싱턴호텔 앞에 3층만 남아 있어 옛 향성사의 역사를 말해준다.

향성사가 화재를 당한지 3년 후 의상조사께서 능인암(현재 내원암)터에 다시 중건하고 사명을 선정사라 개칭했다. 그 후 946년간 수많은 선승들이 이곳서 수도 정진했으나 조선 인조20년(서기1642)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실됐다. 2년 후 영서, 혜원, 연옥 세 선지식이 중창을 서원하고 기도 정진 중 비몽사몽간에 백발신인이 나타나서 지금의 신흥사 터를 점지해 준다. 이후 절을 중창하니 지금의 신흥사다. 절 이름을 신인이 길지를 점지해줘 흥왕하게 됐다해서 신흥사라 한 것이다.

신라 진덕여왕 7년(653년) 자장 스님 창건
한국전쟁 이후 제 3교구 본사로 승격 이관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매진, 새바람 일으켜
1995년 寺名 첫 머리 '神'서 '新'으로 바꿔

한국전쟁때 고성군 건봉사가 전소돼 영동지역의 대본산 기능이 마비됐을 무렵 고암, 성준 두 스님의 원력으로 신흥사를 제3교구 본사로 승격해 업무를 이관했다. 이후 신흥사는 영동지역 포교에 앞장서며 여러 주요 불사를 펼쳤다. 대표적인 것이 속초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서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하는 대표적 사찰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지역서 새 바람을 일으키자 신흥사가 과거의 신흥사가 아니라 새로운 신흥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신흥사의 첫 머리인 귀신 신자(神字)를 시대에 맞게 새로울 신자(新字)로 고쳐 사용하자는 중론이 일어났으며, 1995년부터 영동불교를 새로 일으킨다는 서원을 담아 신흥사(新興寺)로 바꾸기도 했다. 도량엔 단풍과 함께 새 바람이 가득하다.

속초 신흥사=김주일 기자


신흥사 중심전각인 극락보전 전경

설악산 국립공원 이용안내

설악산 가는 길 (서울 기준)

자가용 서울→ 서울춘천고속도로→ 동홍천 IC(1시간25분)→ 원통→ 미시령→ 척산온천→ 설악동소공원주차장(1시간35분)→ 설악동탐방지원센터(도보 3분)

버스 고속버스시외버스/동서울터미널→ 속초시외버스터미널(2시간20분)→ 소공원주차장(30분 7,7-1번 시내버스)→ 설악동탐방지원센터(도보 3분)

〈케이블카 이용안내〉

- 운행시간: 7시30분~17시30분
- 이용요금: 소인(37개월 이상~초등학생) 6천원, 대인 9천원(중학생 이상)
- 특이사항: 예약불가. 현장 구매만 가능

설악산 탐방로

매표소가 위치한 소공원은 설악산케이블카와 천 년 역사를 가진 사찰 '신흥사'가 인접해 가장 인파가 몰리는 장소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행되는 케이블카는 소공원에서 권금성으로 이어지며 외설악과 동해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도보로 10분 내외면 봉화대와 안락암을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소공원 안쪽 통일대불을 지나 금강교를 지나면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세심교를 지나면 신흥사가 나온다. 고즈넉

권금성, 외설악과 동해 조망
비선대, 비룡폭포 등 볼거리

한 절터를 돌아 뒷길로 빠져 나오면 비룡폭포, 비선대 등으로 향하는 이정표와 함께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된다. 시원한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리는 계곡길을 따라 걷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취해 지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설악산의 탐방로는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개개인이 취향에 따라 등반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가벼운 산책과 함께 가을단풍놀이를 기대한다면 왕복 3~4시간 정도 소요되는 양폭코스나 흘림골코스가 적당하다. 반면 가을산을 오르는 등산이 목적이라면 백담사나 장수대를 거치는 탐방로를 추천한다.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의 성보문화재는?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1770년(영조 46)에 세워진 것으로, 장대석으로 2단 쌓은 기단 위에 정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이 건물은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선방과 요사채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을 둘러싸 사찰 중심의 영역의 공간성을 확보해 준다. 건물의 하부는 기둥으로만 구성된 열려있는 공간으로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보여 주는 보제루 내에는 법고와 목어, 대종, 경판이 보관되어 있고 몇몇의 현판과 중수기가 걸려 있다. 이 중에는 이 사찰이 왕실의 원찰(願刹)이었음을 보여 주는 현판이 걸려 있다.

▲향성사지 3층 석탑(보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 석탑은 2중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세운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몸돌과 지붕돌은 각기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각 층 몸돌에는 양쪽으로 모서리 기둥을 지붕돌 아래로는 5단의 지붕돌 받침을 조각했고, 탑 꼭대기에 있던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9세기 무렵인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처음 해체 수리작업을 할 때 3층 탑신석 중앙에서 사리구멍을 확인하였으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탑의 높이가 4.33m로 장엄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정상에는 '千佛'의 불국토가 펼쳐지네



신성민 기자의 중국 실크로드 불교 유적 순례기

③ 난주 병령사 석굴

중국 감숙성 난주는 기원전 1세기부터 천산북로를 잇는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통로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지배층은 만리장성을 옥문관까지 확대시켰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구법승과 상인들은 반드시 난주에 들려야 했다. 일종의 교통 요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한나라 멸망한 후 난주는 부족국가의 수도가 됐고, 다른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독특한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감숙성 일대는 5세기부터 11세기까지 불교 연구의 중심이다. 500년에 걸친 불교의 변천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주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은 바로 병령사 석굴이다. 병령사 석굴은 감숙성 용정현에서 약 40km 떨어진 소맥적산에 위치하며 현재 석굴로 가기 위해서는 보트로 약 30~40분을 타고 들어가야 한다. 1961년 유가협 댐이 건설됐기 때문인데 중국 정부는 댐을 만들 때 석굴이 수몰되지 않도록 그 높이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소위 '모터보트'를 타고 병령사로 이어지는 뱃길은 소위 절경이다. 마치 불보살과 신선이 공존하는 이상향에 이르는 길목 같다. 기암괴석과 산 사이로 흐르는 물을 보고 있을 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진다. 물론 배멀미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일 수 있겠다.

선착장에 내려서도 10여분 이상을 들어가야 병령사(炳靈寺) 석굴을 만날 수 있다. 원래 당나라 시대에는 용흥사(龍興寺)로 북송대에는 영암사(靈巖寺)로 불리었다. 병령사 석굴은 원원이 깊다. 처음 조성시기는 서진(西秦, 385~431)였고, 청대(靑代, 1662~1911)까지도 불사가 이어졌다. 15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동안 이어진 불심(佛心)의 흔적들이 불보살상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시대의 불교 미술을 만날 수 있는 노천 박물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병령사 석굴은 상사(上寺), 하사(下寺) 그리고 동구(洞溝) 세 곳에 분포돼 있다. 이중 석굴은 하사 대사구의 암벽 면에 집중돼 있으며, 총 184개의 석굴과 감상(龕像)이 있다. 석굴과 감에는 총776체의 불보살상이 봉안돼 있다.

벽령사 석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171굴로, 그 높이가 27m에 이르는 대불을 만날 수 있다. 가까이에서는 대불의 면모를 제대로 볼 수 없고 건너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로 가서야 대불의 위용을 만날 수 있다. 제171굴 대불은 731년 개착을 시작해 803년 완공됐다. 상반신은 석주를 이용해 만들고 하반신은 니소(泥塑)한 것이다. 본래 대불에는 7층 누각으로 보호각이 설치돼 있었으나 청나라 말기 전화(戰火)로 소실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71굴 대불의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가부좌 형태가 아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이서 마치 사천의 낙산대불(樂山大佛)과 흡사한 형상이다. 흥미롭게도 낙산대불 역시 713년에 개착을 시작해 병령사 대불과 같은 해인 803년에 완공됐다.

유근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동국대 겸임교수)는 "병령사 대불은 비교적 원형이 남아 있는 낙산대불과 달리 제작 당시 세부적 조각이나 채색을 상당부분 상실해 양자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 "대만 양식과 개착 연대의 유사성에서 양 대불간의 관계를 관계를 추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병령사 석굴이 위치한 소맥적산의 지질구조는 사암(砂巖)으로 돼 있어 석굴의 개착은 용이하나 풍화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유가협에 댐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습기까지 더해져 훼손은 더욱 빨라졌다.

벽령사 석굴이 만들어진 서진시대에 조성된 석굴은 169굴이다. 하지만 현재 169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특굴'이다. 다만 상당 금액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169굴이 공개되지만,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다. 문화재 훼손과 사친촬영을 감시하기 위해 공안이 관람 내내 따라붙는다. 순례단 중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재가 스태프 등 7명이 169굴을 볼 수 있었다.

실크로드 길목에 있던 난주
5~11세기 불교 유적의 중심
병령사 석굴이 가장 유명해

서진부터 靑까지 불사 이뤄져
183개 석굴에 776체 불상 모셔
산 정상 있는 169굴에 오르니
수많은 불보살이… 이곳이 불국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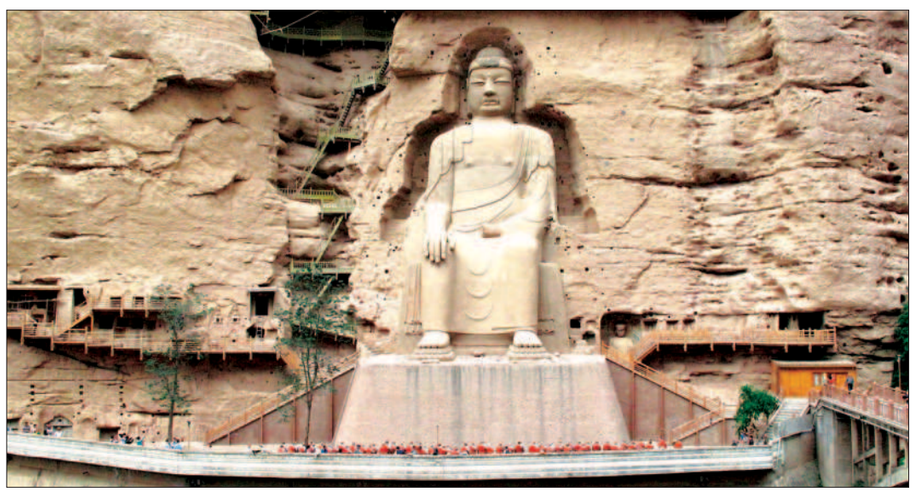
병령사 석굴의 백미인 169굴의 모습. 굽타양식의 소조불입상이 가장 도드라져 보인다. 지금은 특굴로 지정돼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고 특별관람료를 내야 만나볼 수 있다.



169굴에 있는 삼존불상. 이들은 모두 서진시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소조불입상 아래의 벽화 중 일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묘사했다.



높이가 27m에 이르는 171굴의 대불. 건너편 다리에 가야 위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69굴로 가는 길은 그리 녹녹치 않다. 169굴 자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절벽산 위에 있기도 하거니와 조성된 나무 계단들이 매우 가파르다. 일정 구간은 천수 맥적산 석굴보다 난이도가 있었다. 약간의 고소 공포증이 있는 필자에게는 두 석굴 모두 아찔한 고행의 길이었다.

하지만 가파른 나무 계단 끝에는 장엄한 불국토가 펼쳐졌다. 벽령사 석굴의 백미(白眉)로 169굴을 꼽는지 단박에 알 수 있게 했다. 천연동굴을 이용한 이 석굴은 넓이 26.75m, 길이, 8.56m, 높이 15m이다. 이곳에 크고 작은 불상과 조성 연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록까지 남아있다.

30여 체의 불보상이 있는 169굴은 '병령사'라는 이름의 연원을 알 수 있게 한다. '병령'은 티베트어로 '십만불(十萬佛)'을 한역(漢譯)한 것으로 '천불산', '만불동'을 의미한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병령사 소조불입상'이다. 입상 바로 옆에는 조성 기록이 먹글씨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불상이 서진의 문소왕 걸복치반의 말년인 424년에 조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중국 석굴 불상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연대가 확실한 자료다. '병령사 소조불입상'의 양식도 제법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후덕한 느낌의 불상이 아니라 조금은 마른 듯한 느낌이 인상적이다.

유근자 연구원은 "자세와 의복 및 용모에서 굽타 양식에 근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서북 인도와 비단길의 오아시스 지역들을 거치면서 변질되고 다시 중국화 되면서 굽타 양식 원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문제기에 따르면 벽화 속 불상은 무량수불이 제일 많다. 석가모니불은 모두 불좌상으로 표현돼 있다. 유마경변(維摩經變)도 많이 보이는데 유마힐지상(維摩詰之像) 등의 표기도 있다. 특히 벽화 소재 중 아육왕시왕인연(阿育王施王因緣) 같은 인연이야기가 출현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제기에 '아육왕본위소아 이토시불시(阿育王本爲小兒 以土施佛時)'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지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인연이야기다. 사경으로 〈불설미증유경(佛說未曾有經)〉 53행이 있는데 석굴 사경 중 가장 시기가 이르다.

다시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 돌아나서 길. 자꾸 169굴을 돌아보게 된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라는 혜능 스님의 일화가 생각났다. 종국에는 움직이는 마음조차도 없어야 한다. 처연한 불상을 보고도 그 상에 집착함은 미혹하다는 증거다. 돌아가는 배 안으로 들이치는 황소바람이 차다.

motp79@hyunbul.com

이 기사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협찬으로 격주 연재됩니다.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6〉 비슬산 용연사 극락전

훈습에 젖는 불보살 묘법연화

〈薰習〉



천정에 나타나는 모든 문양을 앞, 중간, 뒤의 순으로 압축해서 차례로 나타냈다. 천정 가운데에 금니를 입힌 모란 형태의 꽃을 장엄했다. 좌우협칸의 문양이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용연사 계단과 장엄, 통도사와 인연

대구의 진산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팔공산이고, 다른 하나는 비슬산(琵瑟山)이다. 대구 앞산의 주맥이 비슬산에 닿아 있다. 일찍이 두 산 처처에 절집이 들어서서 전등의 불을 밝히고 향을 피워올려 불국토의 인연이 깊다. 서남으로 뻗어 내리는 비슬산엔 유가사, 소재사, 용연사 등이 주맥을 따라 불법을 경영했다. 대구 달성 용연사의 주산이 비슬산이다. 비슬산의 옛이름은 포산(包山)이다. 종교와 인문, 자연을 두루 감싸안고 품은 산이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이 생애 35년을 이 두리에서 보냈다.『삼국유사』〈피은(避隱)〉 제8 '포산의 두 성인'에 나오는 관기와 도성 두 스님의 이야기 무대가 바로 이곳, 비슬산(포산) 자락이다. 비슬산 용연사엔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 1과가 모셔져 있다. 용연사는 통도사 금강계단처럼 석조계단을 갖추고 있다. 그 계단에 1673년에 세운 석가여래비가 있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게 된 경위를 전한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통도사 진신사리탑을 무너뜨리고 진신사리 2과씩 든 두 사리함을 탈취해 간 것을 사명대사께서 격문을 보내 도로 온전히 찾아와서는 서산대사께서 함 하나는 태백산 보현사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원래 자리 통도사로 돌려보내던 중 당시 영남지방이 다시 병화에 휩싸여 지체되면서 1과는 용연사에 인연을 풀고, 또 1과는 사명, 서산대사의 뜻대로 통도사 금강계단에 보내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인연설화의 내면을 접하면 용연사의 석조계단과 극락전 내부장엄 앞에서 옷 매무새를 돌아보고 숙연함을 갖추게 된다.

석씨원류응화사적과 팔상도 벽화

그런데 용연사의 주불전은 대웅전이 아닌 극락전이다.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치고는 의외다. 실상 내부로 들어서면 장엄세계는 대웅전이나 영산전의 법계다. 특히 75점에 이르는 내부벽화를 보면 통도사 영산전이나 용화전의 데자뷰 같다. 용연사 극락전에서 뜻밖에 만나는 기쁨은 고색창연한 벽화에서 얻는 예술적, 종교적 신심이다. 아담한 규모의 맞배지붕 건축에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고혹적인 색채와 이토록 풍부하고 다채로운 벽화를 만날 수 있는 건물은 그리 흔하지 않다. 벽면 곳곳에는 도상적 요소를 두루 갖춘 수월관음도와 팔금강의 호법신장상을 비롯해서 쌍림열반상, 설산수도상 등의 〈팔상도〉 내용도 눈에 띈다. 팔상도를 묘사한 벽화는 양산 신흥사 대광전에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벽화로 한국사찰벽화에서는 보기 드문 진귀한 장면이다. 장륙사 대웅전이나 제천 신륵사 극락전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필치로 현현하는 코끼리 탄 문수보살상도 창방에 담담히 장엄하였고, 〈서유기〉의 손오공도 벽화로 등장한다. 부처님의 생애와 전법제자들의 행적을 담은 〈석씨원류응화사적〉 내용의 43점 벽화는 벽면 곳곳에 예불자들의 신심을 불러 일으키는 시각적 교재를 펼쳐놓은 듯 하다. 벽화의 조영내용과 구도, 필선 등 색채와 조형원리 전반에서 통도사 용화전이나 영산전 장엄벽화와 겹쳐진다. 금강계단과 석조계단의 불연(佛緣)을 떠올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의 법계장엄이 하나의 교감신경으로 이어졌을 듯 하다.

꽃잎에서 보주 터져나오는 연속화면
연꽃은 우주이며, 태극이고, 一心



내부 벽면과 대들보, 후불벽 뒷면, 포벽에 베푼 벽화와 단청이다. 대들보 하나에는 시주자 인적을 밝혀 두었다.

닫집기둥의 넝쿨이 용으로 변화신

극락전은 3×3칸에 내4출목을 갖춘 18세기 맞배지붕 건물이다. 천정은 2개층의 층급우물천정이다. 천정 중앙 칸엔 닫집을 경영했다. 닫집에서 주목되는 것은 '허주(虛柱)'라고 부르는 공중에 내린 기둥이다. 일반적으로 허주는 닫집의 네 모서리에서 연꽃 봉오리가 달린 내림기둥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용연사 닫집의 허주는 통상적인 연꽃줄기 형태가 아니어서 눈길을 끈다. 닫집의 내림기둥 따라 넝쿨이 뻗어내리고, 생명의 새싹들이 붉은 촉수를 내밀고 있다. 촉수는 녹청의 잎사귀 사이에서 붉은 색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성의 주술로 생명을 불어 넣으며 생동감과 입체감을 살려낸다. 약동하는 생명과 자비의 기운들은 내림기둥의 끝자락에서 극적으로 용의 형상으로 변화신(變化身)한다. 허주를 용의 몸통으로 대범하게 구사했다. 넝쿨의 파동적 힘을 용의 몸통으로 극적으로 변화신하는 건축장치는 내부공포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닫집의 허주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소한 장엄부재 일지언정 용의 본질을 조형적 직관으로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용의 본질은 생명의, 신성의 기운을 담지한 추상적 파동에너지의 구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아하고 섬세한 율동적 연화문

천정에 장엄된 주된 문양들은 다섯 가지다. 연화문과 모란문, 그리고 구름문양의 외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신성과 차원의 깊이를 추구하면서 불가사의한 관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찰천정을 볼 때마다 칸칸이 반복되는 문양으로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조화롭게 완성한 짜임을 보면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 전체가 불국토이며, 조형언어로 된 경전이며, 화엄의 만다라다.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는다. 좌우 협칸의 우물천정에 베푼 문양은 마치 통일신라 보상화 문양전을 보는 듯 하다. 우아한 율동감과 선율이 통일신라 문양전이나 고려불화 의습에 표현된 문양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준다. 불교 장엄문양에서 전통과 혁신의 흔적이 조선의 사찰천정에서 고요히 구현되고 있다. 붉은 바탕에 금니로 백묘로 그려나간 선들은 마치 고려시대 〈묘법연화경〉의 금니 변상도처럼 부드럽고 섬세하며 율동적이라 아름답기 그지없다. 부드러움의 화면은 온통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천지간에 보이지 않는 형성의 기운이 가득하고, 그 한가운데서 연꽃의 형상들이 극적으로 피어난다. 연꽃에는 다시 메트릭스 밖으로 내미는 아기의 손처럼 새싹의 기운이 뻗친다. 연꽃의 형상은 불생불멸 무생법인(不生不滅 無生法忍)의 진리이자 부처다. 그 세계를 관(觀)함으로써 예불자는 은연중 진리의 세계에 젖어드는 훈습(薰習)의 향기 속에 있게 될 터이다.





용연사 극락전 천정 중심부의 전체모습(사진 왼쪽). 닫집 내림기둥(허주)이 용으로 변화신하는 놀라운 장면이다(사진 오른쪽).

연화문, 신라 보상화 문양전 닮아
현묘한 고차원적 연화머리초 단청

천정 종자불은 아미타불과 육자진언

중앙의 양 협칸은 위 금니백묘에다 색을 입혀, 백묘단계를 회화로 완성시켜 놓은 것처럼 보인다. 색채는 단청기법에서 위는 녹청색, 아래는 붉은색을 입히는 상록하단(上綠下丹)을 역으로 취했다. 문양이 나무가 아니라 꽃줄기 형태를 취한 까닭이다. 생명의 기운들이 초록의 기세로 요동치는 바탕에서 붉은 연꽃 네 송이가 한가운데로 모여 종자불을 극적으로 탄생시킨다. 종자불(種子佛)은 칸칸이 한 자씩 나투지만 전체적으로 문자종자들을 이어보면 한자는 '나무아미타불' 이고, 범자는 육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훔' 이다. 여기서 조형을 이룬 승장, 또는 예술가의 분명한 조형의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연꽃이라는 자연의 형태를 빌려 형이상학적 처염상정의 불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천정장엄에 함장한 은밀하고 거룩한 뜻이 풀려 나간다. 신령한 기운이 흐르는 바탕의 질에서 본성의 진리를 구현한, '문질빈빈(文質彬彬)'의 고차원적 정신세계의 전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절집천정이나 단청에서 보이는 연꽃은 단순한 연꽃이 아니라, 모든 우주적 기운과 생명 태동의 거대한 메트릭스다. 즉 연꽃 하나가 우주이며, 태극이고, 일심(一心)이다. 용연사 극락전 대들보에 입힌 소위 '연화머리초' 문양을 보면 연화의 형상이 얼마나 고차원적이며 불가설불가설의 세계인지 현묘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마음에 환희심을 일으키도록 아름답다. 신묘한 기운으로 가득한 연꽃에서 커다란 보주가 순차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꽃잎에서 터져나오는 장면을 슬로우비디오처럼 연속화면으로 보여준다. 돈오의 극적 깨침이니 연화는 동시에 불성의 여래장이다.

수적(垂迹)으로 현현하신 부처님 자리

천정의 꽃 형상들은 한결같이 씨방을 품고 있고, 꽃잎은 회전하며, 초록의 새로운 기운들이 뻗치고 있다. 때때로 연꽃의 형상을 빌리고, 때로는 모란으로, 때로는 국화로, 아니면 관념적 기하문 형태로 나타난다. 형태가 자연의 어떤 패턴을 빌려왔든, 그 꽃들은 궁극의 지향점인 불성을 품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묘법연화와 자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려 중생의 옷자락에 향기를 묻힌다.

비슬산은 인도 힌두교의 신인 비슈누에서 음차한 것이라고도 한다.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나 인도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를 보면 절대신 비슈누는 마부, 목동뿐만 아니라, 물고기, 난장이, 심지어는 아홉번째 화신으로 붓다로 화현한다. 비슈누는 원래 "확장되며 모든 곳에 스며든다"는 의미이고 보면 그 변신이 원력과 방편에 따라 자유자재다. 대승불교에서도 영원불멸의 법신은 삼천대천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와 보살로 화현하신다. 법신이신 부처께서 화신으로 변화해서 보살의 모습을 하고 중생 속으로 나투시는 것을 '수적(垂迹)'이라 한다. 발자국을 드리우다는 뜻인데, '권화權化'도 같은 말이다. 용연사 극락전 사찰천정이 온통 수적(垂迹)으로 현현하신 부처님의 자리다. 옷깃에 가피훈습의 향기가 배였구나.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신비한 '만사대길부' 친견하세요

특허출원번호 30-2014-0051973호

"하는 일 마다 무언가 가로막는 느낌이고, 풀릴 듯 안 풀리는 일들을 만사대길부가 해결해주는 신비함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수능 기원 | 회사 경영 | 취직 문제 | 결혼 문제 | 가정 문제 | 질병 문제

용도

- 학생책상에(머리가 맑아진다)
- 자동차운전석에
- 화장대에(가정에 액운을 막아준다)
- 회사 사무실 및 생산공장 안전에

※ 주문에 의해 18K도금으로도 제작 가능함
※ 선물용 고급케이스 증정(선착순 공급)
※ 특별 보급가
· 대 : 50,000만원
크기 - 가로 14㎝ × 세로 14㎝
· 소 : 40,000만원
크기 - 가로 11㎝ × 세로 11㎝



사찰 주지스님의 신도에게 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사대길부

계좌번호 : (우체국 010017-02-614770 김필성) | 상담전화 : 010-2962-0115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동북아 '우주항공허부'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선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궁 .용왕. 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하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 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 주 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마음은 마음이 아닌 '비심'

마음씨 타령 ①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비심이다. 비심인데 이걸 이름하여서 마음이라 한다. 이러하니 실로 이것이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이라 해 봤든 무엇을 걷어잡고 우리가 마음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또 마음이 없단 말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아주 불가사의한 자리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써. 쓰는 이 마음씨가 지극히 불가사의한 자리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지나간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주 골자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씨를 매일 써. 이 마음씨를 알긴 알아야겠는데 알아 봤든 알려고 하는 그 놈이거든. 내 마음씨가 어떤 것인고 알려고 하는 바로 그 놈이라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심도 얻지 못하고 현재심도 얻지 못하고 미래심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때는 언제라도 허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아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첩경의 길이 될 겁니다.

허공, 사실 아닌 게 아니라 허공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 허공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도 나투고 태양도 나오는데, 나와서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허공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 참 막연해. 사실로 이거 아주 드높은 고갭니다. 실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와 공부하는 것도 이 자리 알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하나 알아 버리면 여기는 죽고 사는 것이 딱 끊어진 자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나투어. 착하고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착하고 악한 것도 나투어. 밝고 어두운 것도 없기 때문에 밝고 어두운 것도 나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하면 나중에는 말이지 생사와 생사 없는 것이 딱 하나라는 것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말할 것 없이 파도나 한가집니다.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데 중생들은 파도 이놈에만 얽매어 있거든요. 이 파도도 역시 하나의 물인데 파도라 해서 물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바다는 안 보인단 말이죠. 파도만 보여. 그래서 이러한 설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음씨타령을 하나 붙여 봤거든요. 마음씨타령. 우리나라 말로 타령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소리, 노래, 타령. 마음씨타령이라 했는데 이걸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송] 두렷하게 맑은생각 법이라하면
휘영청히 밝은마음 부처아니냐.

만약 두렷한 생각이 마음이라 말이죠. 마음이란 것도 없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은 비심이라. 이름뿐인 마음이라. 그러나 이름뿐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이름뿐인 마음이라 하면 좀 섭섭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맑아. 그러하기

> 과거 · 현재 · 미래의 마음
> 얻지 못할 때 허공 생각해야
> 바닷물에서 파도가 일지만
> 중생들은 파도에만 얽매인다
> 생사와 생사 없는 것 딱 하나
> 마음은 부처자리 곧 하나의 법

때문에 도저히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아닌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우리 보림선원에서 새기는 것은 아닌 마음이다 이렇게 새기고 있죠. 비심하면 아닐 비자거든요. 아닌 마음이다. 보통 마음이 아니라고 새기지만 우리는 아닌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새기거든요. 아닌 마음이라 하면 아니라도 좋아요. 아닌 마음이라 하는 이놈은 있거든. 마음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것은 있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닌데 마음이 아닌 그것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뭣꼬. 왜 이런 복잡한 한문을 썼을고? 한문이 아주 좋아요. 다른 의미가 다 포함되거든요. 이런 좋은 글 가지고서 비심이라 했느냐.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새기는데 우리는 아닌 마음이다 바로 이래 버렸거든요. 그럼 아닌 마음 그 놈은 있거든. 또 마음이 아닌 그 놈은 또 있거든요. 이건 무엇인가. 이거 한 번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자리가 참 불가사의하거든요. 불가사의하면서도 마음을 써.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걸 써. 그러하니 이거 기막힌 자리 아니에요? 결국은 이 자리 하나 알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강송] 두렷하게 밝은성품 법이라하면
휘영청히 밝은마음 부처아니냐.

성품, 이래 하면 하나의 법이거든요. 밝은 마음이 바로 성품이거든요. 그러하니

[강송] 어즈버야 온누리는 불가사의니
지화자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쇠꽃, 철화, 그러니 두렷하게 밝은 성품을 보자면 바로 허공입니다. 두렷하다고 써 놨지만 두렷한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하니 천상 두렷하단 말을 부처님도 이 말을 빌려서 많이 썼습니다. 두렷하다는 것은 우리의 눈동자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두렷하게 봐. 하지만 두렷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두렷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누리는 두렷한 데 속한 것도 아니고 두렷 안 한데 속한 것도 아니에요. 모난 데 속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씨를 말마디로써 표현한다면 그렇게 그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휘영청한 마음씨가 물건 사고 싶으면 물건을 사.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를 해. 밥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어. 휘영청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탁탁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이 어찌 부처가 아니냔 말이에요. 성품이 법이라면은 마음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의어서 절대로 부처 찾지 못합니다. 만약 마음을 여의어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건 외도고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 부처자리, 네 글자가 있는데 부처라 해도 좋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또 부처니 마음이니 하나의 법이거든요. 법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뭣을 갖다 써도 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명의 존재' 빠짐없이 구제한다

15-2 섭취게(攝取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정 자기 할 짓을 소신대로 해 나가는 원효대사 말씀으로는 이 믿음의 진리란 것은 알뜰한 것이란 것이다. 알뜰한 것이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노력해서 얻은 뒤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이 말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재로운 해탈을 얻어 뛰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특출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염불하는 사람의 환희와 커다란 긍지가 있다.

염불하는 사람은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가고 미타의 힘으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아 버리면 전전으로 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된다. 또 얼른 생각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갚아야겠습니다. 이러는 것은 감사 대상을 두고 하는 절대적인 귀명(歸命)이다. 이렇듯 순종하고 귀의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대로의 커다란 자부와 긍지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는 보은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곧 나는 사람이다 하는 소리다. 내 자신이 사람이다, 나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다웁게 살 것을 선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뭣인가? 이것은 바로 제 2의 인권선언이다. 이건이 염불하는 사람의 확신이고 또 긍지인 것이다.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신을 가졌다. 그런 줄 알아주시오, 하는 이 소리는 얼른 듣기에도 퍽이나 겸손하고 차라리 못생긴 것 같지만, 못난 여기에 긍지가 있고 동시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엄숙한 유아독존(唯我獨尊)이 깃들인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이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내가 잘 났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장하다. 이렇게 제 잘난 척하고 아만(我慢)을 내세우는 것과 수수하게 처져 있어 보은하고, 감사하고, 그런 겸허한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제가 잘 났다. 나는 이러할 작정이다. 저러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저력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이것이 염불하는 사람의 위력(威力)이고, 그런 가운데 법열도 큰 것이 있다.

16. 사홍서원(四弘誓願)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이것은 큰마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 대승(大乘)은 이와 같은 네 가지 발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원은 첫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자체, 사람이란 것, 중생이란 것은 이루 다 헤아릴

>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중생
> 맹세코 제도하고자 원 세우고,
>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 일어나는 번뇌망상 끊고,
> 넓고 넓은 법문의 세계
> 맹세코 모두 배우기로 결심하고,
> 스스로 깨친 바를 남에게 전하고
> 행동하고 실천해 불도를 이룬다
>
> 네가지 원을 다시 이야기하면
>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 한다

수 없다. 아무리 한량이 없다손 치더라도 끝내 다 건져야겠다, 맹세코 제도해야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제해 주어야겠다 하는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살아 나가고 있는 이상에는 모든 죄악성을 내포한 번뇌 망상이 또한 한정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 무궁무진한 것이 있지마는, 이를 맹세코 끊어 없애야 한다.

셋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學問)의 분야, 법문(法門)이라는 것은 넓고 깊고 한량이 없는 것이지만 맹세코 학문을 하기로 원을 세운다.

넷째는 자기 자신이 진정 깨친 바를 남에게 가르쳐 깨치도록 하고, 그것을 실지로 행동화하여 성취하는 이 불도(佛道)는 그 위에 더 덮을 수 없이, 가장 높은 것인데 기어코 이를 이룩하도록 서원을 세운다.

이 네 가지 원을 다시 얘기한다면 위로는 우리가 깨쳐야 되겠다는 상구보리(上求菩提)와 밑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리가 깨친다는 데는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또는 몸이나, 이른바 오관(五官)이라는 감관신경(感官神經)이 기본 토대가 된다. 이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하여 아는 것이다. 불교에서 육근(六根)이라는 것은 이 오관을 이름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눈을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한다. 눈으로 보아 깨치는데도 다섯 가지종류가 있다.

첫째는 육안(肉眼). 직접 우리들의 육신에 감각을 전달하는 시각 기관이다. 육안이라는 말 가운데는 눈, 코, 귀, 혀, 몸의 오관이 다 같이 통하는 뜻으로 쓰인다. 몸에 의한 감각적인 것. 이것은 물질의 형상을 대상으로 이것은 희다, 저것은 푸르다, 이것은 짙다, 옅다, 흘러간다, 정지하고 있다 하는 등으로 말하는 것의 총칭. 개별적으로는 눈의 대상은 빛, 색깔이다. 귀는 소리, 코는 향기, 혀는 맛, 몸은 차다, 덥다 하는 촉각을 가졌다. 이것을 통틀어 육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관신경의 대상인 객관세계(客觀世界)는 유한과 차별상으로서 인식된다.

육안의 세계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밭에 콩을 심어 콩을 거두어 들인다는 인과의 법칙이 지배한다.

이것은 현실세계(現實世界)이므로 퍽이나 중요하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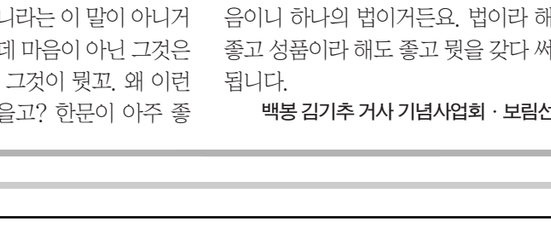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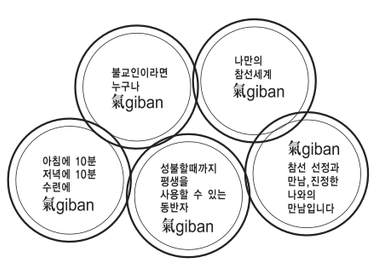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보시는 평생과업…

박명혜 (자행회 회장)



박명혜 자행회 회장은 … 1934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까지 다녔다. 1979년 여성불교신도회 보문회를 발족해 20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며 전국 사찰과 학교 병원 불사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여성문화원 공동이사장, 불교여성개발원 부설 지혜로운여성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자행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23회 포교대상 원력상 부문에서 수상했으며(2011), 2011년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에서 시상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박명혜 사단법인 자행회 회장(82)은 평생 보시행을 실천한 인물이다. 불교여성 신도회인 보문회를 결성해 회원들과 전국을 다니며 보문사, 망월사, 월정사, 상원사 등 30여 사찰을 비롯해 비구니회관 · 동국대 병원 등의 불사를 지원했다. '인재불사' 도중요시 여겨 장학금 지원과 비구니 스님 의료비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자행회 회장직을 맡으며 자혜학교, 수봉재활원에서 심신 장애인의 재활을 도왔다.

박 회장은 생활 속 보시행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외출할 때마다 가방 속에 사탕과 초콜릿을 넣어갖고 다니며 경비원과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또는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에게 건넨다. 30년째 지켜온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 서온 박 회장도 처음에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절을 다녔다. 그런데 열심히 부처님 일을 하며 살다보니 점점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귀결됐다. 고민하던 문제들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해결됐고,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라고 분별할 필요 없이 내 앞에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저 역시 40여 년 전 '가족 잘 되게 해 달라' 는 마음으로 절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도반들과 여러 사찰 건립불사에 참여하면서 '복 짓는다' 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면 되는구나. 열심히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도심' 법명 받고 불교에 귀의

학창시절 기독교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던 박 회장은 1974년 처음 친구의 손에 이끌려 북한산 승가사를 방문했다. '소원을 들어 준다' 는 친구의 말에 호기심으로 찾았던 절에서 금새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가사 대의(大義) 스님에게 절하는 법과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배운 박 회장은 집 근처 선학원으로 매일 새벽예불을 다녔다. 승가사와 강화 보문사도 찾아다니며 기도 정진했다. 당시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절에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이무렵 대의 스님은 박 회장에게 대도심(大道心)이란 법명을 지어줬다.

불교에 흠뻑 빠져 열심히 신행활동을 이어가던 박 회장에게 초하루 방생법회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한쪽에서 자라를 풀어주고 바로 아래에서 다시 잡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방생법회에 참석하지 않게 됐죠. 그때 마침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됐는데 스님께 여쭸더니 책 불사를 하라고 조언하셨죠. 전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도반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9년 승가사 소속 보살들로 구성된 여성불자 모임인 '보문회' 가 탄생했다. 당시 회원들과 강화 보문사로 매월 2박 3일 기도를 다니던 때라 보문사 성수 스님이 '보문회' 라고 지어줬다. 창립 회장을 맡은 박 회장은 20여년을 보문회와 함께 했다.

30여 사찰과 불교기관에 보시행

박 회장과 보문회 회원들은 1년에 8~9회 씩 전국 사찰을 순례하며 전등사, 낙산사, 월정사, 구룡사 등 사찰 불사를 지원했다. 단순히 물질적 모연만 하지 않고 3000배 철야정진을 하며 불사가 원만회향 될 수 있도록 발원했다.

"사찰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이곳은 이렇게 도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반들이랑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불사보시를 참 재밌고 신바람 나게 했죠. 가끔 기금이 잘 마련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항상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원만히 해결됐어요."

이 무렵부터 박 회장은 불사를 위해 생활도 수행자처럼 바꾸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금강경〉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했다. 1981년부터 이어진

친구 따라 처음 간 승가사와 첫 불연
승가사 소속 회원들과 보문회 결성
20년간 전국 사찰 불사보시 이끌어

탄허·성철 스님 가르침에 인재불사 시작
비구니회관, 중앙승가대 건립 도와
장애인 지원 사업에도 관심 기울여

1981년부터 매일 아침 금강경 사경
"하루 충실히 살며 이웃 돕다 가고파"

〈금강경〉 사경 수행은 지난 2012년까지 이어졌다. 사찰 불사를 앞두고 있을 때나, 사찰 순례를 떠나기 전 항상 〈금강경〉 사경을 했다. 또 틈틈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는 동안 〈금강경〉을 독송했다.

"사경을 하면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정을 얻으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경은 과거의 숙업과 현재의 업보를 녹이는 참회이자, 나 스스로를 위한 기도예요. 이웃에게도 그 기도의 힘이 전해지죠."

회장 시절, 박 회장은 1년에 1억 원 넘게 모연한 적이 있었다. 당시로선 엄청난 액수였는데, 이는 박 회장의 지극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 회장은 보문회 회원들의 가족카드를 만들어 매일 새벽 4시 자신의 기도 때 축원을 올렸다. 회원 가족사항까지 파악해 사찰 순례 때면 그 가족의 영가천도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손수 준비해 천도기도를 올려줬다. 순례 하루 전날 먼저 사찰에 도착해 회원들을 극진히 맞이했고, 오가는 차에서 먹을 음식과 간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고 비용을 줄여 불사금에 보탰다. 모연된 불사금은 매일 일기 쓰듯 장부에 적어 회원들에게 공개했다.

또한 박 회장과 함께 기도순례를 가면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니 회원들의 신심은 점점 깊어졌고, 무슨 불사든 박 회장을 믿고 흔쾌히 동참했다. 그 결과 처음 50명 회원으로 시작된 보문회는 3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모임으로 성장했다.

"사경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을 할 때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거침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밤늦게 까지 회원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만들고 새벽에 일어나 〈금강경〉 사경하고,또 주어진 일은 주저함 없이 했어요. 기도를 하니 지혜의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탄허 · 성철 스님과의 인연

박 회장은 상원사와 인연이 돼 서울 대원암으로 탄허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다니면서 마지막 유발 상좌가 됐다.

"탄허 스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저는 그런 스님께 천진순진하게 '스님 열반하실 때 대원암 제게 주세요' 했죠. 스님은 흔쾌히 '그래, 너 줄게' 하셨어요. 평소 인재불사를 중요시 여긴 탄허 스님은 교육을 위한 법당건립 발원을 하셨는데 그때 마다 '반은 제가 맡겠다' 고 다짐했어요."

탄허 스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박 회장은 1년간 6천여 만원을 마련했다. 그 즈음 탄허 스님이 입적했고, 탄허불교문화재단과 보문회 장학재단이 탄생했다.

"탄허 스님께서는 늘 '허공 무서운 줄 알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블랙박스에 기록되듯 입력돼 인과로 돌아오는 거죠. 제 삶의 지침이 됐습니다."

한번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보문회 회원들과 14시간 동안 3천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친견할 때였다.

"성철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네가 대장이지?' 하면서 '여기저기 불사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신문값 받으러 오는 학생에게 귤이라도 하나 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불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이때부터 박 회장의 사탕 보시가 시작됐다. 항상 사탕 등 먹을 것을 가방에 챙겨서 택시기사, 경비원, 은행청경, 학생들에게 나누어줬다. 처음에는 사탕하나 건네는 게 부끄럽더니 이제는 습관이 돼 자연스럽다. 사탕 보시는 보문회 회원들에게도 전파가 돼 하나의 '문화' 가 됐다.

인재불사를 강조한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 보문회는 청도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의 의료비 적립금 마련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관 건립, 중앙승가대 건립 등 전국 주요 사찰과 학교, 병원에도 손을 내밀었다. 또한 역경사업, 장학사업, 장애인 지원 사업 등 불교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했다.

1985년 (사)자행회 이사를 맡게 된 데에도 성철 스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BORYEON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인재·사찰 불사 지원 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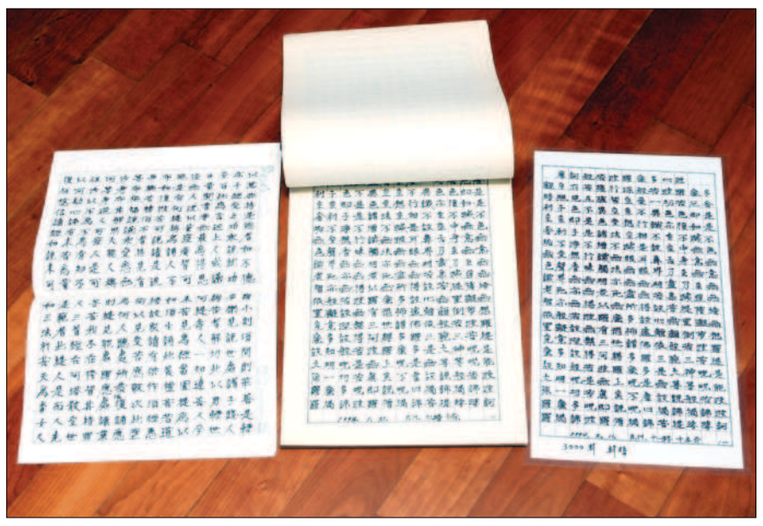
박 회장은 2005년 자행회 회장으로 취임해 자행회 부설기관의 시설정비를 돕고 원우들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자혜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 박 회장은 '아이들이 부처'라는 걸 배우게 됐다.



박 회장(사진 두 번째 줄 가운데은 제23회 조계종 포교대상에서 원력상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금강경〉과 〈반야심경〉 등을 사경했다. 1994년 반야심경 사경 3000회를 회향하는 기념으로 남겨놓은 것들이다.

님의 말씀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행회는 1966년 이방자 여사가 설립한 정신지체장애인을 돕는 단체로, 산하에 장애인 특수학교인 자혜학교와 수봉재활원, 자혜직업재활센터가 있다.

박 회장은 보문회 활동 중 故 이방자 여사와 인연을 맺었고, 2005년 회장으로 취임해 자행회 부설기관의 시설정비를 돕고 원우들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자혜학교에서 '아이들이 부처'라는 걸 배웠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돕고 있습니다. 평생 부모가 없어도 독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죠."

이런 노력으로 박 회장은 지난 2012년 정부로부터 '장애인 복지 증진을 통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매일 아침 수행으로 지혜의 눈 떠

박 회장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금도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신문을 읽는다. 요즘에는 손이 저려 〈금강경〉 사경은 잠시 쉬고 있다. 대신 2012년 3월부터 매일 나무아미타불 5천독 정근을 이어나가고 있다. 바둑판 공책에 '2012년 3월 26일 1일 나무아미타불 5천독. 85세에 모든 것을 참회하고 편안한 죽음을 기원하며 기도 합장.' 발원문을 적어놓고 바를 정(正)자로 일지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일정이 생겨 정근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간 날 때 틈틈이 해 시간을 벌어둔다.

"늘 준비하고 시간을 소중히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을 잡을 수 없듯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인터뷰가 있던 날도 약속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박 회장은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했다.

"기도하고, 책 보고, 도반들 만나고, 집안일 하고…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뭐가 이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요새 노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데, 전 우울증이 올 틈도 없이 바쁘네요."

박 회장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 보문회를 조직해 평생 전국 사찰 불사에 매진한 것, 자행회 회장으로서 장애인 재활에 힘을 쏟은 것"을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남을 도우며 살다가 '그 사람 참 좋았다'는 기억을 남기고 가고 싶다는 박 회장은 다시 태어나도 불교와 인연 맺기를 발원했다.

나무아미타불 정근 기록일지에도 썼듯 박 회장은 85세에 편안한 죽음을 맞고 싶다고 했다. 무엇을 바라거나 원하는 것도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이웃을 돕다 여생을 마무리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다.

"예전에는 절에 안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샌가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처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나 적게 갖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서부터는 절에 간다 안간다 하는 개념조차 사라졌어요."

좋은 향기는 천리를 가듯,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시행을 펼친 그의 걸음 걸음에는 연꽃이 피고 있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법일기

전법에 인색한 이유

변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인 것 같다. 변화해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변화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다.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내겐 무엇보다 변화가 즐겁다.

가끔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냐는 질문을 받는데 늘 시원히 답하지 못한다. 사실 어느 계절을 좋은지 스스로 확신하기 힘들다. 봄이 오면 봄처럼 싱그러운 상상을 하고, 여름이 오면 녹음의 설레임이 가득하고, 가을이 오면 가을의 그리움, 겨울이 오면 눈 덮인 산하의 차가운 겨울의 추억에 가슴 설레인다.

가끔 지나친 선교활동으로 세상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이럴 때 마다 자꾸 계절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이 최고인 냥 떠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참으로 자신의 생각에 묻혀서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만이 최고라고 우기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하지만 불교는 이와 너무나 반대적인 모습이라 당황스럽다.

언젠가 부산지역 포교사들이 참배 왔었다. 법문을 하던 중에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포교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았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다.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명색이 조계종 포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포교사들 60명 가까이 모였는데 1년 동안 단 1명에게도 전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숨이 탁 멎어드는 느낌이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하고 있을 때 누군가 한명이 큰소리로 12명을 불교에 입교시켰다고 했다. 모두들 놀라며 박수를 보냈지만 그것이 다였다.

왜 불자들은 전법에 이토록 인색 할까?

우스광 서러울 정도로 자신의 종교에 집착하여 허우적대는 모습이 좋아 보일리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가진 종교적 신념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언가 우리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왜 많은 불자들이 스스로 불교적 신념에 불확실해 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교리에 머물게 하는가? 자신이 확신하는 신념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전해서 공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삶의 기쁨과 환희로운 경지를 체득하고 그러한 기쁨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려는, 함께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 좋다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학습 할 것이고, 진정 부처님이 제시한 길이 지고지순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길임을 확신한다면 정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확신한다면 자신만의 즐거움에 빠져있지 말고 이웃에게 이 행복의 보따리를 풀어 전하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림 · 박구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다 가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부여된 의무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충만한 행복을 이웃에게 전해주려는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전법의 삶이 될 것이다.

쇠똥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는 말이 있다. 죽어서 천당을 가기위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부처님처럼 이생에서 느끼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서로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래, 또 누가 와서 어느 계절이 좋으냐 물으면 닿가 오는 계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주고 싶다. 또 누가 어설프게 전도해 온다면 이제 당신이 믿는 종교보다 더 위대한 미래의 종교를 믿는다고 해주어야겠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cm × 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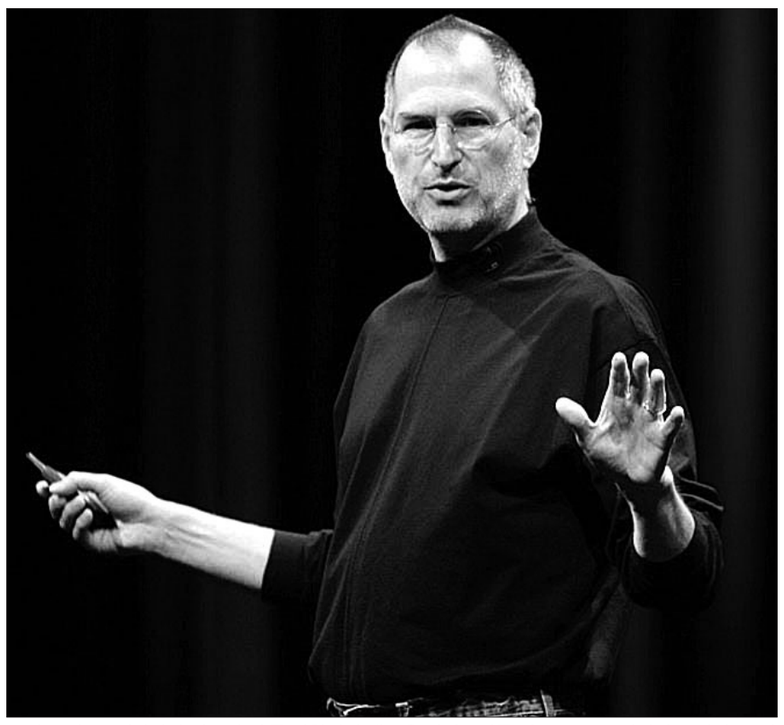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포브스, 美 글로벌 리더 명상에 주목

"명상, 기업문화에서 급진적인 진리이자 변화"



스티브 잡스는 '명상과 비즈니스'를 결합시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든 CEO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이끌었던 애플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라는 광고로 세상에 존재를 알렸는데, 그 중에 바로 스티브 잡스가 있었다.

서양의 글로벌 리더들은 왜 명상에 빠져드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세일포스(Salesforce) CEO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링크드인(LinkedIn) CEO 제프 와이너(Jeff Weiner), 브리지워터(Bridgewater) 창립자 레이 달리오(Ray Dalio)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글로벌 리더들 역시 명상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성공에 명상의 수혜가 적지 않다'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Forbes〉지는 "진흙탕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야 말로 비즈니스에 가장 큰 덕목"이라는 마크 베니오프의 말을 인용하고 "글로벌 리더들은 '절규의 현장에서 명상이라는 침묵을 통해 자신은 물론 조직은 안정까지도 찾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리더에게 명상이란 월스트리트의 블루칩과 같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에서 성공의 가장 큰 영양분을 들자면 단연 명상"이라고 말했던 브리지워터(Bridgewater) 창립자 레이 달리오(Ray Dalio) 회장이 직원들에게 명상 참여를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달리오 회장은 "명상은 직장 문화에서 급진적인 진리이자 변화 그 자체"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와 '변화'의 힘이 지원을 성장하게 하고 기업 역시 동반 성장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더에게 명상은 월스트리트 '블루칩' 과도 같아

절규 현장에서 명상통한 침묵으로… 경영자는 물론 조직 안정 찾게 해

매년 '유쾌한 사원(official Jolly Good Fellow)'을 선출하고 있는 구글(Google)에서 근래 명상을 하는 직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014년 '유쾌한 사원' 토마스 캔턴(Thomas Kenton) 씨는 "명상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루기 힘든 사람이나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도 큰 힘이 되는데, 이 때문에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기업 문화에서 명상은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고 전제한 〈Forbes〉지는 "기업 문화 속에서 명상은 '집중' '침묵' '관계' '건강' 등의 아이콘으로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다"며 "명상은 △정글을 정원으로 만들고 △소통의 관계를 계발하고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정글을 정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친절과 연민으로 커뮤니티 프레임을 변화시켜 경쟁이 아닌 공생의 일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소통의 관계를 계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변 모두의 것에 마음을 열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명상은 통찰력을 키우고, 자신뿐만 아니라 기업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주변 모든 것과의 소통을 통해 통찰력을 키우고 결국 그 힘은 개개인에게 창의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마지막 '정신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은 과도한 경쟁 구도에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피할 수 없는데, 명상은 그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Forbes〉지는 리더십 전도사인 롭 에시가르(Rob Asghar) 작가의 말을 인용, "미국 사회 곳곳에서 명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1500만명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증가했고, 33개국의 250개 대학 혹은 연구소에서 1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수량적 변화만 놓고 보아도, 서양의 글로벌 리더들이 '명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2017년 모스크바에 첫 불교 사원 생겨

모스코바 두마 위원회 "내년 3월 첫 삽"



모스코바 첫 불교 사원에는 높이 5m 규모의 불상이 봉안되고 예불공간, 명상공간, 종교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러시아 정교회의 요람 모스코바에서 3년 후면 '아침 예불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불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모스코바 시민들을 설득하길 2년 남짓, 모스크바 두마(Duma) 위원회가 10월 30일 불교 사원 건립을 최종 허가했다.

〈Izvestia〉지는 "모스크바의 첫 불교 사원이 오는 2017일 완공을 목표로 2015년 3월 공사에 들어간다"며 "모스코바 시민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들어서는 불교 사원은 러시아의 종교 · 인종 다양성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도 '국민'으로서 보호와 지원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두마 위원회의 레나트 라이쉐프(Renat Laishev) 의장은 "두마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등에 이어 모스크바에도 불교 사원이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Izvestia〉지에 따르면 모스코바의 번화가인 오트레드노에(Otradnoe) 지역에서 2015년 3월 공사를 시작하는 불교 사원에는 높이 5m 규모의 불상이 봉안된다.

또한 예불 및 명상 공간은 물론 티베트의 전통 의술, 특히 침 시술을 할 수 있는 치유 공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투비니안(Tuvinian), 브리야트(Buryat) 등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모스코바에 공존하는 다른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선다.

한화 약 62억원 소요 예정

예불 · 명상 · 치유 공간 마련

레나트 라이쉐프(Renat Laishev) 의장은 "2억 5천만 루블(한화 약 62억 원)이 소요될 불교 사원 건립에는 모스크바 시 당국의 예산 지원과 기부금 모금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모스코바 시민의 찬반논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불교 사원 건립 계획'은 '불교 사원과 함께 종교문화 복합공간도 함께 건립하자는 두마 위원회의 복안으로 모스코바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오종욱 편집위원

노부부 미국서 노천법당 만들어 지역 불심 잡다

미시시피 파인빌 불상 봉안…10월 10일 첫 대중법회 열어



에디 라시니 씨가 파인빌 대로변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라시니 씨는 6년 전 이곳에 불상을 봉안하고 매일 두 차례 예불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이곳에서 파인빌 사상 첫 대중 법회가 봉행됐다.

미시시피 주 남부의 한 마을인 파인빌(Pineville)에서 베트남계 노부부의 노천 법당이 화제다.

〈Sun Herald〉지는 10월 28일 "베트남계 미국인 노부부의 노천 법당이 지역 주민의 이목을 잡고 있다"며 "에디 라시니(Eddy Lashney) 부부의 신행이 파인빌 지역의 불교 공통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파인빌 대로(大路)변에 인접한 집에서 살고 있는 에디 라시니 부부는 6년 전 파인빌 대로와 맞닿아 있는 자신 집 앞마당에 불상을 봉안하고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대로를 오가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관심을 보이는 주민도 생겨났다. 개중에는 불교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 앞마당에 불상을 모신 게 포교의 단초가 되었다"는 에디 라시니 씨는 "지금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려는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고 있다"며 "이제는 그들의 후원을 받아 부처님께 향과 꽃을 올린다"고 말했다.

〈Sun Herald〉지에 따르면, 라시니 부부의 부처님은 10월 10일 노천 법당과 인연을 맺은 지역 불자들의 후원으로 세라믹 타일로 단장된 불단에 봉안될 수 있었고, 이날 파인빌 사상 첫 대중 법회가 라시니 부부의 노천 법당에서 봉행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스님, 물 위를 어떻게 뛰어가나요?" 중국 푸젠성의 남 소림사의 스리량 스님이 수면 위를 뛰어다니는 전통무술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시나닷컴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 스님은 이날 수면에서 뛰어다니는 무술을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스님은 두 번의 예행연습 후 관람객들 앞에서 저수지 수면위에 띄워놓은 베니어합판 위를 맨발로 118m를 뛰었다.
스리량 스님은 물 위를 걷는 비결에 대해 "작은 보폭으로 빠르게 걷되 힘을 발 끝에 주고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전통무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돗자리 나무판을 수면에 두고 연습하다 지금은 얇은 베니어 합판을 놓고 수면에서 뛰고 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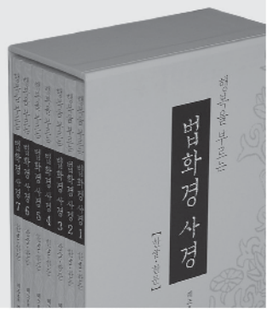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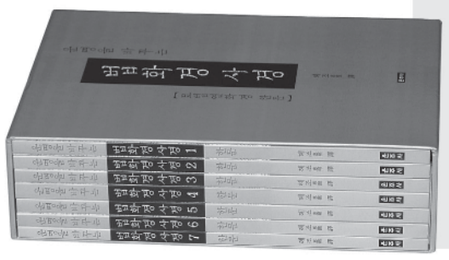
우리말 법화경 사경 (전5권)
혜조 역 /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940쪽 / 40,000원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전7권)
한문 원문 및 한글음 사경에 우리말 번역 수록
사륙배판 케이스 / 전체 1,760쪽 / 65,000원



운명을 바꾸는 한문 법화경 사경 (전7권)



사륙배판 케이스
전체 1,270쪽
55,000원

고급스럽게 꾸민 새로운 장정!
유려하고 현대적인 우리말 번역!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가죽〉
혜조 역 / 국판양장 / 금장 630쪽
가죽: 20,000원
가죽 · 지퍼: 25,000원



〈가죽 · 지퍼〉



독송용 한문 법화경
국판누박양장 / 금장 600쪽 /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내 삶의 전환점 대비주를 만나다!

一山 법상스님 구미 대비주 법회

일 시 ▌2014년 11월 9일(일) 오후 1시 20분 ~ 5시

장 소 ▌구미 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 TEL 054-454-6601/5)

내 용 ▌대비주 수행법문, 대비주 49독, 축원, 합동천도재

동 참 금 ▌1인 1만원, 설판재자 1인 35만원, 영가1위 35만원

차량운행 ▌일산 덕양선원에서 07:30 출발

문 의 ▌덕양선원 031. 907. 7172. /
구미 수행회 도연 010. 3531. 7500

구미 대비주 수행회

경기도 일산의 〈덕양선원〉을 본원으로 하고 구미/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대비주 수행의 전국화, 세계화〉에 앞장서고자 출범한 수행단체입니다.

대비주 수행도량 덕 양 선 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메리트원 BD 607호 (031.907.7172)
다음카페 http://cafe.daum.net/zeol



덕양선원 一山 법상스님은

2004년부터 시작된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금년 4월에 회향하고 2024년까지 새로운 10년 결사에 돌입,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시는 대비주 수행자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마다 치열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 대비주 수행 지도법사 (2005년 ~ 2013년 12월)
○ BTN불교TV '대비주 수행' 강설 (2012년 10월 ~ 2013년 10월)
○ 저서 :
- 다라니 수행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다라니의 힘 (일산 법상 지음 / 비움과소통 / 15,000원)
- 내 생애 단 한번 뿐인, 오늘 (수행예화집 / 10,000원)
- 대비주 수행의 힘 (덕양선원 엮음 / 12,800원)

○ 음반 CD : 신묘장구대다라니 음반 (10,000원)

마하연 투 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MAI ★ 미얀마 항공 취항 특가 ★

▶ 만달레이 / 바간/헤호 / 양곤 11월 18일 / 11월 25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불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봉행

세계최초 해상법당 반야용선 점안식 및 방생용왕대재



• 일시 : 2014년 11월 15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반야용선사 해상법당 반야용선

세계 최초의 지혜의 배, 반야용선을 조성해서 만 중생들의 소원성취를 이루어주고, 참된 지혜와 깨달음으로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피안(彼岸)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기 위함입니다.

반야용선(般若龍船)이란,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타는 배를 말합니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진리의 지혜)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法)을 통달하여 일체(형상)의 것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아미타불의 협시불인 관세음보살이 영가를 맞이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가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이르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반야용선(般若龍船)을 타야만 아미타불이 기다리는 극락(極樂)세계로 간다고 합니다. 서방극락정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야용선을 꼭 타야만 하기 때문에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타기를 원합니다.

운문사 비로전 천정을 보면 반야용선과 반야용선을 타려고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악착보살(불교경전에 나오는 보살의 이름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생에 기필코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악착같이 용맹 정진한다고 하여 악착보살이라고 하지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어느 옛날 청정하고 신앙심 깊은 이들을 서방의 극락정토로 인도해 가는 반야용선이 도착했을 때 이 용선을 타야 할 어떤 보살이 자식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로 그만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보살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선이 떠나가고 있었기에 보살은 용선의 밧줄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서방극락정토로 갔다고 합니다.





큰 지혜로써
피안(깨달음의 세계)의 세계로
반야용선이 이끄는 지혜의 배
피안으로 가는 자비의 손길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서방극락정토에
가세 가세
극락왕생 하세
부처님과 보살님과 함께 가세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가세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183번길 4 반야용선사
전화 055)862-9841 / 팩스 070-8677-9841
주지스님 010-6483-2565 / 이메일 banyaship@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용선사 주지 동운 합장

일제는 왜 아시아 불상에 집착했을까



북제시대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중국 불교조각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힌다.

국박, 특별전 '동양을 수집하다' 불비상·반가사유상 등 200여점 전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수집한 아시아 문화유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10월 28일~2015년 1월 11일까지 특별전 '동양을 수집하다–일제강점기 아시아 문화재의 수집과 전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창경궁 왕실박물관 이왕가 박물관 등이 수집한 2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는 불비상,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불교유물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동아시의 고대, 서역미술, 불교조각, 일본근대미술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불교조각'은 이왕가박물관이 소장했던 북위(北魏)시대 '불비상'과 북제시대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불교 유물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왕가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에서 개관했다. 개관 이전 준비 과정부터 진열품을 수집했는데, 그때부터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도 함께 구입했다. 이왕가박물관은 1911년 새로 지은 본관과 함께 명정전, 함인정 등 창경궁의 전각도 전시관으로 활용했다. 명정전에는 1916년 구입한 중국 불비상과 석굴암 모형을 함께 전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이태희 학예연구사는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에 비춰 불교미술을 문화 발전의 척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도식을 한국의 역사에 적용해 조선시대를 문화의 침체기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 속에 불상은 박물관의 주요 수집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북제시대(550~577)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중국 불교조각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힌다. 직사각형 대좌 중앙에 배치된 반가사유상은 살이 약간 오른 얼굴과 신체를 간결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표현했다. 양측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는 윗부분에 연결되어 아치형의 광배를 만들며, 나뭇잎은 투조 기법을 활용해 묘사했다.

대좌 가장자리에는 협시보살이 서 있고, 대좌 전면에는 향로를 중심으로 사자와 역사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동일한 유형의 상과 비교할 때, 보살의 보관, 옷주름, 사자, 향로 등의 세부 묘사가 생략된 모습을 보여 북제(550~577)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북위 529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비상도 눈길을 끈다. 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측에 협시보살이 서 있고, 그 사이에는 나한상이 얕은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얼굴과 손은 상대적으로 고부조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평평하게 표현되었다. 불상과 보살의 광배에는 음각으로 화염문을 표현했고, 광배와 광배 사이 공간에도 일부 명문을 새겨 넣었다. 이밖에도 투루판 베제클리크 석굴에서 발견된 천불도(6~7세기)와 아프가니스탄 핫다에서 출토된 불두(4세기 경) 등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사를 아시아 문화재의 수집과 전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시도다. 이는 당시 문화정책의 실상을 밝히고 20세기 전반 박물관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11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일본, 구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된다. (02)2077-90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비상도(북위 529년). 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측에 협시보살이 서 있고, 그 사이에는 나한상이 얕은 부조로 표현되었다.

"사찰 참배하고 미술작품도 감상하세요"

김영택 한점갤러리 개관전
12월 24일까지 26점 전시



통도사 앞 불교미술 전시공간 한정갤러리가 10월 25일 개원했다. 김영택 화백의 '통도사 극락암'.

통도사 인근에 불교 전시공간 한점갤러리가 개원, 첫 전시로 펜화가 김영택 화백의 작품을 전시한다. '펜화에 담은 한국의 명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통도사 극락암 등 김화백의 불교건축문화재 펜화작품 26점을 12월 24일까지 선보인다.

10월 25일 개관한 한점갤러리 민경미 관장(56)은 "스님들이나 불교미술가들이 전시 전용 공간 부족으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통도사 입구 50m 앞에 갤러리를 개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장은 총 80평 넓이로 전시장 40평, 관리실 20평에 보관 공간 20평 등을 갖추고 있다.

민 관장은 통도사 신도로 남편의 사업실패 후 통도사에서 기도를 하며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 '한점'의 의미는 한 점이 선을 이루고 입체를 이루어 불교문화가 일파만파처럼 퍼져나가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민 관장은 설명한다. "통도사가 너무 좋아서 통도사 신도로 오랫동안 절을 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시절 절 아래서 2년 동안 살면서 통도사 극락암을 오가며 기도를 했죠. 통도사는 풍광도 좋고 절도 좋은데 문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통도사를 오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좀더 풍성한 사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전시로는 김영택 화백의 펜화가 전시돼 눈길을 끈다. 민 관장은 평소 좋아하던 김 화백을 찾아가 전시를 의뢰했고 통도사와 인연이 깊은 김 화백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김영택 화백은 "2002년~2003년 통도사 캘린더 작업을 하며 1년 반 동안 숙식을 했죠. 한 스님께서 전생에 저를 통도사 불모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느새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관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점 갤러리는 선서화, 불상, 사진 전 등 다양한 불교작품을 선보여 통도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010-8138-3532 정혜숙 기자

'슈퍼맨' 송일국과 삼둥이, 템플스테이 도전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서 동자승 변신

'마성의 삼둥이' 대한 · 민국 · 만세가 조용하던 사찰을 들썩이게 했다. 10월 26일 전파를 탄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에서 송일국과 삼둥이 대한–민국–만세가 전등사 템플스테이 체험에 나섰다.

험난한 삼둥이 육아로 연일 땀 뻘뻘 흘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송일국은 그간의 피로를 한번에 날리듯, 환한 '부처미소'를 지었다.

강화 전등사서 체험 '화제'
삼둥이 오합지졸 절 동작 웃음



배우 송일국 씨와 삼둥이가 강화도 전등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가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기기묘묘한 표정의 대한–민국–만세. 당장이라도 장난기에 시동을 걸 듯한 민국이와 만세, 그리고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원샷 발우공양'을 선보일 기세의 대한이까지, 승복을 입었어도 여전히 개구쟁이인 삼둥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속을 들썩이게 만든 삼둥이의 템플스테이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되자 지도법사 스님의 손에 쥐어 있는 공포의 죽비에도 굴하지 않아 스님들을 당혹시켰다.

이어 스님의 구령에 맞춰, 동서남북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절을 하는 오합지졸 '꾸러기 동자승'들의 모습으로 스님들의 진땀을 뺐다.

그야말로 스님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한시도 조용할 새 없는 삼둥이의 모습에 송일국은 "저희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지만 저는 극락에 온 거 같아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정혜숙 기자

불자아이돌 순정소년 일본서 인기몰이



불자 아이돌 순정소년의 일본공연 장면.

불자아이돌 순정소년이 일본 상륙 6개월 만에 일본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함께' '결혼하는 날' 등이 실린 음반을 발매한 순정소년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상주하면서 주 4회씩 꾸준히 공연을 이어왔다.

순정소년을 이끌고 있는 아이티엔터테인먼트 박상현 대표는 "처음 공연장 문을 열었을 때는 관객이 8명이었다. 고민 끝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 매일 도쿄 한인타운으로 나가 전단지를 뿌리며 홍보를 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자 평일 200명, 주말에는 4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어 박대표는 "도쿄 신오쿠보에 위치한 공연장에는 우리 공연을 보기 위해 주말에는 입석까지 팔리고 있다"고 덧붙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은 다양한 불화 작업으로 불교미술의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곡사 괘불탱 작업에 매진 중이다.

"불화는 종교미술 아닌 예술작품"

문화人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

"사찰은 불국토를 형상화시킨 공간이죠. 법당 안팎의 그림들을 한 점 한 점 독립시켜 보면 그것이 곧 작품이 돼요. 이번에 모사한 미황사 부처님과 천불도 단청 등은 사찰에서만 볼 수 있던 불화들을 법당 밖 갤러리로 옮긴 셈이죠. 이번 전시로 일반인들이 불교미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수예 소장(42)은 '땅끝 미황사 큰부처님 서울에 나투시다' 전을 기획한 장본인이다. 불화가인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찰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높이 약 1170㎝, 폭 486㎝에 달하는 초대형 걸개그림인 '해남 미황사 괘불(보물 1342호)'을 완성해 대중에 공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황사의 천불도 25점, 포벽나한도 13점, 단청문양도 114점 등 총 153여 점을 모사해 11월 4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전시를 열었다.

이 소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금선사, 도국사, 흥국사 등 80여 사찰의 단청 및 불화 작업에도 참여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그간의 노하우를 응집해 사찰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고 사찰 미술 복원에 매진했다.

"기존 사찰 단청은 문화재수리 기술자나 보존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분야를 예술적으로 잘 복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화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찰문화재연구소를 개원해 사찰 단청을 복원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죠.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가 인정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미황사 단청과 벽화 복원이었고 미황사 괘불 모사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수예 소장은 불교미술이 사찰 밖으로 나와 대중과 친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남 미황사 괘불 모사도(부분)

20년동안 미황사·범어사 등 80여 사찰 불화·단청 작업 "불교미술 대중화에 매진하고파"

이 소장을 비롯한 불교미술 전공 연구원 9명은 3년여에 걸쳐 안료분석과 적외선 촬영, 디지털 현미경 촬영 등 과학적 조사방법을 토대로 원본의 재료, 형태, 도상 뿐 아니라 오염 박락 손상부분 등을 복원해냈다. 해풍에 깎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대웅전 안팎의 단청들까지 원형을 완벽하게 찾아내 조선 후기 단청과 벽화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사 작업이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명나라 도자기를 복원한 청나라 도자기가 현대에 와서 문화재로 인정받듯 모사 작품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문화재 보호와 불화의 대중화 측면에서도 모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1대 1 모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모사본을 공개하고 진품은 보관한다면 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시절, 입시미술을 준비하며 책자를 뒤적이다 불화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 불교미술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는 이수예 소장. 불모는 자신의 천직이라 여기며 불화 단청 등 수많은 작업에 참여해왔다. 5번의 개인전과 17번의 단체전을 가질 만큼 작품 창작에도 최선을 다해 왔던 그는 앞으로 법당 안의 작품을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에 진력할 계획이다.

"불교미술이 종교미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청 하나, 벽화 하나를 떼내면 그대로 훌륭한 미술품이죠. 절 안에 있으니 종교미술이라 하지만 절 밖으로 나오면 대중들의 눈길을 끌만한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불화가들이 앞으로 다양한 작업을 통해 불화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소장은 오는 12월 24일 범어사 단청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해 대중들을 찾아간다. "단청을 설치미술로 보여줄 생각이에요. 사찰 천정을 벽으로 내려 현대적 시각으로 재구성했다고 해야할까요? 많은 대중들이 이 전시를 통해 사찰 미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누워서 물결 소리 싫도록 들어볼까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㊸ 강화 보문사 (上)





우리나라 3대관음도량의 하나로 늘 기도객과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보문사.

이름 난 관음도량

강화 석모도 낙가산 보문사(普門寺)는 관음도량이다. 절의 배경을 이루는 산 이름 '낙가'는 중국의 관음성지 보타락가(補陀落迦)에서 다 온 것이며, 절 이름의 '보문'도 관세음보살의 넓고 큰 자비를 의미하는 말이다. 신라 선덕여왕 4년(635)에 회정(懷正) 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다가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산과 절 이름도 그렇게 붙였다고 전해 온다.

창건 이후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알리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창건이나 관음신앙과 관련한 여러 설화와 전설이 전해 온다. 그만큼 보문사는 오랜 절이고 관음도량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 졌다는 얘기다. 오늘날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홍련암과 더불어 3대 관음성지로 이름나 있다.

석굴법당과 눈썹바위 마애관음좌상이 보문사를 유명 기도처로 만든 주역이다. 석굴법당의 나한상 22좌는 635년에 인근의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눈썹바위의 마애관음좌상은 1928년에 조성되었다. 그 위치가 서해를 넓게 조망하는데, 특히 일몰광경이 장엄하게 펼쳐져 인기가 높다.

오늘날 이름난 관음도량으로 자리를 굳힌 보문사는 옛 선비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절이었다. 무엇보다 고려 말의 석선탄(釋禪坦 ?~?)스님은 시문에 능하고 거문고 연주도 탁월했으며 여러 선비들과 교류를 했다. 선탄 스님이 보문사에서 누군가의 시를 차운하여 칠언율시를 썼는데, 그 시가 〈동문선〉 제15권에 전한다. 제목은 '차보문사각상시운(次普門寺閣上詩韻)'으로 보문사 전각에 걸린 시를 차운해 쓴다는 뜻이다.

산석평생락학행(山石平生樂學行)
차헌영득십년정(此軒領得十年情)
우혼앵무주변초(雨昏鸚鵡洲邊草)
운권부용해상성(雲卷芙蓉海上城)
사안어등연외원(沙岸漁燈煙外遠)
월루인어야심청(月樓人語夜深淸)
약위장반강구거(若爲長伴江鷗去)
포청창파락침성(飽聽蒼波落枕聲)

평생에 울툭불툭한 산길을 다녔으니
이 절이 10년의 정을 담았구나.
앵무주 가의 풀에 비가 침침하고
바다 위의 부용성(신선이 사는 성)에
구름이 걷히었네.
모래톱 어선의 등은 연기 밖에 멀리 뵈고
달 비친 다락 사람의 말소리는
밤 깊어 고요하네.
어쩌면 노상 갈매기를 짝하고
누워서 물결 소리를 싫도록 들어볼까.

스님의 시답게 차분하다. 만행을 하다가 들른 보문사의 풍경이 '10년의 정'으로 다가오는데, 푸른 수풀과 바다 안개가 조화를 이루고 멀리 빛으로 보이는 어선과 누각의 사람 말소리는 고요 속에 잠기고 있다. 그러한 고요 속이란 다름 아닌 선정의 삼매일 것이다. 구도자에게 그러한 삼매야말로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갈매기를 짝하며 물결소리 듣는 한가한 경지의 사람, 무위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보문사'라는 제목의 이 시는 고려 고종 때의 문신 이수(李需 1214~1259)의 시다. 〈동문선〉 제18권에 전하는 칠언배율인데, 시 전체는 40행에 이르는 장시다. 시의 내용은 관세음보살의 덕을 칭송 찬탄하고, 관음도량 보문사의 정취를 담아 더욱 장엄하고 아름다운 맛을 낸다. 거기에 신심 깊은 불자들이 불공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그 복덕이 영원하길 비는 근엄한 정서로 마무리 짓는다.

긴 시로 읊은 자비와 지혜

같은 시대의 문신 이장용(李藏用 1201~1272)도 이수의 시를 차운하여 40행의 칠언배율을 썼다. 제목이 '이수의 보문사 시를 차운하여(次李需普門寺詩韻)'이다. 이장용의 시 역시 〈동문선〉 제 18권에 전하는데, 앞의 한 대목을 보자.

해상천운선로통(海上穿雲線路通)
옥호광투수정궁(玉毫光透水精宮)
안전렴염유리벽(眼前瀲灩瑠璃碧)
설상분명함담홍(舌上分明含啗紅)
정대장엄무량수(頂戴莊嚴無量壽)
수회마무선재동(手回摩撫善財童)
회선감발수창옥(回旋紺髮垂蒼玉)
엄영원광요채홍(掩映圓光繞彩虹)

바다 위에 구름을 뚫어
외줄 길이 통한 곳에
미간의 옥호광이
수정궁(강화(江華)의 바다)을 꿰뚫네.
눈앞엔 넘실넘실 새파란 유리판
혀끝엔 분명히 붉고 붉은 연꽃.
머리 위엔 장엄한 무량수를 이었고
손을 돌려 선재동자 쓸고 어루만지네.
곱슬곱슬 파란 머리털 푸른 옥 드리운 듯
비치는 원광은 오색 무지개 두른 듯.

절단창명일위통(截斷滄溟一葦通)
오운심처범왕궁(五雲深處梵王宮)
부림옥경징징벽(俯臨玉鏡澄澄碧)
선읍금륜섬섬홍(先泣金輪閃閃紅)
광객여금무하로(狂客如今無賀老)
고승자고유천동(高僧自古有天童)
지령홀작비미우(地靈忽作 微雨)
곡밀시성경각홍(谷密時成頃刻虹)

창해를 썩 갈라 쪽배가 통하는 곳
오색 구름 깊은 속에 절이 우뚝 솟았네.
굽어보니 옥 거울이 맑디맑게 푸르고
먼저 솟은 금 바퀴는 번쩍번쩍 붉은 빛.
광객으론 지금 세상에 하로 같은 이 없어도
고승은 예로부터 천동이 있네.
지령이 문득 가랑비를 보내는데
골짜기 깊숙하니 무지개가 금시 뻗네.

이 시는 관음도량 보문사의 풍광을 묘사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위덕에 귀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심과 원력을 노래하고 있다. '하로'는 당나라 초기의 시인 하지장(賀知章 677~744)을 말한다. 그는 말년에 사명산(四明山)에 살며 스스로 '사명광객(四明狂客)'이라 칭했다. '촌동'은 중국 진나라의 고사에 의한 것으로 아주 길한 절터, 여기서는 보문사를 뜻한다.



지혜의 보고 佛書



〈솔바람 물결소리〉와 〈연꽃을 피운 돌〉의 옛 표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2 ~ 10/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4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5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6	리셋	월호	마음의숲
7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11일간의 특별한 수업	아신 빤딧짜	법승담마야나
10	죽창수필	운서주굉	불광출판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솔바람 물결소리 · 연꽃을 피운 돌

남지심 지음 | 얘기꾼 펴냄 | 각권 1만3천5백원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71)이 35년 전에 출간했던 소설 〈솔바람 물결소리〉와 2년 뒤 속편으로 출간한 〈연꽃을 피운 돌〉을 재출간했다. 198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공모 당선작품인 〈솔바람 물결소리〉는 43쇄를 냈을 만큼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솔바람 물결소리〉

"30대 후반에 썼던 책을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내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놓아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 작가로서의 양심이다. 진실한 만남, 진실한 사랑은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늘 지고의 가치라고 믿고 있어서이다. 〈솔바람 물결소리〉가 다시 한 번 잔잔한 물결이 되어 독자들 가슴속으로 스며들기를 순일(純一)한 마음으로 기원 드린다." 저자는 재출간의 취지를 책의 서문에서 밝혔다.

한 여인이 이룰 수 없는 사랑 앓으며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 그려
애쓰지 않은 '깊이', 꾸밈없는 단단함

〈솔바람 물결소리〉는 저자의 첫 소설이다. 이대 사회생활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았던 저자는 소설가를 꿈꾼 적이 없는 소설가다. 그가 학교를 그만 두고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말(言)이 하고 싶어서' 였다. '진정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였다. 그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내면의 문제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소설은 초등학교 6학년 딸 자운을 홀로 남겨두고 폐암으로 죽은 미망인 강기혜(강 선생)가 죽기 전 3개월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한 원고를 자운과 제자 혜강이 읽어가는 형식이며, 그 원고의 내용이 소설을 이룬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홀로 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인 강기혜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자운이와 함께 살고 있다. 아빠의 부재로 인한 자운이의 그늘을 바라봐야 하는 강 선생은 늘 가슴 한 구석이 아프다. 1학년 담임을 맡게 된 강 선생은 제자 혜강을 만나게 된다. 어려서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솔 스님 손에 자란 혜강은 담임 선생님인 강 선생의 따뜻함으로 인해 삶의 힘을 얻게 된다. 강 선생은 다솔 스님을 만나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겪게 된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불법과 가까워지고, 잊고 살았던 사랑을 다시 하게 된다. 그리고 느닷없이 다가온 죽음이 또 한 번 그녀의 삶을 흔든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삶은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소설은 인연과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근원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설은 묻는다. '산다는 것'에 대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나뭇가지 사이로 연등사에 이르는 길이 가늘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오솔길을 올라오고 있는 다솔 스님의 모습도 보였다. 오솔길을 걷고 있는 다솔 스님의 모습도 쓸쓸해 보였다. 모두가 혼자다. 혼자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죽음을 앞둔 한 여인이 죽음 앞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이 소설 〈솔바람 물결소리〉의 모습이다.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35년 만에 재출간 된 소설 〈솔바람 물결소리〉는 수채화 같은 소설이다. '깊이'를 위해 굳이 애쓰지 않았고, 비평의 붓을 염두에 두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도 깊고, 단단하다. 또한 법당의 향내음처럼 은은하게 불법이 배어있는 소설은 저자가 재출간의 취지에서 밝혔듯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음이 힘이다.

저자는 35년 전 〈솔바람 물결소리〉를 탈고하고 나서 1200 장의 원고 뭉치를 들고 조계사를 찾는다. 부처님 앞에 원고를 놓고 108배를 올리며 서원했다. "부처님 말씀 전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작가는 2년 뒤 〈솔바람 물결소리〉의 속편인 〈연꽃을 피운 돌〉을 출간한다.



〈솔바람~〉과 〈연꽃을~〉 재출간
작가,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소설 시작
"세월과 상관없는 지고의 가치
다시 한 번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첫 탈고 후 부처님께 108배 서원
"부처님 알리는 글 쓰겠습니다"

〈연꽃을 피운 돌〉

"〈솔바람 물결소리〉에서 주인공 강기혜가 죽자. 그녀에 의지해 살았던 세 아이들인 강기혜의 딸 자운이, 강기혜의 제자 혜강 스님, 강기혜 집에 가정부 아들로 들어와 성장한 덕이가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솔바람 물결소리〉의 속편 〈연꽃을 피운 돌〉은 그렇게 태어났다. 속편 역시 39쇄를 낼 만큼 전편의 많은 관심을 이어갔다. 저자는 전편의 그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끌어안고 싶은 열망으로 후편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자는 전편의 소설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것은 주인공 자운이가 다솔 스님을 사랑했던 엄마처럼 혜강 스님을 사랑하고 있어서였다. 저자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당혹감 때문에 쓰던 원고를 밀어 놓고 얼마간 지냈다. 그러나 세 아이들이 펼쳐 보이는 삶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저자는 밀어놓았던 원고를 다시 끌어안았다. 〈연꽃을 피운 돌〉은 강 선생의 딸 자운과 전편에서 출가한 혜강 스님의 또 한 편의 사랑이 소설의 큰 이야기를 이룬다. 전편의 강 선생이 살다간 울타리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삶의 인연들이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전편에 남은 '세 아이들'이 집필 동기
절절한 사랑, 진지한 삶 설법처럼 흘러
아픈 사랑 결론 못내 독자에게 물어

자운은 신문사 기자가 되었고, 혜강은 스님 신분으로 의사가 되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혜강 스님과 자운이 만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양지와 음지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청솔마을 사람들. 청솔마을을 꽃밭으로 만든 덕이. 청솔마을 최씨의 딸 용희. 혜강 스님의 도반 동광 스님. 강 선생과 다솔 스님이 남긴 삶의 궤적은 그들로 인해 계속된다. 자운과 혜강은 힘겹고 아픈 사랑을, 한시도 태만할 수 없는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다. 〈연꽃을 피운 돌〉에서도 전편에서처럼 법내음이 난다. 아니 더욱 물씬 풍긴다. 의사이기 이전에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철저한 혜강 스님. 누구보다 아픔과 가까웠던 자운. 그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과 빈틈없는 삶이 빚는 언어와 눈빛들이 뜻 있는 문장으로 다가온다.

"홍련암에 가서 기도를 해볼까? 그럼 어쩌면 내 앞에 열려 있는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 혜강 스님 앞에 열려 있는 길이 무문관이라면, 그럼 내 앞에 열려 있는 길은…?" 소설은 막을 내린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마침표가 없다. 저자는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다.

"〈솔바람 물결소리〉를 쓴 후 세 아이의 생을 정리해 주고 싶어 속편 〈연꽃을 피운 돌〉을 썼는데, 막상 쓰고 나니 숙제를 정리한 게 아니라 가슴 속에 또 다른 숙제가 남았다. 이 숙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할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만 아릴 뿐 그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연꽃을 피운 돌〉의 원고를 탈고한 저자는 다시 한 번 가슴속에서 통증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자운과 혜강 스님의 사랑이 너무 애절해서였다. 저자는 이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연을 정리하게 하는 것인지 작가는 답을 내릴 수 없다. 저자는 독자에게 묻는다. "자운과 혜강 스님의 애절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한 생을 살게 해서 인연의 고리를 풀게 할까요?" 저자는 묻는다.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30년만에 다시 밀려오는 감동
– 남지심 작 〈솔바람 물결소리〉를 다시 읽고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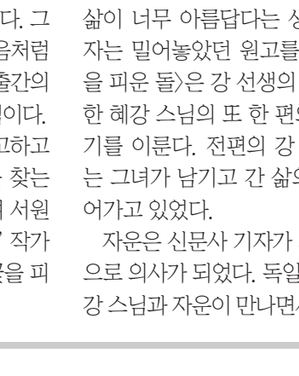


남지심 작 소설 〈솔바람 물결소리〉가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왔다. 반갑고 기쁜 일이다. 198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 당선작이었으니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 새 모습으로 부활한 셈이 아닌가? 감격스러운 일이다.

내가 새로 나온 이 소설을 이처럼 반기는 것은 내가 이 소설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30여 년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오는 어느 교포 신문에 연재되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이 소설이 그 당시 캐나다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던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이 소설에 은은히 배어 나오는 불교 정신은 내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설명해주는 불교 내용보다 더욱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불교에 관심이 있는 서양 학생들이나 한국인 2세들이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간 신문이라 한 주일에 한 꼭지씩 연재되어 나오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신문이 배달되어 올 때마다 그때그때 번역하다가 어느 새 책 전체를 다 번역하게 되었다. 완성된 원고를 내가 가르치던 몇몇 학생들, 친구들, 내 아들에게 읽어보게 했다.

1986년 가을 교수들이 6년 가르치고 1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안식년을 맞아 서울에서 가르치기로 하고 귀국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한국일보〉 자매지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를 보는데, '한국현대문학번역' 응모에 관한 광고가 나왔다. 그 때 5.25 인치 커다랗고 얇은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온 번역물을 프린트해서 코리아 타임즈사로 보냈다. 그해 11월 초 제17회 현대문학 영문번역 장편소설 부문에서 당선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 지금도 그 때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그리고 번역된 것을 고치고 또 고치면서 느낀 감동과 여운을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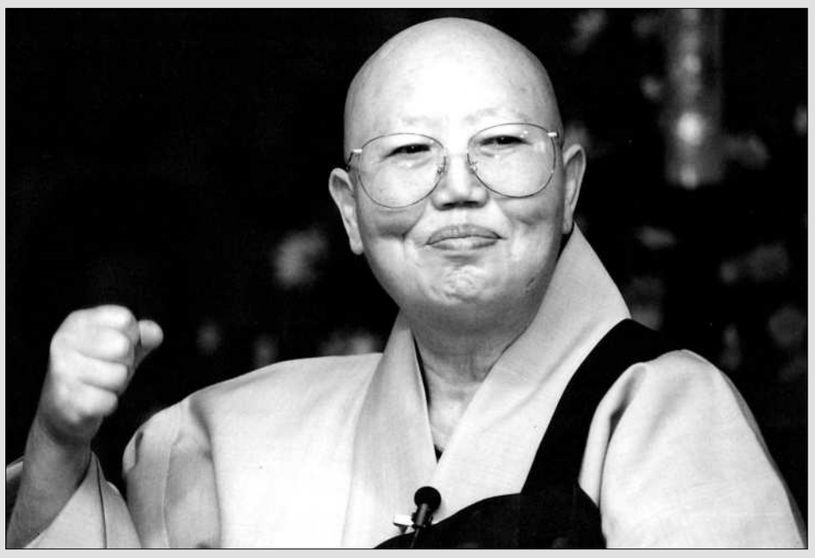
주인공 강기혜(姜基惠) 선생님과 그의 딸 자운이, 다솔 스님, 강 선생님의 제자이자 다솔 스님이 키운 혜강이, 강 선생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덕이네와 그 아들 덕이, 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그려내는 아름답고 진솔한 이야기 장면 하나 하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머리 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을 정도다. 새로 나온 책을 펴 보았다. 전보다 아름다운 표지와 시원시원한 행간이 읽기에 더욱 편해졌다. 지금 읽어도 역시 감동이다. 아니 30년이 지나고 읽으니 장면마다 더욱 숙연하게 다가옴을 느끼게 된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전에 읽었던 독자들이나 새롭게 이 책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주는 잔잔한 감동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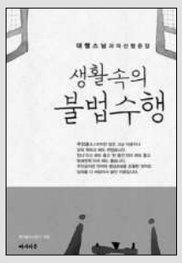
원각경요해
圓覺經了解
화제의 신간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NAVER "수풀림 숯침대"을 쳐보세요
수풀림 supullim charcoal heating pad
숯온열뜸찜기
"국내 최초 식품첨가물 대나무숯 사용"
대나무숯 • 참숯의
신비로운 뜸질효과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숯을 원형 그대로 넣은 특허공법 제작
■ 전자파 차단용 동섬유 원단사용
■ 매립형 코드 사용 신제품
■ 전기요금 절약 (소비전력 60W)
■ 여성 좌욕 효과, 뜸질효과

제품 : 41cm(지름)
숯의 7가지 건강 효과
원적외선 음이온 항균 수분흡착 수질정화 냄새제거 전자파차폐 피부보호
100점 한정판매
정가 200,000원 → 120,000원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주인공 관법으로 근본 뿌리 ‘불성’ 밝혀라”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 엮음
여시아문 펴냄 | 1만 5500원

지난 2012년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장 대행 큰 스님은 평소 이같은 생활법문을 많이 하셨다. 이 주옥같은 법문들은 삶의 위기때마다 불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불법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를 생활의 법으로 만들려는 대행 스님의 큰 뜻은 현대불교신문 창간으로 이어지며 지금도 유지가 받들어 지고 있다. 〈생활 속의 불법 수행〉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서부터 제143호까지 신문 지상에 인기리에 연재된 ‘길을 묻는 이에게’ 를 주제별로 정리해 묶은 故 대행 큰 스님(한마음선원장)과의 신행 및 수행 문답집이다. 총 380여개의 항목이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의 실제적 저자인 대행 큰스님은 ‘대행(大行)’ 이란 법호가 웅변하듯이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 로 일컬어지며 한국불교의 현대화, 세계화, 생활화에 지대한 공적을 남긴 조계종의 대표적인 비구니 선지식(善知識)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 종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우리들의 일상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과 수없이 생겨났다 없어지는 고통스런 의문들을 대행 큰스님께 묻고, 그에 대한 스님의 선(禪)적인 답변을 실어놓았다. 그래서 이 책은 학식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어느 누가 읽어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생활 참선 지침서이다.

책 속에는 대행 스님이 평소 강조했던 ‘주인공 관법(主人空 觀法)’ 에 대한 설명도 나온다. 스님은 “좋은 일, 나쁜 일, 어렵고 힘든 일, 아프고 괴로운 일 등 일체를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주인공은 무엇이며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주인공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라 꽃피우듯이 사람이 생겨나게 된 근본 마음,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 성품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나무가 뿌리를 믿고 자라듯이 일체를 자기의 근본인 주인공 자리에서 다 한다고 믿고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주인공 관법입니다.”라고 말한다.

대행 큰스님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면서 좋은 일은 감사하게 놓고, 좋지 않은 일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서 놓는 생활 속의 주인공 관법으로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을 밝히고, 나와 남이 다 이롭게 되는 공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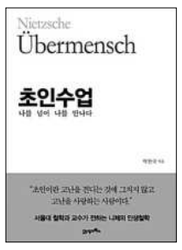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은 이 법어집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물론,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해탈하는 대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Q: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왜 이리 고단할까?
A: 고통 없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맞서라

초인수업

박찬국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1만5천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한 때는 이에 대한 답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려는 ‘힐링’ 서가 유행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던 19세기 철학자 니체에게 인생의 고

민을 물어본다면 니체는 어떤 말을 해줄까?

니체가 살던 19세기는 종교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전통 형이상학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인생 자체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기며 좌절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을 했다. 그것이 허무주의와 니힐리즘에 빠진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가치, 행복, 욕망, 운명, 경쟁, 종교 등 명쾌한 해설

이때 니체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위험하게 살아라” “너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하기를 바라라”라고 외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위로와 동정을 바라는 연약한 정신이 아니라 자신의 고양과 강화를 위해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요구하는 ‘초인(超人)’ 의 정신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번에 출간된 〈초인수업〉은 우리가 살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10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니체의 대답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인 서울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니체 철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인생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라고 푸념하는 우리에게 니체는 “안락한 삶을 경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여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가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근성 때문이라고 니체는 충고한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니체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초인의 이상이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필요한 일을 견디며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까지도 자기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일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도처에서 살벌한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혁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니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책

히말라야를 넘어 자유를 찾아



닉 그레이 등 지음 | 박미낭 옮김 | 파라주니어 펴냄 | 9800원

이 책은 텐진이 형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그린 실화 소설이다. 티베트서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임시정부를 찾아가는 길은 11살의 텐진에게도, 19살의 형에게도 목숨을 건 모험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티베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와 새로운 삶이 히말라야 너머에 있기 때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낯설지만 가까운 티베트에 대해 알게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용기, 그리고 세계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원각경요해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펴냄 | 3만3천원

구경성불 깨달음 과정과 지혜점검, 대승, 일승, 불승 보살과 불지(佛智)의 깨달음 각성세계를 밝혀, 구경성불의 밀밀한 수행과 점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의 차별각성을 드러내어, 대승, 일승, 불승의 각성지혜의 관계성을 밝힘으로, 구경수행관점에서 경에 대한 안목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깨달았어도 구경 불지혜를 향함에는 깨달음 경계도 또한, 타파해 벗어나야 하는, 각성지혜세계를 자상히 밝혔다. 원문을 수록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신행의 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관세음보살이 되는 천수경



양지 역저 | 맑은소리 맑은 나라 펴냄 | 1만5천원

‘천수경’ 은 이름에서 보듯이 ‘천수경’ 은 관세음보살의 사상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천 개의 손과 눈이 필요한 것이다. 어찌 천개의 손과 눈뿐일까? 천만억의 손과 눈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즉 천 개의 손과 눈이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수경’ 공부는 교리적인 면보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그 또한 축복이어라



한계주 지음 | 에세이문학 펴냄 | 1만3천원

저자는 수필가이자 시인이다. 이미 여러 권의 수필집과 시집을 상재했다. 이번 책에는 최근에 쓴 수필과 평론, 기행수필 등을 수록했다. 팔순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비평과 저자의 농밀한 어휘력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인간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함께 저자의 작품 세계를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불교적 사유이다. 불가에서 인생은 깨어나야 할 환(幻)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불교 철학은 그의 문학 귀착점이다.”는 평론가의 말이 아니라도 저자의 글들은 ‘한 자루의 붓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대신해주기를 간절히 염원’ 하고 있다.

도올만화 논어4



도올 역주 | 통나무 펴냄 | 1만 2900원

총 5권으로 〈만화논어〉의 완성을 목표로 진행되는 〈도올 만화논어〉 제 4권이 출간됐다.

〈도올 만화논어〉는 〈논어〉 499장 전체를 한 구절도 빠짐없이 만화 책 5권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화사한 파스텔톤의 예쁜 그림과 격조 있는 위트가 돋보이는 만화에 한문의 원문이 한글독음과 함께 모두 실려 있고, 낱낱이 번역됐다. 4권에서는 〈논어〉 20개 편 중 다섯 편인 술이, 태백, 자한, 향당, 선진편이 실려 있다.

이 책의 탁월성은 〈논어〉에 대한 역대 중요한 주석을 모두 망라해 21세기 현대에 가장 알맞게 풀이했다는 점이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佛·儒·仙의 처세·수양 요지를 담다

불교로 읽는 古典

홍자성의 〈채근담〉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문학평론가

'채근담' 은 중국 명(明) 말기인 만력(萬曆) 연간(神宗47년, 1619년)에 홍자성(洪自誠)이 쓴 짧은 격언 모음집이다. 명나라 때 처세의 비결을 담은 뛰어난 3대 걸작인 '처세3대기서' (진계유의 〈소창유기〉, 왕영빈의 〈원로야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명나라 말기에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난세였다. 난국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세의 기술이 중요하여 지혜의 격언을 담은 지침서가 필요하였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채근담' 이 많이 유통 유행할 때는 전쟁 중인 난세였다.

'중문대사전' 에 장개석(蔣介石)이 〈채근담〉을 극찬하며 세상에 널리 펴도록 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모택동(毛澤東)도 〈채근담〉을 항상 곁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하는 애독서로 삼았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전쟁 중인 1910년 무렵부터 〈채근담〉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책들이 간행되었다. 야마다 다카미치(山田孝道)의 〈채근담 강의〉가 발행되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샤쿠 쇼엔(釋宗演)의 〈채근담 강화〉는 1926년 초판을 찍은 후 45쇄를 찍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해 한용운이 최초로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정선강의 채근담〉이다. 1917년 신문관에서 발행하였는데 몇 달 만에 매진이 되고, 1921년 동양서원에서 재판을 냈다. 한용운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청년의 정신력을 진작시키고 인격을 닦는 수양서로 〈채근담〉을 선택한 것이다. 그 밖에 조지훈은 1962년 현암사에서 '채근담' 을 역주하여 간행하였다.

'채근담' 이 불교적인 이유

홍자성은 〈채근담〉과 〈선불기종(仙佛奇踪)〉의 저자로서 이름은 응명(應明), 자(字)는 자성(自誠), 호는 환초도인(還初道人)이다. 명나라 신종(神宗) 만력(萬曆) 연간에 두 저서를 남긴 사람이나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다만 〈채근담〉에서 스스로 "나는 석씨(불교)의 인연을 따르고, 유가를 근본으로 한다."고 밝힌 내용이 있어, 유가인으로 불교와 도교에 정통한 재야 사상가로 볼 수 있다. '채근담' 과 '선불기종' 의 내용이 불교와 도교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융해되어 있어 그의 사상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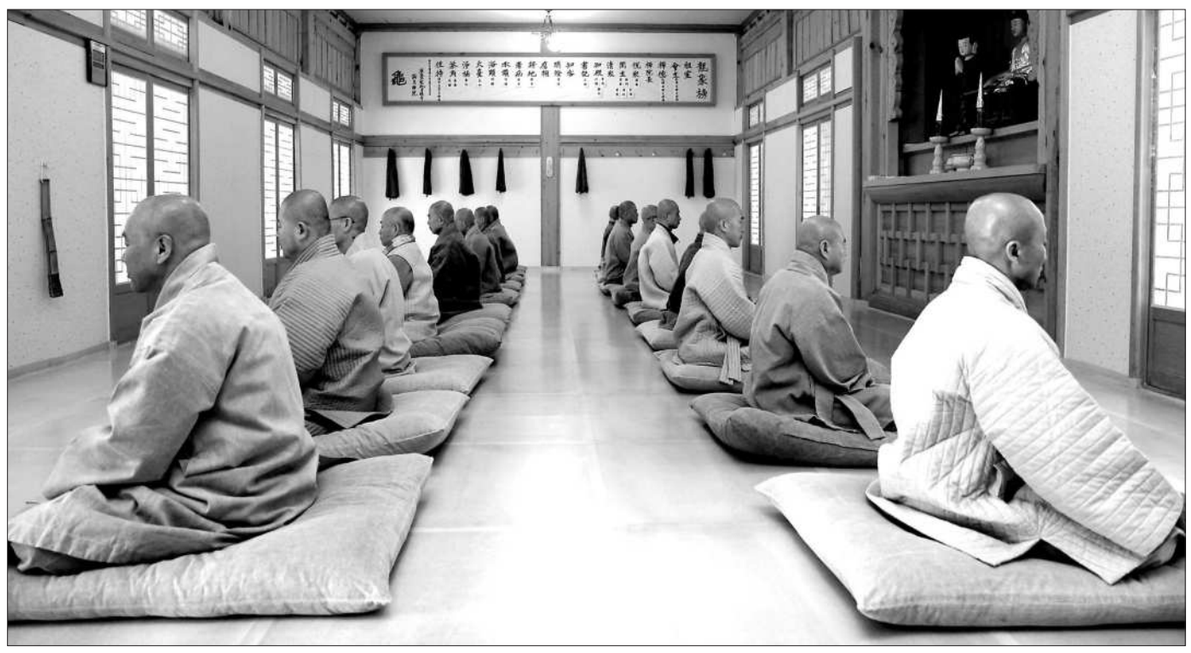
〈채근담〉의 명각본(明刻本) 제사(題辭)를 쓴 친구 우공견(于孔兼)이 글에서 "나의 친구 홍자성이 〈채근담〉을 나에게 보이면서 서문을 부탁하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홍자성이 우공겸과 함께 명대 신종 만력시기에 함께 생존한 무명의 사상가임을 알 수 있다. 우공겸은 '명사(明史)' 에 수록된 인물로 만력 8년(1580년)에 과거에 급제한 인물이다.

〈선불기종〉은 만력 임인년(1602년)에 완성되었다. 이는 '사고전서총목제요' 에 수록된 책으로 도교의 노자(老子)부터 위백양(魏伯陽)까지 46인과 인도불교의 석가모니부터 학륵나(鶴勒那) 등 17인, 그리고 중국 선종의 달마대사부터 법명화상까지 37인 기타 10인 등 모두 110명의 전기(傳記)를 그림과 함께 저술한 전기체 저술이다. 이로써 홍자성이 불교 선학에 조예가 깊은 유행불심(儒行佛心)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채근담〉은 크게 두 종의 판본이 있다. 원본인 만력본(홍자성본, 명각본, 略本, 1619년)과 건륭본(홍응명본, 廣本, 1794년)이다. 두 본의 구성과 내용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 작자가 서로 다른 이명(異名)일 수 있다는 혼란이 있어 왔으나, '홍응명찬' 으로 알려진 '선불기종' 에 "홍응명이 지었고, 홍응명의 자는 자성이고, 호는 환초도인인데 사는 곳과 출신은 자세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 홍응명과 홍자성이 동일 인물임이 밝혀졌다.

만력본은 우공겸의 제사가 붙어있는 판본인데, 건륭본은 우공겸의 제사가 삭제되었다. 이 때문에 건륭본의 편찬자가 승려라는 설이 있다. 환초당주인의 식어에 "예전에(만력본) 서문이 있었으나 순리에 맞지 않고, 또 이 책과 관련이 없는 말이므로 빼버렸다."는 내용이 있다. 우공겸의 제사에 "축건(竺乾: 불교)의 업(業)을 행하는 이가 있으면 배척한다."는 척불(斥佛)의 내용이 편찬자의 비위에 거슬렸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력본은 책의 구성이 항목을 표시하지 않고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분류하였다. 장수(章數)가 360장(약본)이 못된다. 이에 반해 건륭본은 책의 목차를 수성(修省)·응수(應酬)·평의(評議)·한적(閑寂)·개론(槪論)의 5부분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부분인 '개론' 에 만력본의 내용 대부분이 수록되었다. 장수는 544장(광본)으로 추가 증보되었다. 건륭본은 승려 내림(來琳)이 편찬한 내림본과 같다. 따라서 건륭본의 편찬자를 내림일거라는 내림설이 있고, 환초당주인도 내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월정사 만월선원에서 정진 중인 수좌 스님들. 선에 조예가 깊었던 중국 명나라 시대에 홍자성은 불교와 유교 등 동양사상의 명구들을 모아 〈채근담〉이라는 수상집을 썼다.

明代 홍자성이 쓴 격언집 '채근담'
난세에 인기 모으는 처세술 명저
韓 최초 해설서 저자는 만해 스님

판본 유통·판각, 사찰서 주로 진행
저자, 禪 조예 깊어… 불교사상 담아
'不染着水' 보살같은 군자상 그려

한용운 스님의 〈정선강의 채근담〉의 저본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일본유전본인 만력본이 아니라, 내림본(건륭본, 광본)이다. 불가(佛家)의 입지에서 내림의 의취(意趣)와 통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는 중국유전본(中國流傳本)은 청나라 동치(同治) 을축년(1865년)에 보광사(寶光寺)에서 판각한 판본 계통이다. 그러나 이 '보광사본' 의 원본은 청나라 건륭40년 제원(際願)의 서문이 있는 양주각본이다. 만력본(명각본) 전집·후집과 보광사본의 권상만 합하면 '채근담' 전체 544장이 모두 갖추어진다.

동양사상 名句 담아낸 '채근담'

〈채근담〉은 유불선 삼교를 융합한 정신수양서이며 처세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홍자성의 종교는 유교이다. 〈채근담〉의 이상적 인물은 군자이다. 그러나 정통 유가에서 말하는 군자상, 즉 입신양명하여 관직에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군자가 아니다.

〈채근담〉에서 "권세와 명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나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 깨끗하다"고 한 바와 같이 더러운 연못 속에서 머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불염착수(不染着水)하는 불교의 보살과 같은 군자상이다.

홍자성은 〈채근담(만력본)〉 첫 번째 잠언에서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붙어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고 하였다. 작자의 자화상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다. 그는 권력에 아부하고 빌붙는 선비를 낮게 보았다. 그가 바라는 군자상은 세련되고 능숙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세속에 초탈하여 호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채근담' 의 채근(菜根)은 '나무뿌리' 라는 뜻이며, 담(譚)은 '이야기' 를 뜻한다. 홍자성이 책이름을 정할 때 '소학' 에 "사람이 나무뿌리를 항상 먹을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한 의미를 가지고 결정하였을 수도 있겠다. 본문의 "보리밥에 콩나물국만 차린 간소한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놓으면 입안이 향기롭다."고 한 내용이 책의 이름에 걸맞다.

〈채근담〉은 처세 방법과 정신수양에 대하여 유불선의 경전에 나오는 명구를 바탕으로 자신이 체험한 세계를 가벼운 수상 형식으로 기술한 책이다. 대구를 통한 명쾌한 표현과 촌철살인적인 잠언은 이 책의 장점이다. 예컨대 "더러운 땅에는 많은 식물이 자라나고 맑은 물에는 항상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가져야지 깨끗함을 좋아하여 홀로 행동하는 지조만 가져서는 안 된다" 등이다. 홀로 행동하는 지조는 위태롭다. 독선이다. 자신의 빛을 죽여 화광동진(和光同塵)하여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채근담' 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학술적인 책이 아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를 나열하며, 소극적인 현실안주의 모습도 눈에 뛴다. 예를 들면 "부귀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욕심을 내는 것이 사나운 불길 같고 권세를 좋아함이 매서운 불꽃 같으니, 만일 이러한 사람이 청량하고 냉철한 정취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 불길이 남을 태우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태워 자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부자들에 대한 편협한 작자의 선입견을 술회한 것이다.

불교로 보는 '채근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자성은 불교와 선사상에 정통해 있었다. 따라서 '채근담' 에는 불교교리나 선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 자주 나온다. 모든 중생에게 착한 자비심과 불성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자비심을 가지고 있으니, 유마거사나 백정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 유마거사나 소를 잡아 죽이는 잔인한 백정이나 본심은 자비심과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고약하여 자비심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살인마 앙굴리말라는 살생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성자가 되었다. 백정에게도 불성과 자비심이 있다는 증거이다.

마음이 한 덩어리의 맑은 구슬임을 설한 내용이 있다. "마음은 맑은 구슬이므로 물욕으로 마음을 막고 가리는 것은 맑은 구슬을 진흙과 모래에 섞는 것과 같아서 씻어내기가 오히려 쉽다. 그러나 감정과 그릇된 인식으로 마음을 덮어 가리면 맑은 구슬에 금은을 입히는 것과 같아서 씻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마음은 투명한 구슬과 같다. 붉은 색깔이 비추면 붉은 구슬이 되고, 푸른 색갈이 비추면 푸른 구슬이 된다. 더러움을 정화시키는 수청주(水淸珠)요,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여의명주이다. 이 마음구슬이 오염되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다. 물욕보다도 잘못된 감정이나 인식에 오염되면 회복되기가 더 어렵다고 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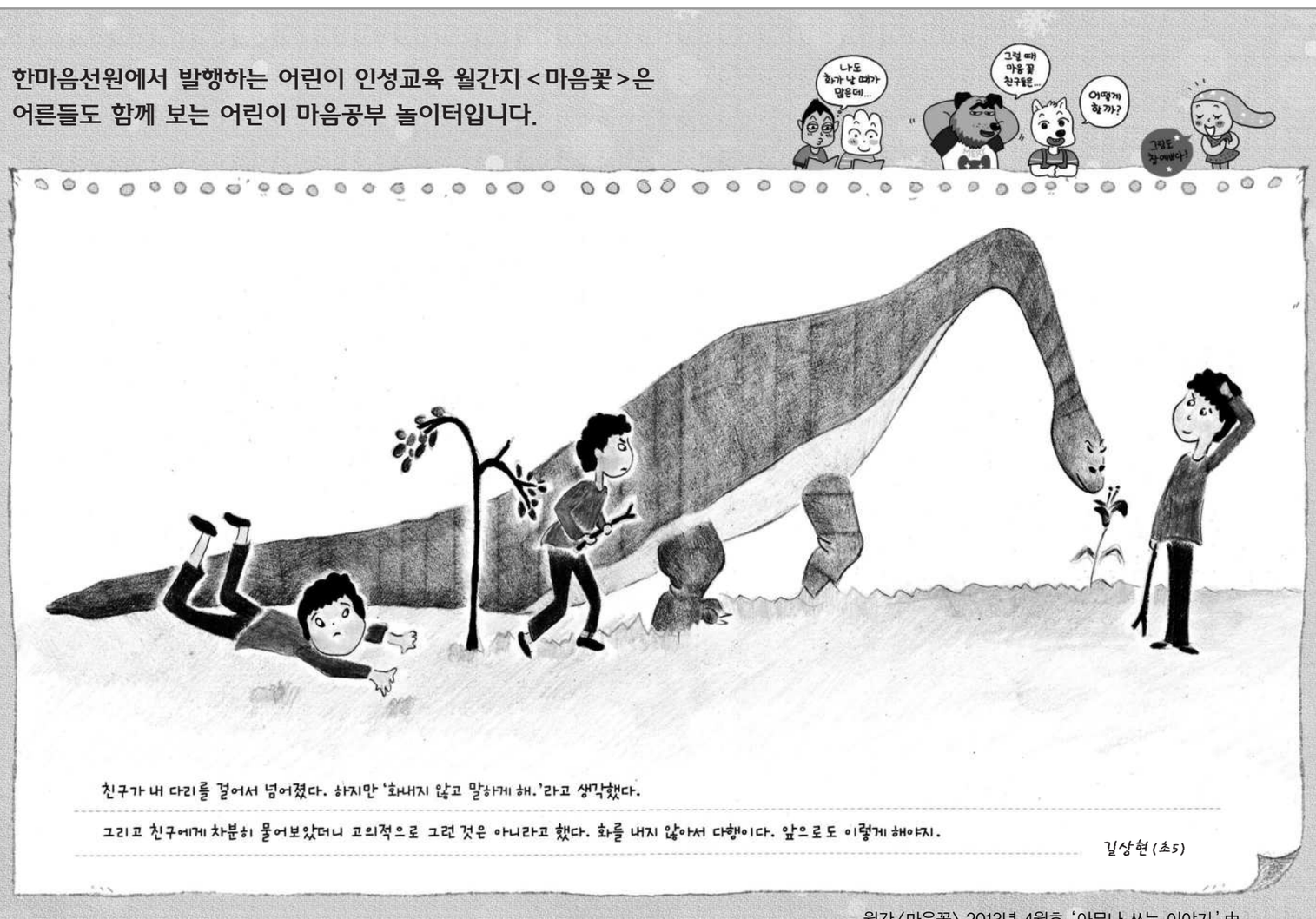
공의 이치를 깨달아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참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대단히 높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속세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곧 이름을 남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학문을 하는 데는 공부를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물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지면 곧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떠나면 '금강경' 에서 말하는 '이상불(離相佛)' 이다.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과 아만이것이 고통을 만드는 씨앗이다. 집착만 끊으면 부처이다.

선가(禪家)에서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무자경(無字經)과 몰현금(沒絃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글자가 있는 책은 읽을 줄 알지만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 모르며, 현이 있는 거문고는 탈 줄을 알지만 현이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른다. 형체는 사용하고 정신은 사용하지 않으니, 어찌 거문고와 책의 참맛을 터득하겠는가." 마음속에 문자가 없는 경전이 있다. 또 마음속에 줄이 없는 거문고가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그 책을 읽어 깨달음을 얻고, 미묘한 거문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윽한 선경(禪境)의 세계를 노니는 탈속(脫俗)한 도인이 읊조리는 구절이 있다. "성긴 대밭에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대나무에 소리가 머물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 위를 건너도 기러기가 건너가 버리면 연못에 기러기의 그림자가 머물지 않는다. 군자도 일이 있으면 마음이 비로소 나타나고 일이 끝나면 마음도 따라서 빈다." 대나무가 둘러있는 연못에 가을바람이 불고,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시상이 느껴지는 명문이다. 공의 이치를 깨달은 탈속한 도인은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짐을 못잊어 짊어지고 다니면서 삶을 헉헉거리지 않는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걸림이 없는 구름처럼 사는 것이 자유인의 삶이다.

'채근담' 은 불교와 선가의 멋진 풍모가 느껴지는 천금과 같은 글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가의 스님들이 '불교로 보는 채근담' 을 강의한 것이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얍!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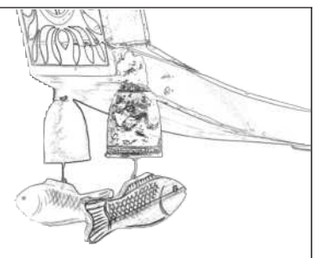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거지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시각장애자 71세
무소유 초대종정 대종사입니다
남은 여생 암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010-9003-7783

최 면 공 부

주1~ 2회, 3시간씩,
총 5회, 55만원
단체환영, 시간,
돈이 없는 분 상담환영
프로최면 강태현 합장
010-9609-191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경기도 안양)
여법하게 염불하실 분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31-471-6675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천도재 보조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급여 180만원.
상담 후 결정)
011-202-3911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부전스님 모십니다

승,속이 운영하는
"불교실천 나눔종" 남,여
법사님! 포교사님!
금요일 오후6시 교리경전
(송파포교원) 강의 하실 분!
지역포교 홍보하실 분!
봉사료 및 경비 - 절충
010-8385-5315

(울진 영명사)
011-2078-9595

구 인 광 고

미국령(사이버) 미국.대학교
이사장,총장,영입운영
가능하신 분. 양도 및 투자 원함.
2007년 등록
현재영업 (라이센스)
010-8774-204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함평 천년고찰)
010-5438-01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국제신통력전문교육센터

- 의통(질병,건강치유사)
*식이요법,심리요법,염력요법
(티벳밀교법:염력,원력,기력수련법)
- 도통(삼매,명상지도사)
*산만,집중,혼미,정신장애,우울증,
스트레스,노이로제,컴플렉스,공포증
(치유사,지도사,전문교육양성)
건강회복센터,명상치유센터개설할 분
공익법인 삼보 010-4905-0575

신랑감 구함 (참불자)

을축생 29세 6월 14일생,
건국대졸.
서울에서 공기업 근무.
남자는 계해생 31세,
임술생 32세.
서울에 집이 있어야 함
010-8561-8253
12월생 안됨

천 등 · 번 개 · 벼 락

-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수한 비술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바꾸는
기도법을 특별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중국기문,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여자 상좌를 구합니다

보연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9번지)
* 사찰에 거주 (주 · 야간)
하실 분
010-8920-5663
031-848-0663
011-888-2727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단 한번으로 해결해드리며 제사 묘지 백중 필요없음.
신병의 원인은 수백여년 긴 세월 동안내려온 조상업으로 지금
그 환자까지 줄사탕 같이 연결되어 있음.
가까운 조상 천도 빙의퇴마 기치료 최면술은 완치되지 않는다.
가정 우환 해결해 드리며 상담요망
금강사 010-5152-1222

얼굴,손금만 봐도 어디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관상 ·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스님 특별 개인지도(일반인,철학인,무속인)
-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운을 관상, 손금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나이관계없음) 자격증 수여

010-4014-8822

지리산에서 수만평 약초 재배로 자급자족하는 조용한 선사에 기도정진하며 생활 할 비구니 스님 2분, 처사님을 모십니다

010-4924-3722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봉 은 불 교 미 술 원

불화 (탱화) 제작 전문
괘불, 후불 (영산 회상도), 칠성, 신중, 산신,
나한 (오백나한), 감로탱화
종합 (무속탱화), 종류별 불화...
홈페이지 주소 / 봉은 불교 미술원 (불화 자료 보실수 있읍니다)
불모 오 재 택 (가암)
(온양) 010- 8237- 3545

조용한 산사에서 남은 여생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753-7844
010-7859-9600

부전비구니스님 모십니다

(50대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쪼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 (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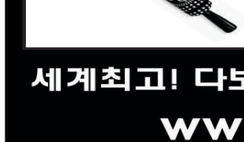
발로해 (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조건 없는 깨끗한
보시를 행하면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항상 기쁨이 함께 하리라"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찰(급)안내
- 경북팔공산 사찰 양도
- 법당.삼성각목조 스님실.공양간
- 방사20개총건물5동 토지4,600㎡
- 대구시와 근접된 아주좋은 산속
- 양도금액 : 8억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지역
- 전체 75평, 2층 건물 24평
- 1층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마당 해수관음, 작은 텃밭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시설완비

011-9542-8250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자연석 기도처 돌산 이동가능한 조경석, 간판석
- 용바위, 거북바위, 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구)부산진역 맞은편 부산일보옆 수정시장입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삼존불, 지장전 등)
- 공양간, 방3개 등 생활시설 일체
-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6413-0463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양평 사찰
◎ 부지 : 180평
◎ 법당 : 35평
◎ 요사 : 60평
◎ 양도 : 4억 8천

◎ 위치 : 서울 강남구
◎ 부지 : 20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가격협의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북 경산시 조용한사찰 양도
* 법당42㎡. 요사채 85㎡. 토지 약 3,000㎡
* 주변이 산과 마을.대구시에 근접된 사찰
* 양도금액 : 토지 값 정도로 2억 8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목조주택, 인법당
- 대지 100평, 건평 25평
- 실평수 35평정도
- 동남향 마을끝집 옆길 있음
- 개인토굴 장만하실 스님 적합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2억 1천만원(절충가능)
  대출 6,000만원 정도됨

017-808-254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평수 : 45평,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 거리
- 건물 :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 수목장, 등 적지)
- 가액: 6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 (조절불가)

010-7376-172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명당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천하명당)
- 평수 270평, 법당 2층 건물 25평
- 삼존불 인등 700등
- 1층 13자 방 2칸, 샤워장 별도
- 요사채:공양간, 창고10평, 방2칸 화장실 2칸 별도, 주인직거래
- 가액 : 4억 7천(창원불사 관계로)

010-7169-9878

서귀포사찰안내
- 제주도 서귀포시 돈내코 초입에 위치한 숲속의 사찰
- 큰법당. 산신각, 요사채(5칸), 주차장, 인터넷 등 설비 완비
- 가액 :1. 전세: 5천만원
  2.보증금 3천만원+ 년세300만원(1,2항중 선택)
  3.비품,시설비 없음

010-5214-7872(스님)
010-5816-5623
064)762-4690(책임자)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경주 톨게이트 근처 시내 7분거리 신경주역 10분거리
- 평수 : 대지 252평, 본체4칸집, 한옥인법당
- 방 2칸, 다용도실, 화장실, 뒤쪽요사채, 방3칸, 공양간 별도, 바깥화장실, 마당잔디, 연못, 정자3평, 산신각, 마을맨 윗집, 바위에서 물 내려옴, 심야보일러, 방 따뜻하고 온수 따로 나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7천 8백만원

054)232-4853/010-8518-551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대지 : 약 420평
- 법당1동, 요사채 1동
- 공찰 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져 함

010-4263-08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 면적 : 총 55평
- 법당구조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소불
- 음향시설, 방2개, 거실, 공양간 시설은 A급. 몸만 오세요
- 가액:보증금전세1,000만원 월60만원 시설 및 집기일체 2,500만원

010-2610-9997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사당동 (이수역 부근)
- 1층 30평, 삼존불(석가모니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왕, 조왕탱화,
- 인등, 연등 500개정도 시설 완비, 주차장있음
- 가액:보증금 3천만원 월 14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7173-669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주안 1~2분사이 가정법원,등기소 1분거리내 아파트 대단지, 사통팔달 교통 편리, 지하철역 근접 2분거리내 카페 골목, 시장 복지관 사이 위치
- 시설 : 단독 2층 • 대지 :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원목 조각)
- 가액 : 3억 8천(조정가능)

010-8941-1484

사 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삼존불)
- 법당,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뜰밤나무도 있음
- 기도하실 스님이나 보살님 대환영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 2층 건물중 2층 독채 55평
- 방3, 거실, 욕실, 화장실, 도시가스
- 인법당, 법당종, 에어컨 완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3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음성 감곡면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방3
- 공양간 화장실 2개, 창고 1, 텃밭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없음
- 오랫동안 사용가능
- 주지스님 이주 관계로 급 안내 그리고 내부시설 협의 가능

010-3293-1705

사찰 암자 기도터 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2길 484-3
- 면적 2,000평, 법당, 요사채
- 산신각, 용왕전, 미륵전, 기도방 2동
- 뒷산 밤나무 100주(매년 수학)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 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 지상물 일체포함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3억

011-278-944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 평수 35평, 3층 건물의 3층 외 방1개, 옥상 30평 이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칠성탱화, 영가단, 앰프 및 최신시설 완비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403-3700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불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 현재사찰 운영 중, 모든 조건 완비
- 서울 상계 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당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8653-321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8천만원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전 1,000평, 대지120평
- 임법당 18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3평(친견실 및 방3칸)
- 공양간 및 아래 요사채(방 3칸)
- 가액 : 비품대 500만원 월세 10만원(보증금 없음)

010-6707-6048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982
- 땅 320평, 옆쪽 계곡 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여 먼 앞쪽에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토성 작업 완성되있습니다
- 땅까지 포장도로 되있음. 대형차 진입가능
- 정남향 좌청룡 우백호가 잘 어우려져 있습니다
- 사찰 전원 주택 팬션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 가액 : 7천만원

010-3544-9777

임법당 안내
- 위치 : 대구
- 대지 200평, 건물 40평
- 요사채, 방 4개, 거실
- 약사여래불, 좌우보처일광,월광, 변조 보살 모셔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600만원,1년사글세 300만원(1년치 완불) 비품대 1,000만원

010-5152-0480
010-9958-9289

동굴사찰안내
- 위치: 경산시 남천면 소재
- 총 10,500평
- 전국 최대의 천연맥반석 동굴법당 3구, 1 동굴 120평, 2 동굴 80평, 3 동굴 3평
- 대웅전, 산신각, 돌탑 108기, 식당, 종무소 등
- 사찰벽을 타고 사철 계곡물 흐름
- 가액 : 대출 2억 3천만 안고 6억 7천만원

010-3809-74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988-72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대지 : 약 420평
- 법당1동, 요사채 1동
- 공찰 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져 함

010-4263-0801

사찰(급)안내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진동 방향 국도변
- 대지 160평, 건평 80평, 1-2층 양옥 기와집
- 법당 20평, 주지실1, 경내주차 15대
- 요사채 40평, 공양간 20평, 별도 다용도실 30평
- 창원 마산 7분거리, 기치료, 철학, 최고위치
- 가액 : 3억 4천만원 (1억 8천만 대출포함) 절충가능

010-8846-7090
010-8008-791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 2층
- 삼존불, 모든조건 완벽
- 중국 급 이민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

010-5488-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876-5353

사 찰 전 세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동 아담한 단층주택
- 1층 주택. 리모델링 약 70평
- 삼존불 : 청동불, 24금 본존불 석자반 좌우 2자반
- 시설 깔끔, 주차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 월 무 시설비 2,700만원

010-3131-1094

토굴(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대지 : 326평
- 물좋고. 인심좋은 시골촌집
- 가격: 4.500원(사천오백만원)

010-4296-8200

절터자리로 좋은 곳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사계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음
- 토성작업이 완성된 곳
-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3천여평 외
- 가액 : 4억(현세에 맞지않음)

010-6253-3107

별장지 및 사찰터 최적지
-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백두대간 예천테라피 자연 치유공원내
- 별장, 사찰 최적지
- 사철계곡에 물이흐르는 자연경관 최적지(도로접)
- 답 1800평(평당가 33만원)
- 답 1900평(평당가 18만원) (당가 절충 가능, 주인직접)

010-2608-72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충무동 시장통內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 가능)

사찰안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뇌연구 박사)

〈2〉 뇌의 진화

우뇌 발달 시켜라… 삶의 질 높아진다

삼위일체의 뇌: 뇌 진화의 세 단계

미국의 뇌 과학자 폴 매클린은 뇌의 구조와 진화에 관해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바로 삼위일체(triune brain) 이론이다.

우리는 실제로 세 개의 뇌를 갖고 있다. 파충류 뇌(reptile brain)위에 포유류 뇌(mammalian brain)가, 그 위에 인간의 뇌(human brain)가 층층이 위치하고, 이 세 개의 뇌는 각각 진화의 주요 세 단계에 해당된다. 가장 오래된 뇌는 파충류 뇌다. 인류와 어류, 파충류가 공유하는 뇌로서 척수(spinal cord), 뇌간(brainstem), 중뇌(midbrain)로 이루어지고 시상하부(hypothalamus)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적인 욕구에 관여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위치한 곳이 이 파충류 뇌다. 기본적 욕구는 생식 및 자기 보존과 관계가 있으므로 파충류 뇌는 혈압, 혈액순환, 호흡, 먹이 섭취, 소화, 성적 행동과 분노 행동을 담당한다.

파충류 뇌보다 훨씬 더 나중에 진화한 뇌 구조물은 변연계다. 인류와 포유류가 공유하는 뇌로서 편도체, 해마, 중격으로 이루어진다. 이 포유류 뇌는 정서와 기억에 관여하며 다양한 감정이 일차적으로 생겨나는 곳이다.

이 두 가지 뇌의 맨 위에 신피질이 있다. 신피질은 가장 최근에 진화한 뇌 구조물로서 약 1000억개의 뉴런(뇌세포)로 구성돼 있다고 추정됐다. 하지만 덴마크의 신경학자 벤트 파켄버그는 신피질의 뇌세포 수는 약 200억 개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40억개 정도 더 많다고 계산했다. 이 거대한 신피질이 진화하면서 다양한 인지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

심리학자 아서 야노프에 따르면, 서로 연결된 이 세 개의 뇌-뇌간, 변연계, 신피질-에 우리가 '생존하려는 마음' '느끼는 마음' '사고하는 마음' 이라고 부르는 것이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 개의 의식을 갖고 있으며, 각 의식은 수억년 동안 진화해온 특정 뇌 구조물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매클린의 삼위일체 뇌 이론은 인간의 두개골에는 개별적인 세 개의 뇌가 존재하고 각각의 뇌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개의 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항상 협력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물, 즉 신피질은 하위 수준의 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정서적 폭력처럼 하위 수준의 변연계가 상위 수준의 뇌를 '완전히 장악'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이중의 뇌: 두 개의 뇌, 두 개의 마음

인간의 두개골 안에는 이처럼 세 개의 뇌가 수직으로 층층이 배열돼 있을 뿐 아니라 두 개의 뇌가 수평으로, 즉 좌측과 우측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좌반구와 우반구로서, 좌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뇌는 왼쪽을 통제한다.

좌반구 또는 우반구 손상의 영향에 관한 초창기 연구들은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좌반구가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훨씬 더 나중에야 우반구 역시 특정 인지 기능과 정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좌반구와 우반구는 보통 동일한 외부 자극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좌반구는 오른손잡이와 대다수의 왼손잡이에게서 우세한 반구로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컴퓨터처럼 작동하므로 언어 정보 처리와 수학적 계산에 적합하다. 반면, 우반구는 형태를 인식하고 입력되는 정보를 종합하는 일에 유능하다. 따라서 음악인식, 3차원 공간에서 방향 인식, 얼굴 인식 등 시각적, 청각적 과제해결과 공간 지각에 더욱 뛰어나다. 또한 우반구는 이미지 및 감정 처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생리학자 로언 조셉(Rhawn Joseph)에 따르면 "우뇌는 의미, 맥락, 진심, 의향을 언어적이고 분석적인 좌뇌로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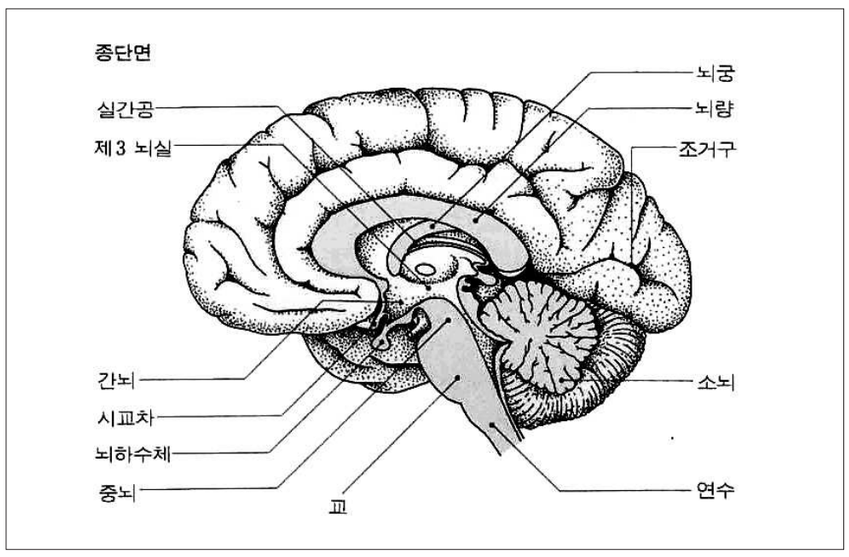
분할 뇌: 좌뇌와 우뇌의 단절

좌우반구는 각자 다른 기능을 담당하며 많은 면에서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뇌처럼 행동한다. 이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 로저 스페리의 획기적인 연구로 입증됐다. 그의 연구진은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분할뇌(split-brain)' 환자들을 연구했다. 분할뇌 환자들에게선 좌반구와 우반구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인 뇌량이 수술로 절단돼 두 반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좌우반구를 분할하는 이 수술은 난치성 간질 발작을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됐고 성공을 거두었다. 분할뇌 수술 후, 좌반구와 우반구는 각자 고유의 지각, 인지, 기억, 심지어 그 반구 고유의 가치관과 의지, 마음을 지닌 채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로 인해 두 반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좌반구는 오른손을, 우반구는 왼손을 통제하므로 분할뇌 환자의 두 손이 하는 행동을 통해 그 갈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어떤 환자는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오른손이 선반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 카트에 넣으면 곧바로 왼손이 그것을 꺼내 선반에 도로 올려놓고 다른 물건을 집곤 한다고 투덜거렸다.

외계인손증후군(alien hand syndrome) 이라고 하는 이 증상에서는 한손-대체로 왼손-이 자기만의 마음을 갖고 행동한다. 뇌량 절제 수술 직후, 분할뇌 환자들에게서 이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분할뇌 환자들의 행동은 대체로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실험실 테스트는 그들의 지각과 행동에 미세한 장애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분할뇌 환자의 왼쪽 시야(우반구와 연결된 시야)에 특정 이미지나 물건을 제시할 경우, 환자는 그것의 이름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말하기를 담당하는 좌반구가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우반구와 단절된 탓에 그 시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환자는 왼쪽 시야가 지각한 그 물건을 다양한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에서 왼손으로 골라낼 수 있다. 우반구는 그 물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반면, 좌반구는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하다.



뇌량은 좌 · 우반구 기능 조정
생각에 전념할 때 좌 · 우뇌는
뇌량 통해 쉬지 않고 대화

우반구를 잘 쓰는 사람은
경험 풍부하고 생생하게 느껴

독일 출신으로 UCLA에서 연구하는 클라우스 호페가 입증했듯이, 분할뇌 환자들은 창의성이 크게 감소한다. 그리고 미국의 신경외과의사 조셉 보겐은 "환자들의 공상과 환상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진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환자들의 꿈에서조차 상징적인 내용이 하루가 다르게 감소한다. 이런 변화는 좌반구가 우반구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뇌량: 좌뇌와 우뇌의 통합

대뇌의 좌반구와 우반구는 뇌량으로 연결돼 있다. 뇌량은 2억개 이상의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활꼴 모양의 신경다발로서 뇌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물 중 하나다. 게다가 약 5만 개의 신경섬유로 구성된 더 작은 신경다발도 하나 있다. 이것의 이름은 전교련으로 좌우반구의 측두엽 전측부를 연결한다.

뇌량의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기능은 두 반구에서 처리하는 신체활동, 감각지각, 사고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왼손을 움직일 것을 요구한다고 하자. 이 언어적 요청을 그 사람의 좌반구가 이해하면 이제 왼손을 움직이려는 좌반구의 의도가 뇌량을 통해 우반구로 전달돼 그는 그 요청을 실행한다.

우리가 사고에 몰두할 때 좌반구와 우반구는 뇌량을 통해 쉬지않고 대화한다. 이 내적 대화는 인간 의식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독일의 불교철학자 헤르베르트 귄엔터는 의식을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awareness of awareness)' 라고 불렀다. 이 표현은 나의 이론과 일치한다. 나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좌반구가 우반구를 알아차림하고 우반구가 좌반구를 알아차림할 때, 그리고 두 반구가 각자 상대 반구에게 반응할 때 등장한다.

우뇌와 무의식

로언 조셉은 〈우뇌와 무의식〉에서 좌반구에 일차의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일차의식 바로 밑에는 우반구와 관계가 있는 전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있다. 조셉의 관점에 따르면, 좌반구는 오래 전에 잊혀진 아동기의 기억과 그와 연관된 감정이 저장된 곳이다. 하지만 일차무의식은 변연계 깊은 곳에 자리한다. 따라서 의식이 좌반구에 자리한다면 그곳에서 깊은 무의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런 연결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연결된 뉴런을 따라 좌반구에서 직접 변연계로 접근하든지 뇌량과 우반구를 통해 변연계로 접근해야 하는데,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생후 2년 동안, 즉 언어 기능이 발달하기 전에 아기는 주로 우반구를 통해 움직인다. 따라서 아동기 초기에 겪은 학대와 트라우마 사건에 관한 기억은 우반구에 저장된다. 아기가 성장하고 (보통) 좌반구에서 언어 기능이 발달하면 좌반구가 일차의식의 거처가 된다. 우세반구가 이렇게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바뀌는 것은 사춘기(12~14세)에 이르러 확고해지는 듯하다. 사춘기에는 전두엽 또한 비약적으로 성숙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좌반구는 많은 면에서 우반구보다 우수하고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하지만 때때로 좌반구는, 적어도 서양인들에게서는, 더 오래 전에 진화한 뇌 구조물들과 별로 상의하지도 않고 저 혼자서 지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좌반구는 마치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배한다. 우반구에 비해 좌반구는 깊은 곳에 자리한 뇌 구조물들과 실제로 더 많이 단절돼 있다. 우반구는 변연계(따라서 감정들) 뿐 아니라 나머지 신체 부위와도 더 많이 연결돼 있다.

삶의 질에 관한 한, 우반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개인은 좌반구와 우반구 모두를 통해서 본다. 좌반구는 특정 경험에 대한 사실과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반면, 우반구는 배경을 이루는 감정을 제공해 그 경험을 의미있는 진짜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자신의 우반구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틀림없이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완전하고 생생한 감정을 느낀다.

자신의 우반구에 거의 또는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반구를 억압하거나 차단하기 때문이며, 생후 초기에 겪은 트라우마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수 있다.

전두엽: 뇌 진화의 네 번째 단계

전두엽은 여러 가지 자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위로서 말하기 기능의 도움을 받아 공식화된 의도와 동기, 계획을 집행한다. 전두엽은 또한 주의 · 집중을 지시한다. 그리고 감정을 포함해 대뇌피질 하부영역의 활동을 통제하고 해석하고 통합한다.

인도의 위대한 영적 대가들은 거의 모든 인간의 전두엽이 잠들어 있으며 그것을 깨우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명상과 고차원 의식에 관한 최신 연구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전두엽이 훨씬 더 활발하게 기능하고 감마파라는 매우 빠른 뇌파를 생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뇌에는 감정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감정은 우반구가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활성화된 좌반구는 감정이 좌반구에 도달하지 못하게, 곧 일차의식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있다.

신경생리학자 로언 조셉의 〈우뇌와 무의식〉은 "억제, 억압, 검열을 통해 전두엽은 두뇌 곳곳에서 행동, 주의, 정보처리를 통제한다. 전두엽은 억제를 이용해 정보가 '정신의 다리(뇌량)' 을 건너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두엽이 뇌량의 좌우측에서 보초를 서면서 어떤 것을 통과시킬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가설이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전두엽이 뇌량을 통한 소통을 규제하고 억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전두엽은 사고에 관여하는 지적인 좌반구와 정서에 관여하는 직관적인 우반구의 균형을 맞추는 책임을 맡은 듯하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에릭 호프만의 〈이타적 인간의 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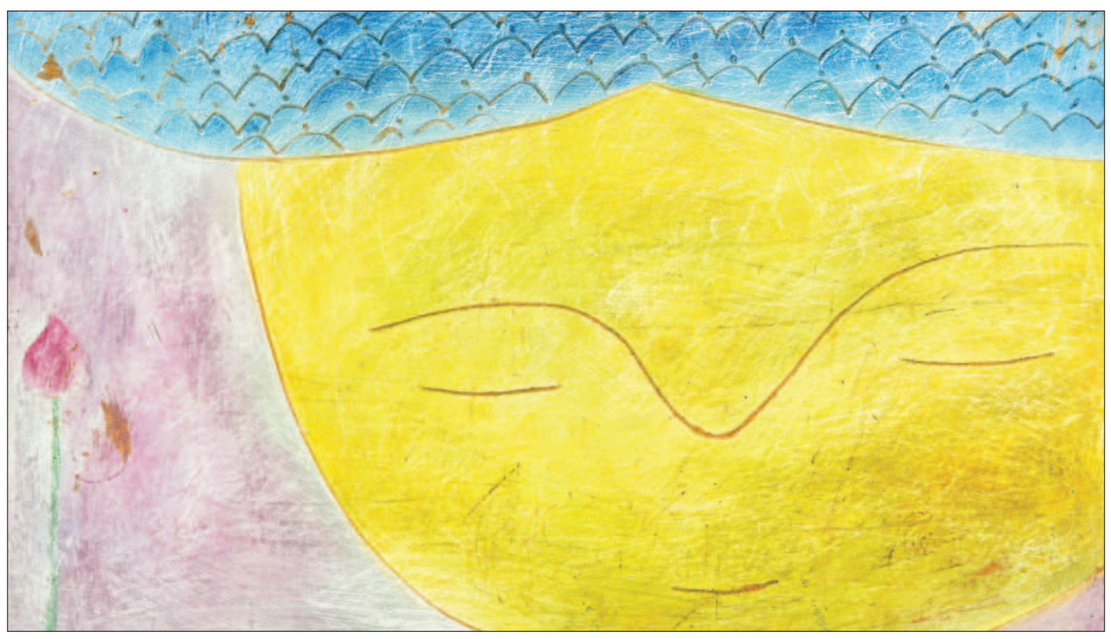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갤러리 색즉시공



몸으로 앉으라

한 때에
그분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입으로
입으로만
전달되는 법은
쉬이
부서지는 법이니라.
…
몸으로 앉으라!"

그림 · 글=희상 스님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스님 · 포교사만 포교사 아니다"

"주변에 가르침 실천도 큰 수행"

안심하고 찾아오는 집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따님이신 정양완 교수님이 지어준 우리 집 당호가 '안심료(安心寮)' 이다. 안심하고 찾아오는 집이라는 뜻이다. 우리 집을 찾는 이들에게 편안한 의지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현관 정면에 현판을 달아놓았더니, 세탁소, 퀵서비스, 가전제품을 수리하시는 분들도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절인 줄 알고 저절로 합장을 하곤 한다. 좋은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 집이 절처럼 장엄된 것 같다. 법당이자 편안한 수행처와 같은 곳이 안심료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은 불자들의 모델하우스로 꼽히게 되었다.

나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밖에서 칭찬보다는 남편과 아이들이 인정해주는 칭찬이 더 기쁘다. 그래서 도반들에게도 가족들에게 더 많은 공을 들이라고 조언했다. 가정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신행하는 모습이 남편과 자식을 불자로 만드는 것이고 3세대 손자들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신앙띠잇기 운동의 기초가 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행공동체가 되는 것이 진정한 포교이며 교화의 첫걸음이다.

경전 공부반을 만들어 처음 오는 초심자들에게는 6개월 동안 〈옥야경〉, 〈육방예경〉, '관세음보살' 을 부르는 관음정근을 시작으로〈부모은중경〉,〈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 을 수지 독송, 사경한 다음 〈법화경〉을 공부하게 했다. 경전공부는 확실한 불자가 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스님을 모시고 경전을 집중 교육시켰다.

교화는 사람을 가르쳐 변화시킨다는 뜻인데, 법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중생에서 보살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시작한 것이 '여여회' 였다. 꼭 스님과 포교사만이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불자가 한 사람의 포교사이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전법이다. 흔히 신앙체계를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 순서를 삼지만, 사실은 이것에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꿰야 한다. 믿는 것과 동시에 행해져야 하고, 행하는 것이 열매로 증득되어져야 하며 불교를 믿는다면 믿는 그대로 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남편부처', '아들부처', '이웃부처님' 께 회향하는 것이 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것처럼 내 집에서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다.〈법화경〉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었다.

옛날에 상불경(常不輕)이라는 구도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을 보면 예를 갖춰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네들을 존경합니다. 당신네들은 곧 진실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불성이 있는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놀림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진지하게 절을 하는 상불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웃었으나, 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더욱 공손하게 절을 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욕은 물론 돌멩이나 기왓조각을 던지고 지팡이나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이런 꼴을 당해도 그는 조금도 대들거나 반항하지 않으며, 이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절을 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마음 속 깊이 당신네들의 고귀한 불성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평생토록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육근청정(六根淸淨)을 얻어 많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을 모두 구제하고 자기도 부처가 되었다. 부처님을 배례하듯이 사람들을 배례한 상불경은 인간배례의 행자였다. 부처님으로 통하는 인격의 존엄성을 알고 이를 배례했던 것이다.

가정법회를 연 이후 14년에 걸쳐 꾸준히〈법화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자, 나도 상불경보살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도반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해주었더니 그들의 감추어진 능력이 드러났다.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경전을 써서 책으로 엮었고,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은 도반들에게 예쁜 가방을 만들어주었고, 한과를 잘 만드는 사람은 행사 때 과자를 만들어왔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니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설 줄도 알게 되었다.

매 순간,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아무리 큰 일 앞에서도 서둘지 않고 동동대지 않으며 일상의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다보니 어느새 나는 행복해져 있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고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겐 웃는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찾는 것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승만사자후와 승만화신

2008년,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승만경〉을 소의경전으로 채택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목표로 하는 대승보살에 정체성을 두고 실천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여성 불자들이 주체가 된 단체다. 2000년 여성 불자의 정체성을 찾고자 설립되었다. 나는 좀 더 큰 활동을 하기 위해 불교여성개발원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승만경〉강의를 개설해서 승만보살의 10대원을 수지 독송하고 실행해 승만보살처럼 되고자 하는 서원을 세웠다.

승만보살 10대원 수지 독송 100일 회향 때는 승만수계법회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집전해주셨는데,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로 행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남편과 함께 계를 받았다. 명실공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만보살이 되고자 부처님 앞에서 공증을 받은 것이다.

〈승만경〉강의는 해인사 종진 스님을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에게 들었는데, 불교여성개발원에서 개설한〈승만경〉 법회에서 이인혜씨가 강의할 때〈승만경〉운영위원회가 생겼고, 나는 운영위원으로 선정되었다. 내 역할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학문적으로 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일 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듣고 항상 먼저 가서 수업준비를 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강의가 있을 때마다 보이차, 침향차, 오미자차 등을 대접하면서 도반들과 차를 나누는 즐거움을 누렸다.

내가 크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법회를 회향할 때 약간의 공양금 가지고 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살이고 부처 아닌가.〈승만경〉을 발간하는 데 이 분들 말고 누가 부처이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책을 만드시느라 애쓰신 분들께 드렸다. 그리고 여성불자들 가운데 승만보살처럼 훌륭한 삶을 사는 불자를 선정하는 승만상을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만약 제정된다면 보시할 뜻을 밝혔다.

다음 달 모임에서 운영위원 중 한 분이 나의 제안이 감동적이었다며 '승만' 이라는 글자를 넣어 여러 장의 붓글씨를 써왔다. 여섯 사람이 모였는데, 나에게는 '승만사자후(勝 獅子吼)' 라는 글이 돌아왔다. 순간적으로 '승만보살처럼 당당히 내 소리를 내고 살아가라는 뜻이다. 승만경 공부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써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하나씩 다 나누어 가졌는데 하나가 남았다. 그러자 써오신 분이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무나 가지세요." 하고 말하는 게 아닌가. 무언가에 욕심을 부리는 성격이 아니지만 웬일인지 남은 것을 가지고 싶었다.

"제가 가질까요?"

하고 열어보니 '승만화신(勝?化身)' 이라는 글이 들어 있었다. 작은 아들의 결혼을 앞둔 때여서 며느리에게 보낼 함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는 승만부인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나는 며느리가 승만의 화신이 되어주기를 깊이 염원했다.

채송화나 목련, 분꽃에 씨가 들어있듯 우리 안에도 우리만의 씨, 부처씨가 들어있다. 내 씨에 물을 주고 잘 돌보면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듯 자신이 한 말에도 씨가 들어있다. 그래서 말씨를 곱게 쓰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 며느리에게 승만의 화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씨로 심었다. 멀리 남의 정원에 가서 꽃을 볼 필요가 없다. 내 정원, 내 안에 이미 꽃이 피어있으니 말이다.

집에 가지고 돌아와 함 보내는 날 며느리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승만화신"을 함 속에 넣어 보냈다. 당장 불교를 몰라도 먼 훗날 저 스스로 터득을 해서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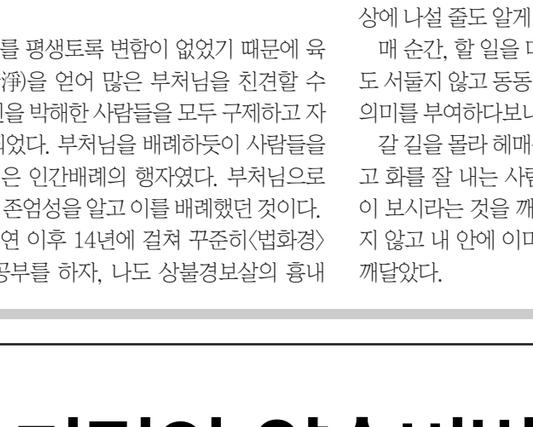
〈여여원 원장〉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 1리 58번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대행 스님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어디로 찾으러 다니십니까

어느 게 참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요즘은 종교도 너무 다양해지고 불교 내에서도 너무 많은 종파들이 있어서 어느 것이 참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흉악한 행을 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 아무리 사람이 죽고 또 나고,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지마는 이 진리만은 절대로 변동을 시킬 수 없고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부동하죠. 그러니 우리 자체가 그렇게 살림살이에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데도 뭐가 불법이고 뭐가 불법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옅다고 불법이 아니고 또 높다고 불법이고, 더럽다고 불법이 아니고 깨끗하다고 불법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역대의 조사들도 그렇지마는 우리 인간이 잘 파악해 본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쓸 게 없다.' 하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 사량적인 마음이 아니라 공한, 자기조차도 공한 이치를, 공심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공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쁘고 내가 좋고 이러는데, 내가 만약에 공심을 안다면 아. 저렇게 나쁜 마음 쓰는 것도 바로, 내가 본 것이 인연이고 들은 것도 인연이에요. 고 순간 만남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인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넓히려면 넓히고 좁히려면 좁히고. 둘로 보고 싸움을 하려면 싸움을 하고, 하나로 보고 공으로 돌린다면 그렇게 지혜가 넓을 수 없는 겁니다. 우주를 덮고도 남지요. 그러나 각각 보고 싸워진다면 그거는 이 허공에 바늘구멍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광대무변한 이 법. 우리 이 우주 전체를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실상. 이 우주 전체의 실상이 될 수 있는 '나'가 되려면은 그것을 둘로 보고 싸우고 마음으로 증오하고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고, 또 '이런 거는 불법이고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니다.' 하고 마음이 둘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아, 내가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러면 산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 졸리니까 자겠다.' 그럼 잘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이 바쁘니까 일을 해야지.' 하면 일을 하는 거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여여하게 그대로….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니다 기다, 이런 게 없이. 남이 그르다 옳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넘길 수 있으면서 서서히 그냥 물이 흐를 수 있다면, 그대로 얼마나 다양한 법이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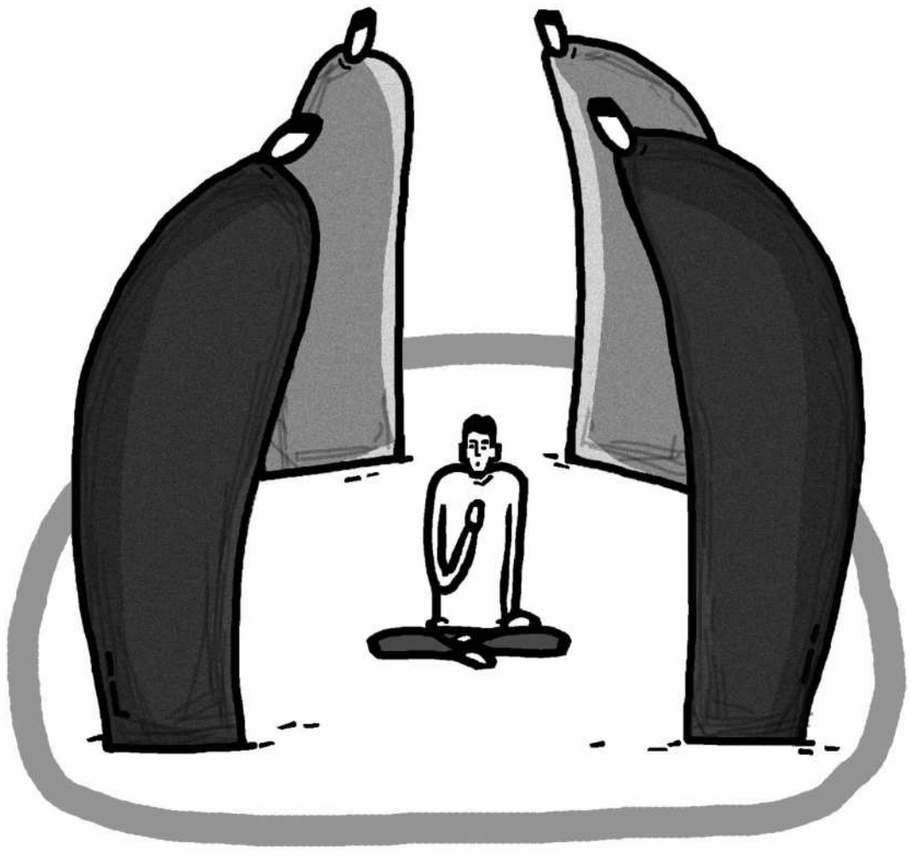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그 주인공 안에서 얼마나…. 안도 바깥도 없는 것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수없이 전부, 일체 신이 나예요. 내 안에 들었으니까. '나'라는 데도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어디로 찾으러 다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바깥의 거는 전부 삿된 일이 아닙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깥의 것도 안의 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의 '나쁘다' 이러는 것을, 이것은 나쁘니까,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 아니고, 이건 삿된 마음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이건 끊어야지.' 한다면 자기 마음 깨닫기는 영영 그른 겁니다. 사람이 참사람이 되려면 이런 데도 엎드러져 보고 저런 데도 엎드러져 보고,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저런 데도 들어가 보고….

어떤 강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그것을 많이 하면은 물이 들까 봐 무섭다고 하지만 한번 잠깐 돼지 소굴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돼지가 하는 습이 완전히 물들까 봐 걱정이지만,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돼지 소굴에 들어가서 돼지로 내가 며칠 동안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물들지 않아요. 또 강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강도가 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강도의 물이 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향기로운 그 내음이, 내음 없는 내음의 그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 캄캄한 강도의 마음도 녹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강도가 만약에 내 집에 들어오더라도 저 강도도 바로 나인 것이다라는 것을, 육신은 나요 바로 그 마음은 내 마음이니 그 둘이 아닌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치시켰을 때, 한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강도는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없게 되죠. 분명코 둘은 둘인데 죽일 수가 없이 된다 이겁니다. 이쪽 사람은 그렇게 일치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쪽 사람은 모르지마는 이 공용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벌써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의 자기 주인공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공으로 하여 육신이 움죽거리는 건데, 그 마음으로 하여 육신이 움죽거리는 건데, 그 마음이 스르르 녹는데 어떻게 칼로 사람을 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찌른다 이 소리에요.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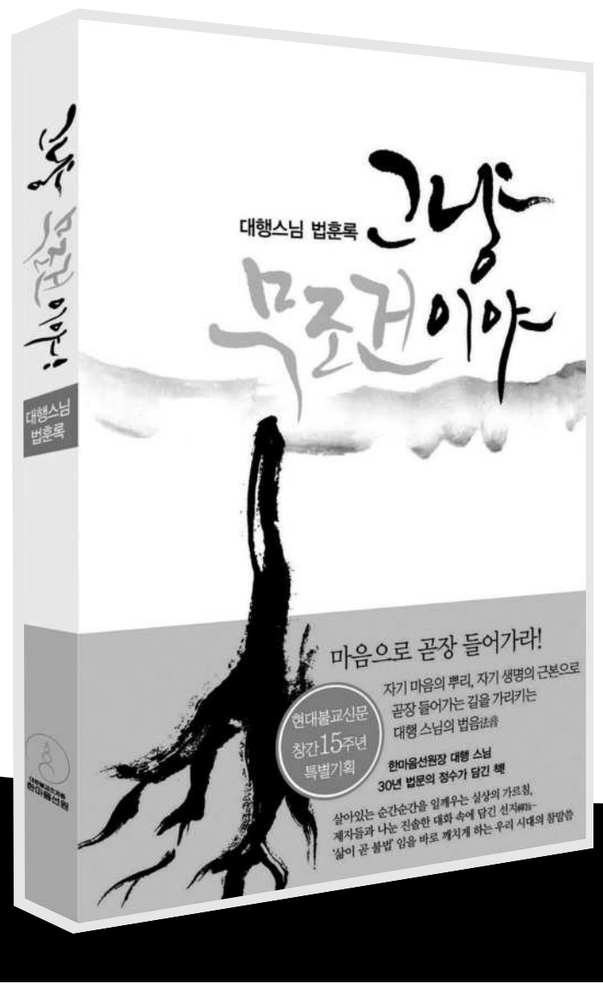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겨울과 같이 딴딴히 얼었다가 일치하니까 금세 봄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겨울과 봄이 이렇게 기간이 몇 달 있는데, 한순간에 겨울이 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녹았단 말입니다. 그 강하게 얼었던 얼음이 그냥 순간 녹아버리니까 물이 돼 버렸어요. 물이 됐는데 뭘, 얼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깨트릴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찌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 도리를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 말로 해서 여러분이 듣는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그 자신이 생긴다 이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한데 합쳐진 즉,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서 나오는 일들은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생각나는 거나 바깥에서 내 몸뚱이가 움죽거리는 거나, 상대성이 있는 거나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는 주인공에다 되놔라. 딴딴하고 강한 것도 그냥 용광로에 넣고 쇠도 용광로에 넣는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봄이 오면 다 녹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탓 저 탓 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불법이 어떤 건가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고 찾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어떤 법당에 들어갔을 때, 아무 법당에라도 들어갔을 때 그 등상불이 '아이, 저건 등상불이니까.' 이렇게, 즉 말하자면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 그때에 그 순간, 그 법당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인연이 돼서 그 부처의 형상도 내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배척한다면 내 몸뚱이가 망가져요. 모든 게 중하지, 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못 믿고 남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주저 말고 내몸체 항아리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 29면에서 계속

을 배척한다면, 남을 욕을 한다면, 바로 내가 욕을 먹어지고 내가 몸이 망가지고, 배척하는 것만큼 자기가 망가져요. 또 모든 것이 욕심을 부려서 '내가 배척하지 말랬으니까 전부 내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이 모두가 내 거기 때문에 놔 놓고 써라 이겁니다. 놔 놓고. 그러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가벼운 것도 없고 무거운 것도 없고 그냥 여여하게 내가 씀씀이에 의해서 내가 만 원 쓰려면 만 원 쓰고, 천 원 쓸려면 천 원 쓰고, 몇천 원 쓰려면 몇천 원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써라 이겁니다. 그 주인공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무심의 상태란 어떤 것인지요

문) 가끔 무심도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도를 공부함에 있어 무심의 상태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무심이란 건 지금 여러분도 전부 무심입니다. 왜냐?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만남도 고정됨이 없지,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자는 것도 고정되게 몸을 그냥 움죽거리지 않고 자는 게 없지,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없지. 그냥 일거수일투족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 쓰고 그대로 무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고 가고,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넘어갑니다. 찰나찰나 그냥 돌아요. 그게 무심입니다. 그대로 무심이지요.

그런데 왜 괜히 붙들고 무심이냐 유심이냐 하십니까. 유심도 무심도 둘이 아닙니다. 알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함이 없이 그냥 행을 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함이 없이 말을 하고 듣는 것도 함이 없이 하고,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사는 건데, 전부 모르고들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지고 온통 야단들이죠. 무심이 따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고 그걸 생각을 안 하면 무심입니다. 한 발짝 떼어 놓고 뒷발자국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은, 발자취를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발자국 떼어 놓고선 그 뒤 발자취가 금이라고 한다면 돌아다보게 되거든요. '아이고, 저놈의 금을 내가 밟고선 저렇게 저거 했으니까 고 금을 마저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하면은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무심코 그냥 걸어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걸로만 비유해 본다면, 저기서 올라올 때 그냥 무심코 걸어서 올라왔지, 내 뒤 발자취가 어떤가, 요렇게 떼어 놨나 저렇게 떼어 놨나 하고 걸어왔습니까? 또 보는 것도 무심히 보지 내가 저거를, 저게 어떤가 그러고는 미리 생각을 하고 봤느냐고요? 듣는 것도 그래요. 미리 생각하고 듣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듣고 나서 인제 그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무심입니다, 그냥 무심. 왜 그냥 여여한 거를 모릅니까? 아이, 그냥 고정됨이 없다고 반야심경에다가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여여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색도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대로 고정됨이 없으니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심이라는 여여한 도리만 알면 그냥 무심이요 그냥 무심도예요.

내 의식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문)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만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내 의식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없는 그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떼어 놓고 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가는 놈이 가는 놈한테 거기다가 일임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곧장 거기에 연락이 되죠. 어느 학생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영 말을 잘 모르니깐 공부가 안되죠. 그래서 주인공에다 맡기고 '주인공이 해! 주인공이 할 수밖에 없잖아!' 하니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학교에 그냥 들어가서 말을 배웠다는 얘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 마음과 내 이 마음 안의 '참나'의 마음은 수없는 경년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든지 듣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러니깐 거기에다가 둘 아니게끔 자꾸 지혜를 불어넣어 주니까 빠를 수밖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지를 못할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해 보지도 못했고 한 거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무시하진 말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귀머거리한테 저 천둥 번개를 쳤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스럽게 발판을 세우고 자유스럽게 뛸 수가 있는 세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가난해도 행복하기만 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쪼들리면서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라면 다 부자예요. 그렇듯이 하여튼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이 항아리 속에서, 내 이 몸체 항아리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럭해도 될 수 있을까?' 이럭하고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든지 송구스럽고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데 어떠한 게 닥쳐오더라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너만이 이것을 꼭 해야 돼. 난 손만 빌려줄게.' 하고 모든 거를 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써,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건 불법이 아니라
> 삿된 마음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끊어야지.' 한다면
> 자기 마음 깨닫기는 영영 그른 겁니다.
> 사람이 참사람이 되려면
> 이런 데도 엎드러져 보고 저런 데도 업드러져보고
> 이런 데도 들어가 보고 저런데도 들어가 봐야 합니다.

호흡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문) 저는 마음과 기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해서 조식수련법, 즉 호흡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좌선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숨만 느껴지고 배 속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는데 더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아니, 자동적으로 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건데, 내 마음으로서 내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자생 중생들이 모자라는 건 채우고 작용을 하는데, 뭣 때문에 호흡 들어가고 나가는 데 거기다 기준을 둡니까. 아니, 호흡을 내쉬고 들이쉴 수 없으면 죽는 거고, 들이쉬고 내쉴 수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죽는 법을 왜 합니까. 내쉬고 들이쉴 수 없으면 죽고, 또 들이쉬고 내쉴 수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내쉬고 들이쉬고 하기 이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목숨은 내쉬고 들이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목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지켜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심쩍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냥 놓으세요.

이 몸은 집합소예요. 생명들의 집합소. 그리고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아니에요. 더불어 나지.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생명체들하고 같이 더불어 하나에요, 개개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지도 않고 한데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니게 한마음으로 한데 뭉쳐서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도 네 잘못도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잘못해도 같이 잘못하는 거고 잘해도 같이 잘하는 거고.

그런데 살다 보면 몸이 떨어져요. 우리가 헌 옷 벗어버리듯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배 속에 있는 모든 게 같이 떨어져 버리죠. 이거 보세요. 내 마음은 길잡이요, 선장이요, 선장이 다스리는 채찍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배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오히려 선장이 말리면 배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지금 몸이 배라고 한다면 몸속에 모든 자생 중생들이 들어 있는데 선장이 배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장이 오히려 그 배 안에 탄 중생들한테 말려 들어간다면 어떻게 선장이 채찍질을 하면서 배를 몰고 가겠느냐 이 소립니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게 하는 것도 너니깐 변화 없이 작용을 잘해서 모자란 거 잘 채워서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하나하나 건건수가 많습니까. 지금 살기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종교마저 그렇게 바빠야 하고 그렇게 이론이 많아야 합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이 부질없이 많아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네 나무 네 뿌리를 믿어라 이겁니다.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그 네 뿌리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 보냄으로써 푸르르게 살 수 있고,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무르익을 수가 있고,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만 가지로,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중생들에게 다 공급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내 마음의 불바퀴에다가 그냥 모든 걸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맡겨 놓고 '잘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못되게 하는 것도 너다. 그러니 네 심부름을 잘하게 하려면 잘되게 해야 되지 않아?'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맡겨 놓는 버릇을 해 보시라고요.

출가자와 재가자의 공부에 구별 있는지요

문) 출가자와 재가자가 공부하는 데 구별이 있는지요.

답) 구별은 없는데 사람의 차원이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있는 거지, 구별은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거뿐입니다.

또 스님이 돼야만이 많이 하고 스님이 안 되면 많이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는 똑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그런데 이 스님네들은 가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은 아무래도 이 마음이 그냥 걸림 없이 그냥 저거 해서 넓게 나가는 그 가슴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복도 이렇게 입고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중생들도 다 이렇게 오지요, 거죽으로도. 또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지는 율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건질 수 있다 하면은, 그 속가에서 공부를 한 분들은 그저 속가에서 그 모든 걸 굴리고,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겸해서 스님네들은 다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가 나투면서 하기 위해서 중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아무래도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념하다 보면 넓게 바깥으로 튀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지구 바깥으로 튀어 나갈 수도 없고 또 우주 바깥으로도 튀어 나갈 수가 없거든. 그냥 물속으로도 숨어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거기에 어깨에 짊어진 게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렇단 얘깁니다. 안 그럴까요?

" 성우상사 거위털 제품의 특징은 가볍고 따뜻하며 땀이 차지않습니다.(거위털 이불, 패드, 베개)
강력한 흡습, 발산, 공기층 형성으로 체온을 33° ±1 유지하고 숙면을 도우며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

모든 제품 거위솜털 100% 간편한 세탁(물빨래)/다양한 사이즈(M,L,XL,77,88,99) www.namsungwoo.co.kr


누비 적삼 55만,50만,45만원
누비 바지 55만,50만원


속조끼 230,000원(녹차)
148,000원(일반)
속바지 380,000원


다리토시 45,000원


수면버선 80,000원



후드점퍼 410,000원
480,000원




거위털 점퍼 (지퍼 타입) 320,000원


조끼 180,000원


복대 50,000원


목워머 16,000원


저고리 500,000원
450,000원
350,000원


목도리 28,000 / 50,000원

· 방수, 흡습, 발산 제품으로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 상의 180,000원
바람막이 하의 110,000원


팔토시 20,000원(방수)
공양실 앞치마 32,000원


공양 앞치마 20,000원


귀마개 펼친모습(큰사진)
귀마개 안으로 접은모습
모자 95,000원(생활방수)
(모자 사이즈 조절가능)


휴대용이불 가격,색상,사이즈 다양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5가 20번지 B1 22호
대표 02)2679-2848
010-3707-7016

불자 세상보기

공무원연금 개혁 함께 지혜 모으자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의 정치이슈로 떠올랐다. 박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국회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했고 새누리당이 소속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연급개혁안을 발의한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 사회와의 합의와 타협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안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공무원노조는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왜 개혁안의 연내 통과를 밀어 붙이는 걸까? 사안의 절박성 때문이다. 박대통령이 밝힌 대로 연금수급자가 1983년에 비해 60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앞으로 8년 동안 48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함으로 국가재정을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게 된다. 여당이 발의한 개혁안은 연금지급 개시일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한편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령액은 줄인다는 것이다. 안대로 하면 2016~27년까지 현행보다 47.8조원을 절감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급은 연금가입자의 봉급에서 떼는 연금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을 적립하여 퇴직 후에 연금으로 받는 형식이다. 문제는 연금을 타는 사람은 많아지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금지급 기간은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적어 적자가 계속 불어난다는데 있다. 적자 눈덩이가 머지않아 눈사태가 되어 우리 모두를 덮치게 되어 있다.

이런 적색신호는 오래전에 나타났다. 2000년 정부는 공무원연급 보험료를 7.5%에서 9%로 올리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연금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정부재정 의존형 연금으로 만들었다. 원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 모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이를 불려서 노후자금으로 쓰게 하자는 구조였다. 그런데 개혁한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이다. 복지예산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돌리긴 어렵다. 그 후의 개혁시도들도 이를 넘지 못하고 문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혁의 기회가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다만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집권세력에게는 리더십의 발휘가, 야당에게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초당적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집권여당의 개혁드라이브가 사회적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인 점이 있다면 부족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는 아니라 본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 강경투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연급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솔선해서 협조해야 할 때다.

오히려 공무원사회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뒤집어 쓴 무사 안일과 부패 · 무능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승패는 공무원노조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그 자리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국가사회의 필요(need)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국민의 욕구(want)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조계종 '콘클라베'가 필요하다



원택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어느덧 큰스님 열반 21주기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큰스님 열반 후 해인사 연화대 다비장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인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드물게 월간 〈해인〉지가 진보적 논조로 인해 스님들은 싫어하고 진보계의 사회지식인들은 좋아해서 편집실에는 많은 인사들이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때 〈해인〉지 편집실에 들르곤 하던 한 신부님께서 "가톨릭은 200년 동안 400만 명의 신도를 선교했는데 성철 큰스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열흘 동안 300만 명을 포교하셨다"고 농담을 하실 정도로 큰스님의 열반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감격과 '텅 빈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49재를 마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현 총무원장 3선 저지와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조계사 마당이 투쟁의 현장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수습과정에서 개혁안이 수립되고 조계종 종헌과 종법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입된 총무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가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종단에 해악을 끼치는지 되돌아보는 반성은 별로 없었던 듯합니다.

1962년에 마련된 조계종 종헌 · 종법도 승가의 율장 기준이 아닌 세속의 삼권분립 헌법 기준을 종헌에 도입한 선례가 있고, 1994년 개혁입법 수립 시에는 고위직 선출에 세속의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도입한 것을 획기적인 민주방식으로 생각하였던 듯합니다.

고위직 선출에 있어 선거제도 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몇 가지 적어봅니다.

첫째는 선거의 평등성을 내세우다 보니 수계 1년 된 비구도 한 표, 40년 50년이 넘는 대덕스님들도 한 표입니다. 이러니 산중 어른 스님들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본사주지가 대중의 선거로 뽑히다 보니 기대와는 반대로 주지 '원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주지스님이 대중적으로 선출됐으니 민주적으로 절 살림을 살고 말사의 자주성을 살려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실은 다음 주지선거를 대비하는 주지 '독재'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셋째는 1994년 처음 선거에는 후보자가 사판으로 비판받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유권자가 더 비판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넷째는 일찍 출가한 스님은 30대 후반이면 벌써 종회의원에 뜻을 두고 선방이나 대중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얼굴 익히기에 나서니 수행은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보다는 정치에 전념하는 모습이 한심할 뿐입니다.

다섯째는 산중 선원의 귀중한 수행풍토는 점점 어지럽혀지고 고위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스킨십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본사주지의 연령이 젊어짐으로써 타종교 수장과 지역사회의 원로들과의 교류에 문제가 없다하지만 그 간격은 존재합니다.

지금의 고위직 선출제도는 보이지 않게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더 없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승려의 수행화가 되어도 모자란데 전 승려의 정치화로 치닫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조계종처럼 교학과 선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없이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승납 자격이 인정되어 선출직에 출마하는 경우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를 갖추어가는 초입에 있지만 장래는 아득합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자연히 가톨릭의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에 눈이 멈추게 됩니다. 콘클라베 제도는 750여 년 동안 존속해 오면서 오늘날의 가톨릭 존립에 크게 공헌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보면서 "여기에 모인 120여 명의 추기경님들은 누구나 다 교황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구나! 세계 12억 가톨릭 교도들의 최고 어른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120명이나 되는 조직이 세계 어느 곳에 있겠는가?"하는 부러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조계종 내외의 사부대중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제도는 전 대중의 선거에 의한 투표가 아닌 율장의 '장로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회의'를 신설하여 소임직을 선출하고, 모든 선거제도는 파기해야 조계종이 중흥의 터를 닦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조계종만의 '콘클라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은 해인사 백련암이 발간하는 월간 〈고경〉 11월호(통권19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발행처의 양해를 구해 일부를 발췌해 실었습니다.

社說

寺址 보존, 이제 불교계에게 맡겨라

다시 불교 사지(寺址) 보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보 제2호 원각사지10층석탑은 유리보호각이 훼손을 부추겼고 이로 인해 흑색 피각 등 화학적 훼손이 일어났다. 전면에는 풍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문화재청이 2014년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보존 상태 양호' 평가를 받았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학술조사사업 손상현황자료집〉을 발간했다. 손상이 심각한 48점 중 17점이 보호시설이 없는 방치 상태였으며, 16점은 보호철책 등 인위적인 접근을 막는 1차적인 보존관리에 불과했다. 훼손 정도는 구조손실, 화학적 풍화, 이끼류, 침식 등 다양했다. 원각사지10층석탑의 훼손도 자료집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 훼손은 사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도난에서부터 무단 반출 등 전반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사지와 사지에 포함된 문화재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자료집을 통해 알 수 있다. 방치된 사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영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은 오래된 교회와 옥외 상징물 등을 민간 NGO로 이양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 보존 NGO인 '내셔널 트러스트'는 연간 9000만 파운드를 모금해 350개의 문화재 건물 등 문화재를 보존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이 2000만명 이상이다. 국민들에게 문화재의 우수성과 가치, 보존의 당위성까지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지와 소속 문화재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사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국보 · 보물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중요 비지정 사지,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특히 아직 종교적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지의 경우 보존과 관리가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 불교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동국대 불교의학연구소에 거는 기대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불교 가르침에 입각해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동국대 일산병원내에 10월 24일 문을 열었다. 이름은 불교의학연구소다. 초대 불교의학연구소장에 정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10여명의 전문의 들이 동참했다.

연구소측은 참선과 명상 등 불교수행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계획이다. 불교와 의학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밝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또한 한국인에 적합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이나 템플스테이도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소를 잘 활용한다면 불교의학의 새 개념 정립과 함께 실용적이면서 과학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법 활동에 치유적 근거를 마련할 초석이 될 것이다.

먼저 불교의학연구소는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규명하지 못한 다양한 병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고혈압, 스트레스 증후군, 만성질환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불교적 치유방법 모색과 함께 노령사회에서의 건강 증진에 대한 대책 등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일대에 들어선 바이오메디캠퍼스의 한의대와 약대, 자연대학들과 시너지효과도 충분히 기대된다.

향후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응용분야로도 연구분야를 넓힐 것이라는 정인원 소장의 계획처럼 이번 불교의학연구소 개소가 불교계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료기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4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단풍 나들이객이 전국 산하를 수놓는 여행의 계절이 되었다. 봄꽃보다 어여쁜 가을 산의 유혹이 크다 해도 깨달음 향기 듬뿍 담긴 책의 유혹보단 못하다. 민족사에서 책 책 읽기 좋은 햇살 좋은 가을 날, 연이어 두 권의 매혹적인 책을 출간했다. 제목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는《땅콩 스님과 애벌레선禪》(보현 스님),《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일진 스님). 필자 두 분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비구니스님인 것도 특별하게 보인다. 보현 스님은 모델 가수 출신 최초의 비구니스님이고, 일진 스님은 조계종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일본 교토불교대학을 졸업한 불교계 대표적인 학승으로 현재 운문사 주지 · 종회의원으로 선과 교학, 행정 등 이와 사를 두루 겸비한 비구니스님이다. 두 분 다 인물이 출중하여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감화를 받게 된다.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禪, 일진 스님의 행복한 승만경 이야기,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한 권은 선 수행 이야기요, 한 권은 승만경 해설서로서 두 권의 책이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두 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일맥상통하다. 행복, "우리는 모두 붓다의 씨앗을 품고 있다. 우리 안에 깃든 에너지를 끌어내어 행복하게 살자"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두 권의 책에 담긴 글줄, 행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마음 근육이 단련 되니, 새로운 힘이 샘솟는 것 같다. 감기 걸리기 쉬운 일교차 심한 가을날 건강 챙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한 두 권의 책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운문사 일진 스님의 행복한 승만경 이야기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지음
신국판 변형 | 312쪽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는 절대 평등의 진리의 세계에 감화받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은 존재하고,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 인도는 더더욱 심각하다. 인도인의 90퍼센트가 믿고 있는 힌두교는 여성 차별과 카스트라는 신분차별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종교이다. 그래서 인도는 '신의 나라, 성자의 나라' 라고 불리는 반면에 불평등한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로도 유명하다.

불가촉천민(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도 최하층민) 출신으로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암베드카르는 60여 년 전 50여 만 명의 불가촉천민과 함께 불교로 개종하여 인도 사회의 변혁에 앞장섰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 인도 불가촉천민 출신 여성으로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풀란 데비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이 사주한 괴한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인도 여성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21세기인 지금도 차별받는 여성이 많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여성이 성불하여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대신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 점만으로도 승만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승만경은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여래장 사상을 설파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모든 존재는 여래의 씨앗이라고 하는 여래장 사상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래장사상은 선불교(禪佛敎)의 사상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일진 스님은 2천 년 전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일깨워준 승만경의 탄생만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승만경의 가르침은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설한 유일한 경전 승만경, 비구니스님 최초의 승만경 해설서!

〈승만경〉은 여성 불자인 승만 부인이 설법을 하고, 옆에서 부처님이 승만 부인의 설법이 옳다고 지해 주고, 승만 부인이 성불하여 보광(普光)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경전이다.

일체중생 실유불성(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을 강조하는 불교는 만 생명의 절대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불교 또한 초기경전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했다. 법화경에서는 용녀가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성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승만경에서는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하는, 여성즉신성불설(女性卽身成佛說)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에게만 사용하는 '사자후' 라는 말을 여성인 승만 부인의 설법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승만경이 페미니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한 비구스님이 "여자가 백 년을 해 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가 100년을 기도 수행해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다음 생에 비구가 되겠다' 는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신다는 노스님의 말씀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여성이 설한 경전인 승만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의 서두에서 일진 스님은 40여 년 동안 승만경에 천착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 승가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진 스님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만경의 가르침을 체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승만경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사상, 일승 사상을 확실하게 드러낸 경전이기 때문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승만 부인의 10대 서원을 통해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기에 일진 스님은 기회만 있으면 불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승만경을 읽고 참뜻을 참구해 가고 있다.

"여성 불자들이 승만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실천한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단한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수행과 삶, 여성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승만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부터 저는 새로운 원을 세웠습니다." – 본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여성이다. 아니 세상사람 모두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대부분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즉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성이든 또 다른 여성이든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에서 나아가 나라에 행복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지구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주춧돌이다. 이 책의 행간 행간마다 '승만경을 읽는 공덕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이다' 라고 기원하는 스님의 애정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어 자못 감동적이다.

이 책은 비구니 스님 최초의 승만경 해설서다. 비구니인 일진 스님이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40여 년 동안 체험과 사유, 수행과 다양한 곳에서 설한 강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승만 부인의 열 가지 큰 서원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다.

"여래가 될 수 있는 씨앗 즉 여래장이 번뇌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그 오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흰옷을 처음 샀을 때 본래는 깨끗한 흰옷인데, 얼마간 입으면 때가 묻어서 누렇게 됩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면 또 깨끗해집니다. 옷을 빠는 것이 수행입니다." – 본문 중에서

일진 스님은 왜 사람들이 여래로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 흰옷이 여래장이요, 때가 번뇌요, 빨래가 수행이라는 것이다. 한편 승만 부인은 열 가지 서원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진 스님이 법석法席에 앉아 강론講論을 하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며 바람에 풀이 쓸리듯 감화를 받는 것도 이러한 수행자로서의 평소 모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진 스님이야말로 이理와 사事를 구족한 승가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전 전국비구니회장, 현 운문사 회주, 명성明星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운문사 일진 스님의 잔잔하고도 활력 넘치는 해설을 읽는 동안 바람에 풀이 쓸리듯 감화를 받게 된다.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마음이 환하게 마음이 열리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크나큰 동력이 될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제목과 부제처럼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지며 삶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아이돌 스타 생방송 도중 사라져 홀연히 출가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禪



보현 스님 지음 | 강명주 사진
변형신국판 칼라 | 13,800원

힐링 멘토로 돌아온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 이야기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제목만 봐도 흥미진진하다. '80년대 아이돌 스타가 왜 출가했을까? 땅콩 스님은 어떤 분이고 애벌레선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힌다. 보현 스님은 지난 1999년 자전소설 〈타래〉에서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 역정을 풀어냈다면 이 책에서는 수행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활 선을 통해 마치 애벌레가 나비되어 날아가듯이 세간에서 짊어지고 있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 이야기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수행을 통해 당신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쓴쓸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삭발하는 날, 환희심에 차서 날아갈 것처럼 홀가분했습니다.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를 출가로 이끈 땅콩 스님을 더 이상 꿈에서 뵐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배처럼 땅콩 스님은 그날 이후로 생생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행방불명, 갑자기 사라진 스타, 잠적한 이유' 를 밝히는 방송이 만들어져 방영될 정도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보현 스님, 인기 스타가 고행 길을 걷는 출가 수행자가 된 것에 대해 추측만 무성했는데, 스님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출가 인연 이야기를 밝혔다. 몽중가피로 이루어진 스님의 출가 인연 이야기가 매우 독특하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동안 땅콩 스님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는데,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았기에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당당한 수행자의 면모가 느껴진다.

스님은 스타 시절, 자살 충동을 느꼈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출가 수행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당신처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20대와 노인들, 특히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스님의 체험으로 빚은 특유의 통찰과 생활 선 수행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

자기가 옳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만인을 선지식으로 섬길 때 고통이 사라진다

"참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답을 빼면 비로소 참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라는 보현 스님에게서 깨달음의 향기가 전해진다. 스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임을 이 책에서 확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선 수행을 통해 참 나를 보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던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슴속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애써도 그 번뇌 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하기 힘들다", 원수를 부처님으로 선지식으로 섬길 때 번뇌 망상과 고통에서 사라진다는 스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스님의 수행력으로 빚은 한 말씀 한 말씀이기에 안심입명을 넘어 근원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다.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운동선수는 시합 긴장증후군, 탤런트는 연기 긴장증후군, 가수는 공연 긴장증후군 등등. 긴장증후군은 다 불안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러한 긴장증후군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잘 관찰하고 본질을 찾는 공부를 해 나가면 보너스를 받았다는 고마운 느낌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고 역설하는 보현 스님,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는 생활 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세수하면서도, 거울을 보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서도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7분 수행, 생활 선으로 환골탈태의 삶을 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 책은 5개의 장과 부록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각 장의 문을 열 때마다 스님이 작사한 찬불가요가 한 편씩 실려 있다. 이 책에서 마음을 울리는 스님의 찬불가요와 부록 '행복충전소 부처님 마을' 에 담긴 스님에게 부처님 마을 불자들의 수행 체험담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봉 축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추의 계절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식이 오는 양력 11월 17일 월요일(음력윤9월 25일) 오전10시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한국불교계 고승대덕 스님을 비롯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하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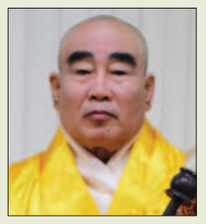
- 아 래 -

◎ 행사제목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 일시 : 불기 2558(2014년) 양력 11월 17일
(음력 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부터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02)735-4111~3번

◎ 사무처 : (02)756-1227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⑧번 출구 / 3호선 경복궁역 ⑥번 출구
1, 2호선 시청역 ③번 출구
◎ 버스 103, 109, 150, 401, 402, 406, 704, 1711, 7016, 7018
7022, 7023, 401
◎ 광역버스 5500, 9001, 9400, 9401, 9411, 9600, 9602, 9706
9708, 9713
◎ 주차장(지하)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또는 세종로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권은 식장에서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 (042)285-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